

제309회 국회  
(임시회)

#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 5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2년7월27일(금)

장 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업무보고(계속)
  - 가. 근로복지공단
  - 나. 한국산업인력공단
  - 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마. 한국고용정보원
  - 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 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자. 노사발전재단
  - 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계속) ..... 2
  - 가. 근로복지공단
  - 나. 한국산업인력공단
  - 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마. 한국고용정보원
  - 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 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자. 노사발전재단
  - 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신계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309회 국회(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고용정보원·한국

사회적기업진흥원·학교법인 한국폴리텍·한국기술교육대학교·노사발전재단 그리고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이상 10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첫 업무보고를 받는 날입니다.

이들 공공기관들은 나름대로 설립 목적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 왔고, 현재도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각각 기관들이 설립 목적에 부합하게 제 역할을 하는지,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연구들이 얼마나 고용노동정책 변화와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 기관들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소상히 점검·확인하고, 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업무보고(계속)**

**가. 근로복지공단**

**나. 한국산업인력공단**

**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마. 한국고용정보원**

**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자. 노사발전재단**

**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10시09분)

○**위원장 신계륜**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고용정보원·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학교법인 한국폴리텍·한국기술교육대학교·노사발전재단 그리고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이상 10개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는 기관들은 19대 국회 들어서 처음 하는 업무보고인 만큼 이 점을 감안하여 자신들의 기관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위원님들은 가능한 한 구체적인 질의는 끝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에 따라서 순서대로 10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고, 그다음에 일괄하여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근로복지공단 신영철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소개하신 다음에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신계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19대 국회 첫 임시국회

에서 저희 공단의 금년도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산재보상 업무와 저소득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 95년 5월 1일 설립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공단 5000여 명의 임직원들은 최적의 산재보상, 재활 지원과 산재의료사업 그리고 영세·취약계층 근로자 복지 증진 등 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2010년 한국산재의료원 통합, 그리고 2011년 4대 사회보험 징수 통합에 따라 지난해에는 기관 통합의 시너지효과 창출과 산재보험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의 크나큰 지원 속에서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작하였고, 올해 7월 26일부터는 3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더욱더 안정적으로 취약계층 근로자의 노후소득 재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정부의 친서민정책에 따라 5월부터 택배·퀵서비스업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공단은 사업주 및 종사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가입을 독려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영세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금년 2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7월 1일부로 전국에 시행하였습니다. 이로써 사업주 및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부담이 줄게 되어 취약 근로계층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양 초기부터 직업 복귀까지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해근로자의 직장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단 지사 직원이 직영병원에 상주하면서 요양·보상·재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재활 전문병원인 대구산재병원의 개원을 기반으로 의료와 직업재활 부문의 통합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단은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과 생활 안정을 실현하는 근로복지 전담기관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이러한 각오와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 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의 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운학 감사입니다.

최준섭 기획이사입니다.

배정근 재정복지이사입니다.

허원용 산재보험급여이사입니다.

황원순 재활의료이사입니다.

(임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공단의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사업 추진현황, 주요 현안과제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공단의 설립 목적과 연혁을 말씀드리면,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과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 촉진을 위한 보험시설의 설치·운영,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5년 5월 1일 설립되어 산재보험 및 근로자복지사업, 고용보험 적용·징수 업무, 진폐근로자 보호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2010년 4월 28일 한국산재의료원과 통합하였으며, 2011년 1월 1일부터 고용·산재 보험 징수 업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하였습니다.

2쪽, 기구 및 정원입니다.

공단의 기구는 본부에 이사장, 감사, 4이사, 2본부, 10실(국), 1위원회 그리고 1연구센터가 있고, 소속기관으로는 지역본부 6개소, 지사 49개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6개소, 인재개발원 1개소, 병원 10개소 등이 있습니다.

정원은 5212명이며 현원은 4997명이고 여직원 비율은 54.9%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총예산은 정부수탁사업 4조 5407억 원을 포함하여 총 5조 6419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관련 법령에는 산재보험법 등 8개 법률이 있습니다.

5쪽의 공단의 전략경영체계와 6쪽의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7쪽, 산재·고용 보험 사업 활성화 부분입니다.

먼저 합리적인 산재보험 요양·보상 체계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요양 결정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직업성 암, 뇌심혈관계 질환 및 근골격계 질환 등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개선 중에 있고, 노사 합의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재해조사 역량을 높이고자 업무상 재해조사기준 표준화 및 직업성 질병 재해조사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사회 변화를 반영한 산재보상제도 선진화를 위해 수급권 자격의 남녀 차별 등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간병급여 지급체계를 개선하여 요양 종결 후 적정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보상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연금액 안내시스템 구축 및 휴면보험급여 찾아주기 확대와 함께 취약 산재근로자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을 확대하였고, 고객편의를 위해 휴업급여 모바일 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재근로자 직업 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맞춤형 통합서비스의 조기 정착을 위해 산재근로자 개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계를 정비하였고 산재근로자의 욕구 및 심리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요양 단계별 사회심리 재활서비스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직장복귀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원직장 복귀 활성화와 산재근로자 전용 직업훈련 체계화로 직업복귀율을 향상시켰고, 요양환자 대상으로 희망 찾기, 요양 종결 후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 재활프로그램 제공을 확대하였으며,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쪽, 산재·고용 보험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해 고용·산재 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자진신고 안내 및 취약업종 사업장의 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약근로계층 보호를 위해 50인 미만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에 역량을 집중하

고 택배 기사 및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 특례 적용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재환자 중심의 직영병원 의료·재활 서비스 강화 부분입니다.

먼저 직영병원의 역할 강화를 통해 총 연 48만 4000여 명의 산재환자를 진료하였고,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등을 통해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있으며, 집중재활치료, 운동치료 등을 통해 산재환자의 직업 복귀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폐 관련 진료지침과 직업성 폐질환 관련 합리적 보상체계 개발 및 업무 관련성 전문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요양에서 직업 복귀까지 통합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산재근로자가 지사를 방문하지 않고 산재병원 내에서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활환자 전문분야별 팀 평가회의를 통해 치료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직업복귀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치료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금년 4월 대구산재병원을 개원하여 의료재활과 직업 및 사회재활을 연계한 통합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산재환자에게 적합한 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재활치료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근로계층 복지서비스 지원 확대 부분입니다.

취약 근로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저소득 근로자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및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비 대부, 근로자 능력개발 대부, 훈련생계비 대부, 그리고 임금채권보장사업을 통한 체당금 지급 및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담보능력이 미약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확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퇴직연금 공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주요 선진기업 복지제도를 쉽게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무료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공단 직영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직장보육지원센터의 확충 운영을 통해 직장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보육수요 해소를 위해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2개소를 선정·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택배·퀵서비스업 산재보험 적용 확대입니다.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종사자도 금년 5월 1일부터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시행을 하였습니다.

금년 7월 20일 현재 2238개 사업장에서 1만 5041명이 입직신고 되었고 이 중 7949명이 실제 적용되어 적용률은 53.1%입니다.

앞으로 사업주 및 종사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가입 독려로 보다 많은 종사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은 보험료 부담 때문에 사회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를 위하여 보험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단에서는 사무능력이 취약한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가입 편의를 위하여 사업장을 직접 방문 상담하는 찾아가는 가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사업장이며, 최대 지원금액은 월평균 보수가 105만 원 미만인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각각 2분의 1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부터 16개 기초자치단체 시범사업을 거쳐 효과적인 가입 확대 대책을 마련하여 7월 1일부터 전국에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기 신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송영중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소개한 다음에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송영중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신계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09회 임시국회를 맞아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발전을 위해 평소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1982년도에 설립된 이후에 평생능력개발, 국가자격관리, 외국인고용관리, 해외취업 및 국제협력, 숙련기술 장려와 기능경기사업 등 국가인적자원 개발의 핵심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공단은 기능 및 조직 개편을 통해서 평생직업능력개발의 중추기관으로 위상을 굳건히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출발점에서 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미래의 3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수받은 사업주 능력개발지원금 업무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켰으며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품질 향상을 위해 현장밀착형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을 통해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취업아카데미사업 등을 추진하여 현장 실전형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자격 허브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 12종목을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 재위탁 하였습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활용을 확대하고 과정 이수형 자격제도 도입에 대비한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자격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자격 수험자에 대한 복지환원 서비스를 추진하여 고객만족도 제고에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5월에는 국제기능올림픽 제주총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였고 숙련기술인이 산업현장을 이끌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하여 국민스타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고용지원 사업의 내실화와 불법체류 예방을 위하여 최초 입국 후 귀국까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체류기간 만료 외국인 근로자의 자발적인 귀국을 지원하고 성실근로자의 재입국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

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임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석원 감사입니다.

정일성 기획운영이사입니다.

이성기 능력개발이사입니다.

김연옥 능력평가이사입니다.

(임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공단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다음으로 2012년 경영목표와 201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공단은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그리고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실시, 자격검정을 통해서 산업인력의 양성·수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1982년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으로 설립된 이후에 수차례의 기능 조정을 거쳐서 금년 1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금 사업을 인수하고 국가기술자격 12종목을 민간으로 위탁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으며, 자세한 연혁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조직은 본부에 이사장, 감사, 3인 이사, 1본부, 13국, 39팀이 있으며 부설기관으로 자격출제원과 소속기관으로 6개 지역본부, 18개 지사, 그리고 외국인 고용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15개 해외 EPS 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임직원 총 1098명입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출연금, 자체수입금 그리고 고용보험 출연금 등 3개 수입 재원과 자격 검정사업 등 9개 지출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폴리텍대학 그리고 한국기술교육대학에 재출연하고 있고 규모는 5877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정부보조금사업으로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사업 등 총 5424억 원을 집행하는 총예산 규모는 1조 301억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 사업은 능력개발, 능력평가, 숙련기술 장려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세부 사업은 뒤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2년 경영목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의 비전은 '사람과 기업의 가치를 높여 주는 최고의 인적자원개발 전문기관'입니다. 경영방침은 고객 감동, 성과 중심, 사회적 책임, 세계 지향이며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서 4대 전략과 12대 세부과제를 정하여 경영목표를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뒤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평생직업능력개발 시스템 구축입니다.

공단은 과거에 기능인력 양성사업을 직접 수행했습니다마는 2006년부터 기업과 근로자의 평생 경쟁력 제고를 위한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기관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청년층의 일자리 지원, 그리고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 그리고 중소기업의 HRD 구축 지원 등 평생직업능력개발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근로자의 직업능력 참여 확대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사업주 능력개발지원금사업을 신규로 수행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사업의 조기정착화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약 3030만 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업무개선을 통해 효율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과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능력개발 지원사업 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핵심직무능력 향상 과정과 청년층을 위한 청년취업아카데미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 훈련 과정에 대한 심사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중소기업에 HRD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가 인적자원 개발 컨소시엄을 통해 훈련시설이 우수한 대기업, 사업주 단체 등이 복수의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인프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을 위해서 사업장 내에 학습활동과 인프라를 지원하고, 현장훈련을 선호하는 중소기업의 여건을 고려해서 체계적 현장훈련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터에서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업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금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

다. 기업별 교육관리시스템 그리고 학습모임, 전문가와 근로자 간에 온라인 만남의 장을 지원하고, 모바일기기를 활용해서 아래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언제 어디서든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8쪽입니다.

훈련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변화에 적합한 직업능력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훈련교재 그리고 시청각매체를 개발·보급하고, 기존 인쇄형 교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QR-코드 콘텐츠 서비스 도입 등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여갈 계획입니다.

또한 교재 판매 온라인 사이트를 콘텐츠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상품거래 창구인 가칭 직업능력 개발 콘텐츠 E마켓으로 개편·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직업방송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정보나 직업능력 개발 강좌 등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작·송출하고 있는데, 앞으로 초·중·고의 정규수업 활용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성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직업능력 개발의 달 행사를 9월 중에 개최하여 HRD 주요 정책 및 고용 관련 이슈에 대한 공론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직업능력 평가체계를 다양화하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 열두 가지 종목의 민간위탁을 통해서 허브기관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도입 등 직업능력 평가체계를 다양화하겠습니다. 연간 503개 종목 320만 명에 대해서 무결점 검정을 시행하겠습니다.

자격의 현장성 강화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입니다.

녹색성장산업 등 국가인력 수급 정책에 필요한 자격종목을 새로 개발하고, 출제 기준도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시험 문제의 질 제고를 위해서 양질의 신규 문제를 확보하고, 기출 문제의 변형출제를 통해서 문제은행 보유 문제를 최신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격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현장전문가 활용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해서 활성화해 나가

고, 이것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다양한 패키지를 개발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격의 허브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이수형 자격 도입에 차질 없이 준비를 해 나가고, 많은 교육기관이 새로운 능력평가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험자의 응시 기회 확대를 고려한 자격 검정 시행을 위해서 상시검정 시행 종목과 시행 지역을 확대하고 주·야간 필기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국가기술자격의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발전모델을 선택한 베트남 등에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수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진흥원 등 5개 검정 수탁기관에 대한 기술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객편의 증진을 위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 스마트폰용 국가자격시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보급하겠습니다. 그리고 SNS를 통해서 자격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험자와의 소통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숙련기술인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명장 등 산업현장의 우수 숙련기술인을 발굴·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숙련기술인 중에 국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성공스토리를 발굴해서 방송매체 등으로 홍보하는 국민스타화 사업을 추진하고,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단의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숙련기술장려 인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청소년 진로지도, 대한민국 장인 작품 박람회, 어린이 기능캠프 등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실 있는 기능경기대회를 위해서 금년 9월 초에 개최되는 전국기능경기대회를 국민 참여형 대회로 발전시키고, 내년 6월 말 독일에서 개최되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글로벌 인적자원 시스템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고용허가제로 우수한 외국인력을 도입하여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종합계획에

따라서 해외취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과 외국인근로자의 동반성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우수한 인력을 조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한국어능력시험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기능수준 평가를 확대 시행하는 등 외국인력 선발체계를 고도화하고, 외국인력 도입기간 단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외국인근로자에게 따뜻한 체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7개의 거점 외국인력지원센터와 27개의 소지역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불법체류 최소화를 위한 자발적 귀국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사업장 변경자 취업적응 교육 그리고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취업교육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리더 양성사업 내실화입니다.

해외취업연수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 취업 유망직종 중심으로 해외 연수과정을 추진해 나가고, 대학과 지자체 공단이 협약 체결을 통해서 역할과 비용을 분담해 나가는 대학 중심의 연수과정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국내 인력의 해외 노동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KOTRA에 해외취업지원 거점 KBC 그리고 저희 공단의 EPS센터를 활용하여 해외 우량 구인처를 개척해 나가고, 해외취업박람회 그리고 사업설명회들을 많이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적자원개발 제도의 국제협력 강화입니다.

국제협력사업 영역을 다변화하는 등 추진체계를 재정립하겠습니다. 글로벌숙련기술진흥센터로 파독광부·간호사 기념관 건립 등을 추진하고, ILO 아시아훈련센터, 국제기능올림픽사무국 등 국제기구와 연계해서 기술연수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개도국 등 중점 협력국과 직업훈련에 관한 교류를 확대하고, 한국형 HRD 모델을 전수하는 등 국제HRD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조직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금년 초 기능 및 조직개편이 고객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객만족 경영체제를 강화하고, 성과 중심 평가체계, 그다음에 윤리경

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고객감동 실현을 위해서 통합 VOC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의 소리를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불만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과 중심의 합리적 성과체계를 확립하고 기능 개편에 따른 직무체계 변화를 반영하여 핵심역량을 제정의 하겠습니다.

끝으로 윤리경영시스템을 내실화해서 지속 가능한 경영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HRD코리아의 브랜드를 확산시키며, 대외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업무현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백헌기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소개한 다음에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금 당부 말씀을 드리면, 보고기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충실히 보고해야 하지만 자료가 충실하니까 조금 더 요약적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계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새롭게 구성된 제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우리 공단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안전보건공단은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재해예방활동을 지원하고 범국민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 1987년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이후 공단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재정 지원, 교육, 홍보, 연구개발, 국제협력 등 재해 감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공단 창립시 2.66%이던 산업재해율이 지난해 역대 최저치인 0.65%로 낮아지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 우리 공단은 재해가 다발하는 50인 미만 제조업, 20억 미만 건설현장, 서비스업 7대 업종 등 핵심 타깃에 대해 기관의 한정된 인력과 자원을 집중하여 다양한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설립 및 재해 발생 사업장의 효과적인 산재 감소를 위해 적시기술지원 시스템을 도입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새롭게 부

각되는 운수·창고·통신업 분야에 재해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장 자율안전보건체제 구축을 위해 2013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위험성평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고·사망 재해감소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떨어짐, 감김·끼임, 화재·폭발 등 업종별 사망재해 다발 5대 유형 집중관리, 외국인근로자 등 취약 부문에 대해 예방 강화를 통해 사망재해 증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근로자건강센터의 확대운영, 사업장 건강증진 활동 지원, 작업장 유해화학물질관리 등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 전반에 안전문화의식을 뿌리내리기 위해 정부기관, 공기업, 업종별 직능단체 등 293개 기관과 안전보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함께하는 안전보건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조심조심 코리아’ 슬로건의 확산, 안전점검, 교육, 캠페인 등도 공동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 정책·실용 연구, 다차원적 재해원인 통계 분석, 국제협력 등 안전보건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 1300명 임직원은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산업재해 예방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백낙문 기획이사입니다.

임승업 교육홍보이사입니다.

(임원 인사)

신병치료 중인 김해수 감사와 공무 국외출장 중인 이신재 이사는 부득이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산업재해 발생현황, 산업재해 예방활동 체계, 산재예방사업 주요성과, 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 중 첫째, 기관현황입니다.

설립근거는 87년 제정된 한국산업안전공단법이며, 설립 목적은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

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재해예방 활동을 지원하고, 범국민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것입니다.

공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며, 주요연혁으로는 87년 12월 9일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설립되었으며, 08년 12월 31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 연구원, 교육원, 6개 지역본부, 17개 지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단의 주요 기능은 산업안전보건 진단 및 기술·재정 지원, 교육 및 정보·자료의 개발·보급,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국제협력 업무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부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둘째, 기구 및 정원현황입니다.

조직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현황은 본부 182명, 산하기관 1133명으로 총 1315명이며, 공단 직원 중 기술사가 362명, 기사가 671명, 박사가 59명, 석사가 409명, 전문의 5명 등 다수의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셋째, 예산현황입니다.

수입의 주요 재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출연이며, 12년도 예산은 39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지출예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간의 재해발생 현황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산재보험 적용의 확대로 2000년도에 들어 재해예방서비스 대상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지만 지속적인 예방활동 노력을 통해 11년 역대 최저 재해율, 사망만인율, 사고사망만인율을 기록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11년도 재해발생 현황은 재해율 0.04%p, 사망만인율 0.08%p, 사고사망만인율 0.01%p가 감소하였으며,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34.6%, 건설업이 24.4%, 서비스업이 31.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자의 82.41%인 7만 6885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 넘어짐, 감김·끼임, 떨어짐 등 재래형 3대 재해가 전체 업무상 사고의 57.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은 근골격계 질환, 진폐, 뇌심혈관계 질환이 전체 업무상 질병의 91.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말 현재 재해발생 현황은 재해율 0.02%P, 사망만인율 0.04P, 사고사망만인율 0.04P가 감소하였으며,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35.8%, 건설업이 23.5%, 서비스업이 31.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산업재해 예방활동 체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그간의 산재예방사업 중요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서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0.7%대에 정체된 재해율을 2010년 0.6%대에 진입하는 변곡점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기술지원 타깃 선정을 과학화하고 지원방법을 차별화하였으며, 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서비스업에 대한 산재예방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사회 각 주체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함께 하는 안전보건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에는 공단 설립 이후 최저 재해율인 0.65%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재해예방의 중심을 제조·건설업에서 제조·건설·서비스 3대 축으로 전환하고, 사고 사망재해의 위험이 높은 소규모 건설현장에 재해예방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장의 자율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산업보건 사업의 영역을 확대하였으며, 재해발생 사업장에 적시기술 지원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운수·창고·통신업 신규 위험요인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기관의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전략목표를 사고 사망자 수 6% 감소로 설정하고 중점 추진방향을 3대 업종 중심의 사고 사망재해 예방 집중 관리, 적시 지원을 통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사업장 자율안전관리능력 배양 지원 확대,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활동 강화, 근로자 안전보건의식의 전환 등으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첫째, 공단은 사고성 재해예방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고 사망재해 위주의 업종별 취약사업장의 중점 관리를 위해 50인 미만 제조사업장, 3억 미만 건설현장의 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직접 방문 컨설팅을 10만 개 사업장에 대해 지원하고, 사고·사망재해가 증가하는 운수·창고·통신업에 대해서 안전작업가이드 보급 및 통합물류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한 본격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종 중 7대 업종을 대상으로 방문 캠페인 및 집중지원 사업을 15만 개 사업장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시 방문을 통한 맞춤형 재해예방 서비스를 지원하고 사망재해 등 재해 발생 시 1개월 이내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재해원인 분석 및 직간접 예방대책을 지원하고 신규 설립 사업장에 대해 재해발생 위험도에 따라 기술·교육·재정 및 정보자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대형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100대 건설업체 사망재해 발생 시 공공발주기관 또는 건설업체 본사를 방문하여 기술적 원인 및 대책 제시 등 컨설팅 지원을 실시하고, 세종시·평창 동계올림픽 등 주요 국책 건설사업에 대해 발주기관과의 합동점검 및 교육·기술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1000대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공표 및 42개 주요 공공발주기관별 재해현황 통보를 통한 자율안전관리 활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재정 사정으로 안전보건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장에 대해 보조·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위험기계·기구 11종과 방호장치·보호구 31종에 대해 설계·제작 단계에서 위험요인 사전 제거를 위한 의무안전인증 및 자율안전 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험기계·기구 설비 12종에 대해서 사용 단계에서 정기적으로 점검,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고 사망재해 감소를 위해 특별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폭발,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 부분에 대해서 예방도 강화하는 한편 업무협약기관, 안전보건리더그룹 기업·단체와 재해 감소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둘째, 사업장에 위험관리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시범사업의 경우 사업장 내 사고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평가하여 개선·재검토하는 순환 과정을 반복적·체계적으로 시행하도록 2만 개 사업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에서 안전보건을 경영의 제1가치로 삼고, 조직과 프로그램을 갖추어 지속적·체계적으로 실현해 나가도록 컨설팅하고 그러한 시스템 확보 여부를 인증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업무를 제조 및 기타 업종 200개사와 건설업 28개사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며, 재정·기술 능력이 부족한 10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비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화재·폭발·누출 등의 중대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설비의 신설·이전·구조변경 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받아 심사하고 가동 전 이행여부 확인을 48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업무의 경우 재해발생 위험도가 높은 업종 또는 설비에 대해 공장 신설·이전 및 설비 변경 시 사전에 안전성 심사 28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건설업은 터미널·백화점 등 다중이용 건축물, 교량·터널·굴착공사 등 대규모 공사를 대상으로 1357건의 안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셋째, 직업건강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업보건 기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보건관리 종합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하여 직업병 유해요인 관리 및 직업건강상담 및 교육 지원을 하고, 작업환경이 열악한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작업환경측정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사 주도의 자발적인 건강증진활동 추진 의지가 있는 사업장·단체에 활동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근골격계 질환에 취약한 직종에 대한 실태조사, 예방매뉴얼 작성, 프로그램 컨설팅 등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위험관리기법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노출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한 유해인자 노출수준 저감 기술 지원과 산업보건 전문기관이 실시한 작업환경 측정결과에 대해 유해인자의 누락 여부, 측정결과 확인 등의 신뢰성 평가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사선 및 석면 노출, 질식사고 발생 등 새롭게 부각되는 산업보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석면해체·제거 작업 안전성 시범평가, 조선·건설업 석면 취급 근로자 건강관리수첩 발급 활성화 및 석면안전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넷째, 안전문화 선진화 추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전보건교육은 직장 이동성이 잦은 건설업의 안전교육 사각지대 발생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교육기관을 통한 건설근로자 기초안전교육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소규모사업장의 업종·공정별 맞춤 교육을 30만 명에게 실시하고 외국인·고령 근로자, 예비산업인력 등 산재취약계층의 교육과 실험·실습 위주로 74개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보건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안전보건지킴이 및 안전보건 서포터즈 양성을 통해 사업장 내 안전불감증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정부·유관기관·직능단체 또 안전보건 협력사업, 안전보건 리더그룹을 통한 안전점검, 교육, 캠페인 등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미디어 개발·보급 및 홍보사업입니다.

스마트폰용 안전보건 어플리케이션 및 QR코드 콘텐츠 등 수요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최신 미디어를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업종별·직종별로 수요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611종을 개발·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방송, 신문, 인터넷 매체를 통한 ‘조심조심 코리아’ 안전문화 슬로건 확산과 KBS ‘위기탈출넘버원’, SBS ‘생방송 투데이’ 등을 통해서 일반인에게 사례 중심의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7월 첫째 주를 산업안전강조주간으로 설정하여 다양한 안전보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다섯째, 산업안전보건 연구 및 조사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정책 및 실용연구를 위해서 산업안전보건의 정책·제도·안전시스템, 유해·위험성 연구 등 총 81개 과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결과 활용 제고를 위해 학술지 논문 게재, 학회발표 활동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통계를 생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 공식 산업재해현황 통계 및 근로자 건강진단·작업환경 측정결과 통계를 생산·제공하고, 업종·규모·재해형태별 다차원적인 재해원인을 통계 분석하는 등 산재예방정책 및 계획수립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 및 정도관리의 내실화를 위해 석면·벤젠·유해방사선 관련된 직업성 암, 감염성 질환 취약업종 및 공정 등에 대한 역학조사 4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정도관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석면분석기관 중 참여기관에 대한 평가를 5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사업입니다.

안전보건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해 공단 주도로 신설된 국제사회보장협회 예방문화위원회 의장국으로서 전 세계 예방문화 정착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5년 제31회 국제산업보건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차질 없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세계보건기구 등과 공동 세미나 개최, 전문가 초청 등을 통해 선진 정보·기술 교류 및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핀란드 산업보건연구원 등과의 공동연구 및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개발도상국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아시아지역 개발도상국의 산업안전보건 시스템 구축을 18회 지원하였고 국가 간 협력사업에 의해 중국, 몽골, 베트남 등 8개국 10개 기관에 기술공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단의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다음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성규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하고 간부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성규** 장애인고용공단 이성규입니다.

존경하는 신계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공단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단은 지난 1990년 설립 이래 장애인과 사업주에게 최적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고용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준비된 장애인을 좀더 확대하고자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을 노동부로부터 수탁 받아서 장애인에게 적합하도록 보완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특수학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커리어점프 희망일자리 사업을 각 정부부처로 확대하여 중증장애인의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대기업과 공단 간 고용증진협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하고 있으며 고용 저조기업 명단 공표제를 통해서 기업이 고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여 2012년 상반기에 고용 저조기업에 대해서 1174명의 취업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중증장애인 중심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30대 기업집단 1그룹 1자회사 설립운동을 전사적으로 전개해서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더 많은 장애인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2011년부터 취업자 수를 1만 명까지 확대하였으며 학교와 직장을 조기에 연계할 수 있도록 장애대학생 기업연수제를 실시하는 한편, 25개 대학 75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장애인 인식개선 서포터즈를 발족해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시행 초기 0.43%에 불과하던 장애인 고용률을 2011년 말 기준 2.28%까지 올렸습니다. 이 모두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장애인 고용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단은 온 역량을 집중해서 장애인 고용의 문턱이 낮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공단 전 직원을 대표해서 장애인고용촉진의 소명에 성실히 임할 것과 공단의 부족한 점을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에 따라서 적극 개선·시정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단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진 기획관리이사입니다.

조종란 고용촉진이사입니다.

(임원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첫 번째 일반현황, 두 번째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1쪽은 생략하고, 2쪽 연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연혁입니다.

저희 공단은 1990년 9월 1일 설립돼서 연구기관인 고용개발원과 5개 직업능력개발원, 18개 지사를 연차적으로 설치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기관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조직 및 인원입니다.

공단의 조직은 본부와 소속기관인 고용개발원 1개소 그리고 직업능력개발원 5개 그리고 지사 18개입니다. 정원은 626명인데 현 60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입니다.

2012년도 예산은 24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5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재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이 210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장애인 고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말 현재 등록장애인은 25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8.5%이고 고용률은 36%, 실업률은 6.6%입니다.

작년 말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2.28%로 2010년 말보다 0.04% 증가했

으며 최근 5년간 장애인고용률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장애인 취업지원 강화 관련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맞춤형 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 기능훈련 참여가 어려운 장애인들은 특성화훈련 과정을 통해서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가사 및 육아 등으로 시간과 이동에 제약이 있는 경우에 가까운 민간과 공공 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산업 트렌드, 장애인 구직자와 사업체의 훈련수요를 반영해서 새로운 훈련분야를 도입을 해서 장애인의 직업선택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금년에는 시스템제어, 앱 개발 등 4개 분야의 신규 훈련분야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취업역량 향상을 위해서 올해부터 통합적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노동부로부터 수탁 받아서 장애인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재설계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연수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단은 구인구직 매칭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서 알선취업자 수를 1만 명으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과 청년장애인의 취업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직무 및 직장 적응을 위해서 선배치·후고용하는 지원고용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청년층에는 직장체험 프로그램인 시험고용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구인과 구직의 매칭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과 고용을 긴밀하게 융합시키는, 중증장애인의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특수학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커리어 점프 희망 일자리 사업이 올해는 모든 정부부처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학교교육과 복지일자리 등을 고용과 함께 연계하여 장애학생의 취업을 지원하는 워크투게더센터를 시범 설치·운영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9쪽, 양질의 일자리 창출 관련입니다.

공단은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고용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명단공표 및 공표 전 예고 기간 집중 이행지도를 통해서 고용저조기업에 대한 고용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의무고용률을 초과한 장애인 고용사업주에게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해서 장애인고용 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지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중심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직접고용이 어려운 경우에 대기업에 사회전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도록 유도해서 장애인고용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사회전형 표준사업장은 총 28개소가 설립돼서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보고입니다.

장애로 인해 직업생활이 어려울 경우에 작업용 보조공학기기를 6200여 명에게 지원하고 중증장애인의 직장 적응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작업지도원 배치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시설용자 및 무상지원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한 기반조성 관련입니다.

공단은 사업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2010년 1100명에서 2012년 3800명 수준으로 매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장애인 인식개선 확산을 위해서 25개 대학에서 75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된 장애인식개선 서포터즈를 발족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9월과 10월로 예정돼 있는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22차 RI 세계대회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장애인의 기능 향상과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올해 공단은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의 실용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직업전망 및 트렌드 분석을 통해 신규 장애인직종 개발을 위해서 힘을 쏟겠고 정책 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통계조사를 실시하는 등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사는 하나'라는 슬로건 아래 노

사 공동 사회공헌 활동 등 노사관계 선진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역량 집중형 성과관리 실시 등 경영관리 부분의 선진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칩니다.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단이 되도록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고용정보원 정철균 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고용정보원장 정철균** 고용정보원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계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출발하는 제19대 국회의 첫 임시국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국고용정보원의 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 2006년 3월 설립되어 중장기 국가 인력수급 전망과 고용동향조사, 직업연구와 진로지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고용지원서비스의 평가 그리고 일자리 알선 고용전산망의 개발·운영 등 고용서비스 인프라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고용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과 고용영향평가 등 정책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한편 고객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고용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보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 아래 우리나라의 고용서비스가 한 차원 더 높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고용정보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대창 연구개발본부장입니다.

조인호 정보화사업본부장입니다.

신종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다음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용정보원의 연혁은 1979년 7월에 노동청 소속으로 국립중앙직업안정소가 개소되어 취업알선과 직업지도·직업연구 업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 기관이 2001년 1월 산업인력공단 산하 고용정보원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가 지난 2006년 3월 별도 법인으로 고용정보원으로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설립 목적은 인적자원의 효율적 육성 및 활용을 위한 인력수급 전망과 직업연구 및 진로지도, 고용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영 등으로 국가 고용정책 수립 및 고용서비스 선진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정보원의 조직은 원장 아래에 연구개발본부와 정보화사업본부, 기획조정실이 있고 그 아래에 5센터, 11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현황은 정원이 2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총액은 597억 원이고 이 중 정보화예산이 278억 원으로서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과 고용동향 분석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은 직업 세분류 등 직업에 대한 전망을 확대하고 표본통계와 행정통계가 차이가 나는 직업은 행정통계를 활용한 전망도 동시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산업·직업별 전망은 상반기 중에 과학기술인력 등 4개 과제를 수행 중에 있으며 광역 단위의 인력수급 전망은 전망권역을 5대 권역에서 9대 권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노동시장의 동향분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동시장 조기경보지수를 개발 운영하고 있고 또 단기간의 고용을 사전에 전망하는 고용선행지수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울러 월 단위 고용동향 및 주요 이슈를 분석 전파하기 위하여 매월 고용동향 브리프를 발간하고 있고 또 격월 단위로 고용동향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시장의 현안을 심층 분석해서 고용이슈로 발간 전파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고용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정책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널조사의 품질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패널조사는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설문지 구조를 개편하였고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는 금년도 조사부터 컴퓨터 조사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노동패널조사는 15차 추적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표본자료의 안정화 연구를 아울러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령화패널조사는 제4차 추적조사를 금년 8월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조사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5월에는 청년패널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으며 또 10월에는 한국노동패널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패널조사 결과를 고용이슈 등에 게재하여 교육훈련이나 고용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로 직업연구와 진로교육의 현장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업정보의 경우 워크넷의 '직업/진로' 섹션에서 직업에 관한 심층 정보 콘텐츠를 확대하고 다양한 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직업정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2년 진로·직업 박람회'를 한국잡월드와 공동 개최하여 직업박람회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베이비부머 퇴직자를 위한 전직지원 연구 등을 통해서 중·고령자의 제2의 생애설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로지도의 경우에는 직업심리검사의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현장성 있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초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잡월드와 협력을 통한 진로지도의 시너지 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잡월드에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담원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지도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진로·취업교육 전문가 양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고용정보원과 MOU를 체결한 대학과의 취업지원 워크숍을 실시하고 특성화고 취업지원관 역량모형을 개발함과 아울러 전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로 고용서비스 평가 시스템을 보완하고 고용영향평가의 질적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센터의 성과관리 시스템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축하고 시스템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평가지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용영향평가사업의 내용을 다양화하고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2011년 상반기에는 7개 정책의 평가결과를 2012년 3월 달에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경상남도의 로봇랜드 조성사업 등 15개 과제를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고용영향평가에 대한 일자리 창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평가기법 등에 대한 국내외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는 세계공공고용서비스협의회 세계총회를 개최하여 회원국 간 최신 고용서비스 사례를 공유하고 고용 분야에 대한 국제협력을 증진하였습니다. 참석 국가는 회원국 89개 국가 중에 64개국에서 참석하였습니다. 주제는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 환경 변화와 고용서비스 효율화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 말미에는 세계 고용정책에 대한 서울선언문을 채택하는 등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고용정보시스템 활용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용정보원에서는 고용보험전산망 등 7개의 주요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정보시스템의 DB 현황과 이용자 수가 아래 표와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주요 업무추진 내용은 먼저 고객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의 대폭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워크넷의 공공·민간 일자리정보 연계와 통합을 연도별로 확대하고 또 워크넷 화면을 단순화하고 검색기능을 강화함과 아울러 인터넷 취약계층도 쉽게 워크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 데이터 관리

시스템(MDM)을 구축하여 개인과 사업장에 고용·복지 자격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개인별로 수혜 가능한 고용서비스를 자동으로 추출해서 맞춤형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을 금년 5월 달에 수립하여 내년에 고용보험시스템의 전면개편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그리고 고용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각각 개별 정보시스템도 개편하고 있습니다.

먼저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의 사용 편의성을 제공하고 또 고용보험시스템은 개인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함과 아울러 부정 수급자의 재산조회 및 압류를 위한 기관 간 연계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일선 현장 담당자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경우에는 제도개편에 따른 전산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고용정보원의 지방 이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관의 이전지역은 충청북도 음성군입니다. 현재 이전 추진상황은 지난 2010년 5월 13일 다른 기관들보다 좀 늦은 시기에 지방이전계획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에 기본설계에 착수해서 금년 말 시공사 선정과 착공을 이루어서 앞으로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1시간이 넘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조금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 짧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충분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김재구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가능한 한 짧고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김재구** 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 김재구입니다.

존경하는 신계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9대 국회 출범 후에 처음으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진흥원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평가받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진흥원은 2011년 출범 이후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과 함께 전국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사회적기업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시장경쟁력을 갖춘 내실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문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저희 진흥원은 올해 사회적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면서 사회적기업 관계자와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사회적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먼저 금년에는 사회적기업 현장의 최대 고민인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온라인 상품 소개물을 구축하고, 복합형 공동판매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교육과 우수사례 홍보를 통해 사회적기업 생산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기업의 수요와 성장 수준을 고려한 단계별·수준별 경영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분야별로 전문화된 사회적기업 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 등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창업팀 선발과 소셜벤처경연대회를 통해서 참신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아이템을 발굴하고 실제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5주년을 맞아 사회적기업의 경제적·사회적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향후 지원 제도와 서비스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진흥원 모든 임직원은 고객 지향의 공공기관으로서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면서 사회통합과 국민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는 책임경영기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저희 진흥원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역할들이 더욱 성장하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경청

하여서 향후 진흥원 운영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진흥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대영 기획홍보본부장입니다.

김종각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최혁진 기반조성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주요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의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2년도 주요 업무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일반현황에서 연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6월 8일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법률안 공포에 이어서 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규정이 2010년 12월 9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후 2011년 1월에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서 2월에 출범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현재 조직은 3본부와 6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원은 42명입니다.

주요한 기능들은 사회적기업가의 양성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소셜벤처경연대회를 통해서 창의적인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는 것을 지원하며,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서 인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판로 개척과 경영컨설팅 지원, 인증서비스 지원 등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능과 관장 업무에 대해서 3페이지에 이어지는 자료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면 2012년도 총 예산규모는 235억 원이며, 작년 대비 45.4% 증가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과 판로 개척 그리고 국제협력사업이 신규로 추가됨에 따릅니다.

주요 업무현황 외 추진체계 5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면 판로 개척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들의 실질적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제품 소비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온라인 판로지원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소개하고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소개물

을 구축해서 7월 말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오프라인 판로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서 복합형 공동판매장을 올해 2개소 그리고 기존에 있던 유통업체 내에 스텝인숍 형태로 4개소를 조성하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월 1일 날 먼저 동작구청과 협력해서 진행되고 있는 복합형판매장 1호점을 오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과 2일에서 사회적기업 박람회를 최초로 개최하여서 74개소의 기업들이 참여하였고, 130개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한편 사회적기업 우선구매제도를 확산하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들을 통해서 판매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면서 생산성을 향상하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장 수준을 고려하여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개념에서 창업단계·성장단계 그리고 자립단계로 구분하여서 수준별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컨설팅과 전문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 각각 245개소와 71개소가 6월 말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면 인증서비스를 지원하고 모델을 발굴하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시인증제도로 전환된 지 1년 가까이 되는 상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총 103개소가 신청을 하여서 43개소가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41.7%의 인증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6월 말 현재 총 680개 사회적기업들이 인증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회적기업 관련한 데이터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서 사업보고서와 성과분석 결과 그리고 경영컨설팅 지원 및 연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각 정부부처 소관 사업으로 진행되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전환 지원하는 등 유사사업을 연계하고 통합지원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시면 사회적기업의 친화적인 생태환경 조성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첫째 주에 한마당 행사와 박람회를 비롯한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전주지역에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여서 아

시아 사회적기업 리더들의 공동포럼을 이루어냈습니다. 국제포럼 3일과 4일에 이어서는 총 21개국에서 1000여 명의 인원이 참가하여서 뜨거운 관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1사 1사회적기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서 진흥원 내에서도 브릿지센터를 설치하고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이 사회적기업 지원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봐 주시면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네트워크들이 자발적으로 구성이 되어서 친화적인 종교계 또 시민사회단체 또 기업계들의 참여도를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가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먼저 분야별로 단기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대학과 대학원에서 사회적기업 관련 학과나 학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를 봐 주시면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시작되었던 1차 연도에 선발된 팀이 모두 312개 팀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52%의 팀이 창업률을 달성하였고, 예비사회적기업으로는 18개 창업팀이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정방식도 단순한 아이디어 공모를 탈피하여서 사전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서 창업아이템과 소셜미션을 구체화하여서 선정하고 창업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창업팀들이 차후에 자본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간기업과 연계해서 경연대회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발굴하기 위한 소셜벤처경연대회가 진행되어서 현재 6개 권역별로 실시되고 있으며, 올해에 9월 달에 전국경연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현재 총 613개 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를 봐 주시면 사회적기업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조사표 설계에 이어서 현재 현황 조사가 거의 마무리되었으며, 9월 달에 결과에 대해서 분석하여서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들이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 편의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작성법을 안내하고 매뉴얼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사회적기업의 성과들을 투명하게 알 수 있

도록 자율경영공시들을 할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한 투자대상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투자시장 자체가 육성되고 커질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는 간담회 등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기업 이것 생긴 지가 1년밖에 안 됐는데, 작년에 생긴 겁니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김재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그래서 한 1년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일 많이 하신 것 같네요.

그런데 이것 자료가 있나요? 지방자치단체가 무척 사회적기업에 의욕이 있어서 자치단체별로 죽 사업을 벌여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경영컨설팅 하는 것도 있고. 그런 실태 파악을 잘해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관한 자료나 이런 게 있나요, 혹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김재구 예, 자료를 준비를 했을 텐데 좀 보완해서 저희가 오후 질의나 이런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예, 위원님들한테 나눠…… 저도 좀 보고 싶어서, 자료를 제출하면 좋겠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김재구 알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김재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다음은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박종구 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이사장 박종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이사장 박종구입니다.

존경하는 신계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폴리텍대학이 수행해 온 업무 전반을 보고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폴리텍대학은 민간 부분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국가기간산업과 신성장산업 분야의 중간기술인력을 양성하면서 취업을 원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술습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임무

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를 위한 향상훈련과 이동훈련을 실시하고 베이비부머, 상근예비역, 신용회복지원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대안학교를 개교하여 공공훈련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 폴리텍대학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훈련 내실화를 통해 현장 중심의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산업체와 연계하여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는 팩토리 러닝 시스템 학사제도를 운영하고 기업과 산학협력을 통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업전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화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영어교육, 리더십 교육 강화 등을 통해 기업에서 원하는 현장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직업교육훈련입니다.

야간과정을 확대해서 재직자들의 능력개발을 지원하고 2학기에는 폴리텍대학 처음으로 학위전공 심화과정을 개설하여 선취업 후진학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향상훈련 비율을 확대하고 고급과정을 개발하여 향상훈련을 내실화하고 베이비부머, 다문화가정 자녀 등에 대한 훈련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간훈련기관에서 훈련을 실시하기 어렵거나 기피하는 분야의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직접 찾아가서 이동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의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기반 산업 중심의 학과구성을 녹색 및 미래신성장동력 분야로 개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한국폴리텍대학이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권오일 기획운영이사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리텍대학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은 비전, 일반현황, 주요사업 추진성과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대표 직업교육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자 비전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세부전략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현장맞춤형 교육훈련 및 취약계층 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녹색·미래신성장동력 학과 개편, 융합형 기술인력 양성, 플래그십 학과 운영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둘째로 대외 인지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로 조직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영 효율화를 지속 추진하고 인사 및 노사관계 선진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 이하의 일반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같음하고, 6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과 7쪽은 작년까지의 주요사업 추진 성과입니다.

6쪽 박스에 나와 있듯이 작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취업률 공시에서는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운영하는 저희 대학이 상위 30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2012학년도 입시 경쟁률은 6.3 대 1로 전년 대비 상승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3년 연속 우수 등급 달성 등 위상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성과는 6쪽과 7쪽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쪽, 주요사업 추진 방향입니다.

폴리텍대학은 산업현장에 바로 활용 가능한 현장밀착형 인력을 양성하여 인력수급 불일치 현상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야간과정 확대, 향상훈련의 품질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베이비부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훈련을 확대하여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청년실업자 해소를 위해 관련 훈련과 취업지원 기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근로자를 위해서는 찾아가는 이동 직업훈련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산업현장 변화를 반영한 직업교육훈련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과의 30%를 녹색·미래신성장동력학과로 개편하고, 산업현장에서 멀티 플

레이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융합형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교육훈련계획 인원은 총 15만 635명으로 이중 다기능기술자, 기능사 등 양성훈련이 2만 2435명이고 재직자 향상훈련, 이동훈련, 취약계층훈련이 12만 8200명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훈련 내실화를 위해 팩토리 러닝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팩토리 러닝 시스템은 산업체와 연계된 프로젝트 수업을 기반으로 하는 현장실무 중심의 주문형·맞춤형 교육방식으로 현장실습 학기제, 프로젝트 실습, 소그룹 지도교수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폴리텍대학은 사업장 기술지도, 현장중심 교과과정 개발, 훈련수요 창출 및 우수 취업처 확보 등을 위해 교수 1인당 10개 이상의 기업을 담당하는 기업전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졸업생의 75.8%가 전담기업에 취업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기업경쟁력의 관건인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기술 및 인성의 조화가 시급합니다. 폭넓은 교양을 갖춘 국제적 감각과 대인관계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기업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에서는 각종 인문학과 영어교육을 강화하고 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입니다.

재직근로자의 직무역량 강화 및 교육 욕구 충족을 위해 야간과정을 확대하였고 전공심화과정을 도입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 2학기에는 폴리텍대학 최초로 전문심화과정을 통해 정부의 선취업 후진학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직근로자 향상훈련은 산업현장 기술 수요를 반영한 고급훈련과정을 개발하는 등 기업의 수요에 맞추어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베이비부머, 다문화가정, 청년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한 올해 3월에는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일반교육과 기술교육을 병행하는 고등학교 과정의 대안학교를 충북 제천에 개교한 바가 있습니다.

훈련 여건의 제약으로 직업훈련 혜택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이동 버스, 이동 컨테이너 등을 활용한 찾아가는 이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5쪽, 미래·신성장 분야 기술인력이 되겠습니다.

산업기술 고도화에 따른 필수 인력을 적기에 양성하기 위하여 2009년도부터 학과를 녹색 및 미래신성장동력학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15년까지 약 2만 명의 관련 분야 인력을 양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6, 17쪽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폴리텍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한국폴리텍, 우리나라 산업화의 기술인력을 주력군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부서인데요. 지금 이제 폴리텍대학으로 출범을 해서 새로운 산업에 적용해 나가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자료가 이게 어떤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 있는 것인지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양이 많더라도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인지, 옛날 산업과 새로운 산업을 어떻게 좀 조화시키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과정과 과목을 좀 보고 싶습니다.

오후 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이사장 박종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다음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전문기 총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전문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전문기입니다.

존경하는 신계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저희 대학 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를 포함한 HRD 전문가와 산업현장 전문이론과 현장실무 및 학습조직화 능력을 겸비한 실용공학기술자의 양성과 재직교육 및 근로자의 재교육을 목적으로 1991년도에 개교하여 현재 학부 3619명, 대학원 485명 총 4105명 규모로 운영되

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은 실사구시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특성화된 '한글 테크 기술교육모델'을 개발하여 현장 중심 실습교육, 졸업연구작품 발표회, 국가 기술자격 취득, 장기 현장실습 등 일반 공과대학과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내부 고객인 학생들은 물론 외부 평가기관으로부터 매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에 중앙일간지의 주요 30개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생만족도 조사 결과 포항공대, KAIST에 이어 전국 3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교육을 잘하는 대학으로 3년 연속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졸업생 취업률 1위, 신입생 충원율 1위 등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대학의 특성화된 교육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지난해 가을 학기부터는 국제협력단이 지원하는 13개 개발도상국가의 중견공무원 13명을 대상으로 하는 석사과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년 연속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의 교육역량강화사업 및 과학-비즈융합전문가 양성지원 사업에 선정된 바 있으며, 교과부에서 지원하는 산학협력중점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됨으로써 명실상부한 공과 중심의 핵심 대학으로서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전국 최고 수준의 특성화 대학이 된 것은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국민들이 저희 대학에 보여주신 지대한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통해서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저희 대학은 급변하는 교육환경과 인구감소에 따라 예상되는 대학 간의 무한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실천공학교육과 평생능력개발의 세계 최일류 대학이라는 목표 아래 '코리아 테크 비전 2015'를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양성·교육모델 내실화·교육문화 창조라는 3대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실천전략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함으로써 향후 세계 최고의 특성화 대학교육 모델·실천공학 기술교육과 평생인적자원개발의 요람 등 제2의 도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계륜 위원장님과 환노위 위원님 여러분!

저희 대학 전체 구성원은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HRD 특성화 대학으로서 더욱 성장하기 위해 최대한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고객 지향적이고 시장에서 인정받는 최고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천공학 및 평생능력개발을 선도하는 최일류 대학으로서 교육 및 연구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대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국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들은 대학 운영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주요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그간의 주요 추진 실적,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기타 운영 성과의 순이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대학의 설립 목적은 고급기술·기능인력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이론 및 현장실기와 학습조직화 능력을 겸비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인력개발담당자 및 실천공학기술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립 근거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령에 사업의 근거를 두고 산업인력공단에 법인 설립의 근거를 두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대학은 1992년 3월에 8개 학과 240명이 입학함으로써 개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 3월에 직업훈련 교원의 양성과 재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능력개발교육원이 개원되었습니다. 2006년 8월에는 교과부가 지정하는 기술경영 전문 MOT 대학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3월에는 법령에 의해서 구 노동교육원을 저희 대학으로 인수하는 노동행정연수원이 개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로 개교 20주년을 맞이한 바 있습니다.

조직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조직은 5처 1실 4부속기관으로 있습니다. 정원은 교원 193명 조교 34명, 인재개발직 148명, 업무지원직 22명 총 398명이 되겠습니다.

학사 편제는 대학은 7개 학부, 1개 학과, 20개 전공에 3619명, 대학원은 박사과정을 포함해서 3개 대학원, 10개 학과, 486명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 현황은 천안 병천의 메인 캠퍼스를 중심으로 3개 캠퍼스에 약 90만㎡의 부지에 약 13만㎡의 건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정규 교육과정의 HRD 전문가 및 실천공학기술자 양성과 평생능력개발 훈련 및 산업체 재직근로자에 대한 능력 개발 그리고 고용노동행정공무원의 직무교육 및 공공부문에 대한 노사관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수입에 있어서는 일반회계로서 저희 학생들의 등록금을 포함해서 금년 2012년도에 462억 원 그다음에 고용보험기금으로 306억 원 등 총 금년도 784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에 있어서 기관운영과 관련하여 인건비·기관운영비 등 일반회계로 478억 원 그리고 고용보험기금은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그간 저희 대학은 개교 이후에 총 졸업인원이 6582명입니다. 맨 오른쪽에서 보시면 지금까지 누적 취업률은 92.9%가 되겠습니다. 금년 2월에 졸업한 학생들의 금년 7월 1일 기준 취업률은 83.2%가 되겠습니다. 아마 전국의 최고 수준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행정 직무교육 및 공공부문 노동교육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748회에 걸쳐 6만 9000명 정도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직업훈련교사 및 근로자 평생능력개발 훈련과 관련해서 먼저 직업훈련교원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 약 600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한 재직근로자 교육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3만 6000명이 저희 대학에서 교육을 이수한 바가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저희 대학의 코리아 테크 기술교육모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론과 실습을 50대 50의 비율로 가르치고 있고, 특히 교수들은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기업의 경험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에 대

해서는 학습 방법의 특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캡스톤 디자인을 하고 있고 랩실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개방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금년도의 경우에 수능 상위 13% 이내의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등록금은 국립대학과 같은 수준입니다. 또 졸업에 있어서는 직업훈련교사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특히 영어 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 되어야 되며, 국가기술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술교육모델로 그동안의 대학의 학생들의 대내외 수상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5월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한 2012년도 전국대학생 녹색안전 창작전기자동차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한 바가 있고, 지난해에는 특허청 주관의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최고상인 특허청장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 밖에 많은 수상실적이, 1년에 한 60여 개 이상의 상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취임하면서 코리아 테크 비전 2015를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전은 실천공학 교육과 평생능력 개발의 세계 최일류 대학을 구현한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코리아 테크 인재양성을 비롯한 3대 목표를 설정하고, 여기에 최고의 교육서비스 제공 등 5대 실천전략을 가지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17개 과제 중에 98개 과제가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학부·대학원 교육과 관련한 학제 현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부는 7개 학부 1개 학과에 3619명, 대학원은 3개 대학원에 486명이 재학하고 있고, 금년도 신입생들의 모집 경쟁률을 보면 수시 1차의 경우에 8.7 대 1, 2차의 경우에 34.6 대 1이었습니다. 정시 신입생의 수능성적은 상위 13.8%로서 수도권 우수대학과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취업률과 관련해서 금년도 졸업생들이 709명이 졸업해서 7월 1일 기준으로 83.2%입니다.

이러한 취업이 되기까지 랩별로 지도교수-졸업생-재학생 간 멘토링제가 운영되고 있고 또한 기업별 맞춤형 취업동아리 51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총장을 비롯한 교수들이 지방의 중견기

업에 직접 방문해서 학생들의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기업의 인사부서장들이 저희 대학에 와서 채용설명회 등을 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현장실무 경쟁력을 갖춘 공학인재 시스템과 관련해서, 학생들의 글로벌경쟁력, 현장실무능력, 학습지도능력·HRD능력·soft skill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학인증원으로부터 공학교육인증시스템으로 2010년 12월에 10개의 모든 프로그램이 인증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강좌가 운영되고 있고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학생들은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졸업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저희 대학은 다른 대학에서 실시하지 않은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즉 4년의 교육과정 중에 총 2회에 걸쳐 10개월 간 기업에 나가서 현장실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에게는 15학점의 학점이 주어지고, 대학은 3, 4학년의 경우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없는 1년 내내 대학이 운영되는 4학기제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학기부터 시작을 해서 우선 100명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39개 업체에 9월 1일부터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저희는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해서 대한민국 공학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신성장동력에 필요한 학생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학제를 개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공을 신설하고 있고 기존의 학과도 기업 수요에 맞게끔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기반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학생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공학관 및 기숙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고 또한 체육관시설도 새롭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대학의 가장 취약한 점은 글로벌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로 우리 학생들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국제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학수업을 수준별로 진행하고 있고 또한 글로벌 라운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을 실전적인 외국어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언어로만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문화행사를 통해서 글로벌적인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제교류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자매대학의 발굴과 협력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75개 대학과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희 대학에서는 독일대학, 독일의 루어대학에 있는 연구소, 살란트대학 연구소, 특히 아부다비에 있는 대학에 학생들이 기술교사로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외대학에 인턴을 파견하고 있고 또한 해외의 외국 회사에도 저희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인턴을 보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 활성화와 관련해서 2009년부터 처음으로 영어강좌를 개설해서 지난해에 115개 강좌, 금년에 약 160개에 달하는 영어강좌가 개설되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제3세계 영어권 국가의 우수한 외국인학생을 유치해서 그들을 자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글로벌인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10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초청의 국비유학생을 유치하고 있고, 학생들에 대해서 교환학생 및 단기파견을 통해서 금년도에 약 170명의 학생들이 해외를 다녀오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기술교육 분야에 있어서 기술지도 및 이전 등 활발히 교류하고 있습니다.

우선 KOICA의 자금을 받아서 베트남, 모로코, 이란, 이집트 등에 대한 직업훈련사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한 이들 국가의 교사들에 대한 교육과 교재개발 능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입은행 EDCF자금을 가지고 컨설팅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대학의 산하기관인 노동교육원 등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현재 약 424회에 걸쳐서 약 3만 7000여 명이 교육을 이수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직원들의 직무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현장체험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강사들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문에 대한 노동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무원, 교원, 공기업 및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노동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의 접근성이 취약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 온라인교육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직업훈련교사 및 근로자 평생능력개발과 관련하여 금년 7월에 직업훈련교원에 대해서는 2800명 목표하에 716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여름방학 때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재직교원에 대한 신기술 교육과 관련해서는 876명 계획에 228명이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이 프로그램도 금년 여름방학 때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신성장동력과 관련한 기술인력의 교육과 관련해서는 1800명 계획에 현재 493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성화고 교원에 대한 현장직무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특히 특성화고 교원의 경우에 산업체 현장근무의 경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현장직무 능력을 키워 주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주·1개월·3개월·6개월 과정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내년도에는 이 과정을 대폭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직업훈련의 첨단매체를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닝 콘텐츠를 개발하고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이한 유러닝 매체를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VT라고 하는 가상현실교육 콘텐츠를 개발해서 각급 교육기관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 자체적으로는 풍력발전시스템 등 3종을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고, 다른 기관에 대해서는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VT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의 교육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2만 9000명 목표에 7월 현재 1만 7000명이 교육받고 있습니다.

17쪽, 마지막 기타 성과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

리겠습니다.

저희 대학은 실천공학 교육의 특성화 대학으로서 지난해 중앙일보 대학평가 결과 교육중심대학으로 3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한 바 있으며, 2012년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교육역량강화사업으로 약 18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향후 5년간 약 200억 원의 예산지원을 받게 되었으며, 지난 7월 달에는 교과부로부터 과학-기술 융합전문가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향후 5년간 총 80억 원의 예산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식경제부로부터 MOT사업에 선정돼서 MOT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학생들이 방학 때마다 몽골, 필리핀, 금년 여름에는 캄보디아로 하계 기술봉사를 다녀왔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아주 자세한 보고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노사발전재단 문형남 사무총장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문형남**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신계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문형남입니다.

오늘 우리 재단의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단은 노사 자율적으로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자 노사정 합의를 거쳐서 2007년 4월 5일 설립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저희 재단 운영과 관련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지난해 구 노사발전재단에 국제노동협력원과 노사공동전직지원센터가 통합되었습니다.

우리 재단은 그동안 설립목적에 따라서 노사의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기업유지와 고용안정을 위해 노사가 참여하여 일터를 혁신하고 일터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도록 임금직무, 노사관계, 노무관리, 생산관리에 관한 컨설팅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내외에서 노사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 차별 없는 일터 지원사업을 6개 지역에서 수행 중이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 등을 통한 일자리창출지원사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직장의 시대를 넘어 평생직업시대에 실업의 두려움 없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재단은 국고지원사업과 위탁사업 등을 성실히 수행해서 노사관계의 안정과 발전 그리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재단이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과 좋은 일터 만들기의 핵심추진체가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재단의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2006년 11월 30일, 고용노동부, 노사정위원회, 한국노총, 한국경총이 재단설립에 합의해서 2007년 4월 5일 날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작년 3월 21일 날 구 노사발전재단과 국제노동협력원, 노사공동전직지원센터가 통합돼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직을 말씀드리면, 저희 기구는 사무총장하에 3센터 4직할팀이 운영되고 있고, 정원은 156명에 현재 149명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 예산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313억 원입니다. 보조금사업이 145억, 위탁사업이 137억입니다.

참고로 임원명단을 참고해 주시면, 이사장이 3명이고 노동계 대표 4명, 사용자 대표 4명 그리고 공익 대표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교육 및 국제교류협력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25억의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노사상생협력교육사업입니다. 금년도 약 2400명을 교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갈등조정교육입니다. 하반기부터 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5개국의 노사정 지도자를 초청하거나 교류하는 국제노동교류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외투·해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사업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직지원사업입니다.

기업에서 퇴직하거나 퇴직이 예정된 인력에 대해서 재취업 및 창업에 대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해서 신속하게 이직·전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전국 14개 지역에 전직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센터에서 컨설팅 지원 또 교육프로그램 지원, 각종 정보를 제공해서 금년도에 1만 6000명에 대해서 서비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2억 2000만 원의 보조사업입니다.

최근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중장년 구직자를 타깃으로 이들의 신속한 재취업·창업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2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취약 근로자 고용차별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20억의 보조사업입니다.

비정규직,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상 불합리한 차별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앞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전국 6개 지역에 '차별 없는 일터 지원단'을 운영하면서 고용상 차별 해소를 위한 예방교육, 상담, 홍보, 또 각종 교육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교육 목표는 1만 6200명이고, 상담 인원 18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터혁신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21억, 그다음에 고용보험기금 11억의 위탁사업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노사 공동으로 참여해서 성과 높은 일터를 구축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일터혁신 컨설팅사업하고 일터혁신 교육사업 그리고 중소기업의 CEO를 대상으로 하는 혁신코칭 지원사업, 또 연봉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능력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임금직무체계개선 컨설팅비용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고용구조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에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서 정규직으로 유도하는 사업으로 24억의 위탁사업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정규직 전환제도를 설계하고 평가 및 보상제도를 설계하는 등 컨설팅을 통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정규직으로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28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용창출 지원사업은 두 가지 사업입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하고 시간제 일자리 창출 사업인데, 각 사업을 통해서 각각 150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30억의 위탁 사업입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교대제 운영, 실근로 시간 단축, 교육훈련을 통한 신규인력 창출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간제 일자리 창출사업은 직무 개발·분할 그리고 일·가정 양립 등의 컨설팅을 통해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7억의 위탁사업입니다.

여성 고용률을 높이고 사업장의 간접적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AA(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저희가 옆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AA 대상 기업의 남녀 근로자 현황이라든지 앞으로 여성 고용을 하는 시행계획서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분석하고 심사해서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벤치마킹 사례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근로시간 줄이기센터 운영입니다.

5억의 위탁사업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금년도에는 7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줄이기에 대한 컨설팅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44억의 위탁사업입니다.

노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겁니다. 사업장 단위로는 4000만 원 이내에서, 단체 사업장은 6000만 원 이내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137개소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노사관계 개혁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2008년부터 지역노사민정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연구, 조사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이라든지 근로자의 날 포상 지원사업입니다.

2억 6000만 원의 위탁사업입니다.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데에 대한 사무용역을 맡아서 저희가 사업을 수행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김윤배 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위원** 위원장님, 서류로 대체하시지요?

○**위원장 신계륜** 그래도 인사말은 하라고 그러십시오. 오시라고 해 놓고 결례를……

○**홍영표 위원** 그러니까 인사하시고 5분 안에 끝내 주십시오.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사장 김윤배** 예, 알겠습니다.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이사장 김윤배입니다.

존경하는 신계륜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은 1986년 재단법인 형태의 민간단체로 설립되어 지난 26년간 승강기에 대한 법정안전검사 그리고 승강기 안전에 관한 홍보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9년에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지금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원은 개성공단 승강기 및 기계기구 안전검사, 그리고 잠실 롯데월드 550m 초고층 승강기 감리를 수행하여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 역량 및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안전전문기관으로서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기술원의 발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현황 보고는 위원장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기관의 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기식 기술안전이사입니다.

(임원 인사)

다른 임원으로는 기획관리이사가 있습니다만 일신상의 이유로 금일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 월요일 일신상의 사유를 들어 사직원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을 바탕으로 업무현황을 간략히 말씀 올릴까요?

**○위원장 신계륜** 그냥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자료가 특별히 설명을 필요로 한다기 보다는 위원님들이 아마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 질의 시간을 통해서 업무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사장 김윤배**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자, 이상으로 오늘 오전 회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했다가……

**○김성태 위원** 자료 요청……

**○위원장 신계륜** 자료 요청 있습니까? 예, 하십시오.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노사발전재단 지금 현재 전체 전 직원들, 행사부터 공채면 공개채용, 특별채용이면 특별채용 이렇게 입사 채용별로 다 분류를 하고, 인사기록 카드를 본 위원에게 전부 다 제출해 주시고, 특히 주요 사업별로 지난 3년 동안의 사업별 결산 실적, 회계감사 수감 실적, 이런 지난 3년 동안의 전체 자료를 본 위원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후 본 위원 질의 때까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또 다른 자료 요청……

**○이완영 위원**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예.

**○이완영 위원** 한기대, 직업훈련교원 기술개발 연수사업이 있는데요, 최근 치로 한 2, 3년 실적 하고, 거기에 교육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지원을 하는 게 있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계륜** 그러면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은 최대한 오후 시간대까지 마련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한 후에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계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국회법 제60조제2항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일단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나 위원** 위원장님, 질의 시작하시기 전에 아주 짧게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예, 그러세요.

**○장하나 위원** 민주통합당 장하나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은 노동부장관께서 안 계시지만 지금 여기 환노위 업무보고가 이루어지는 순간에도 사측에 의한, 그리고 용역강패가 투입된 노조 탄압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저는 위원장님께 지금 이 순간에 침탈과 폭력, 탄압이 벌어지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경위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즉각 조사해서 환노위 위원단에 오늘 중으로 경위와 사태를 파악한 내용을 보고하도록 위원장님이 지시를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고자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그 세 사업장은, 첫째는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업체 SJM이라는 업체입니다. 여기는 오늘 새벽 4시에 용역강패 200여 명이 들어와서 지금 조합원 서른세 분이 다치고, 그중에 열 분은 중상을 입으셨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상 상태가 심각한 이런 사진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관행적으로 이 현장에 오후 5시에 경찰도 출동하기는 했지만 늘 그렇듯이 팔짱을 끼고 수수방관한 점, 그리고 향후 경찰에 고발하더라도 보통 검찰이 이런 문제를 쌍방의 문제로 치부하고 기소를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데 그런 우려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사업장은 만도라는 사업체의 평택, 익산, 원주 중 평택, 원주 두 공장입니다. 지금 여기는 침탈당하지는 않았고요, 마지막 들은 이야기는 각각의 공장에 한 600여 명의 용역업체 깡패들이 투입됐다 이렇게 보도가 났고, 침탈 위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사업장에 대한 지금까지의 내용, 그러니까 아까 오늘 새벽에 침탈당했다는 SJM이라는 회사는 '2공장의 물량을 외주화하겠다는 사측의 입장이 임단협 사항 무시다' 이걸로 부서별 순환과업, 이런 부분과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상치 못한 이런 용역 투입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위를 갈등 내용과 또 오늘의 사태를 즉각적으로 노동부가 보고해서 오늘 안으로 알려 주시고, 또 덧붙여서 이 세 사업체에 대한 향후 대책까지 모색해서 그 점은 월요일 업무보고 때 들어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요청드리는데 바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미 노동부에 3개 사업장에 대한 진상 파악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장하나 위원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위원회 이름으로 현재 진행된 상황에 대한 파악과 대책에 대해서 노동부가 빠른 시간 안에 전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하나 위원 그리고 제가 경황이 없어서 한마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놓쳤는데요, 이런 노사분규, 노사 간의 갈등이 있는 사업장에 용역깡패, 용역업체가 투입되는 정말 비상식적이고 야만적인 관행이 너무 만연해 있는데, 환경노동위원회만의 어떤 고유한 분야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게 노사 간의 문제가 있는 현장에서 반복되는 문제기 때문에 저는 19대 환노위에 계시는 많은 위원님께서 이 문제도 좀 무게감 있게 다뤄 주셨으면 하는 요청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예,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잠깐 들은 얘기로는 회사 측에서는 용역깡패가 아니고 관리직 사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상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냉철하게 보시고 사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민주통합당 부천 원미갑 출신의 김경협입니다.

오전 내내 업무현황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정부 부처 산하기관들의 공통적인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특히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들은 더욱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노동부 업무현황 보고하고 현안질의 하는 자리에서 고용노동부장관님의 답변 태도를 보면서 이런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노사 간의 관계는 물론이고 직원들 내지는 산하기관들과 어떻게 소통을 할까 참 대단히 걱정스러웠습니다.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소통을 전혀 할 줄 모르는, 그리고 남에게는 특히 노동조합 근로자들에게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자신은 법과 원칙을 무시해도 된다는 투의 이런 답변의 모습,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답변하면서 이런 답변에 대해서 아주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 대단히 심각한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자리 고용정책 대단히 중요하고, 쌍용 해고자 문제, 삼성 백혈병, 비정규직 해결, 중대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보다는 사용자 편향적에다가 오로지 하는 일이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의 야당 가입 또는 야당 지지를 막는 데 아주 앞장서고 있는, 정치인보다 더 정치적인 장관의 모습을 보면서 대단히 걱정스러웠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하기관은 중심을 제대로 잡고 고유의 목적사업들을 제대로 성실히 수행해 나가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일자리 고용정책, 대단히 중요합니다. 개인에게는 생존의 문제이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기도 하고 가장 효율적인 복지다, 그러면서도 역시 내수 활성화, 내수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00만 실업자를 해결하는 문제, 900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이외에도 여기에 지금 파산 위기에 직면해 있는 600만 자영업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역시 일자리 고용정책은 대단히 중요한 해결 방식임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도 우리 일자리 고용정책은 국가의 가장 최우선 과제로서 자원 배분이나 예산 배정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순위에 배정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 고용정책의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하고 그 산하기관이 실무 집행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 중심적인 업무가 산업인력공단의 인적자원 개발, 직업능력 개발의 업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산업 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시에 공급하는 것,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현상을 해결하는 방법 역시 바로 이 인적자원 개발, 직업능력 개발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지 지금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기술의 변화 속도나 산업구조의 변화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에 상응하는 인적자원 개발, 직업능력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그냥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공급하는 것이 문제였는데 지금은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직업능력 표준이나 자격 기준, 교육훈련 과정 및 시설 등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거의 공단의 업무 자체가 무용지물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어떤 다른 기관보다도 산업인력공단은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산업인력공단이 좀더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고요.

우리 인력공단 이사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격검정원이 지금 분리가 됐지요? 분리가 됐는데 어떻습니까, 분리된 이후에 검정 관련 사고의 빈도수나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 예산액, 분리 전과 비교해서 어떤가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 분리된 이후에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업무가 완벽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작은 사고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정상 상태로 돌아왔고요.

최근에 저희가 체크를 해 보니까 비용 면에서

는 저희 공단이 직접 했을 때보다도 더 낮은 비용이 나타났습니다. 검정 1인당 소요되는 비용은 더 낮게 나왔고요. 나머지 관리비나 아니면 검정 집행업무는 과거에 저희 공단이 했던 일들 수준으로 평가를 해서 넘겨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용 증가 요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 시점 6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효율성 측면에서 과거보다는 좀 나아지고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아무튼 예전부터 이 검정 관련된 사고, 가장 골치 아픈 문제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번 그 이후의, 자격검정원 분리 이후의 사고 빈도수나 예산액을 이전과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업무 현황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해외취업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사실 해외취업의 문제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일시적인 방안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출산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노동력 부족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출산에서 대졸까지 투입하는 비용이 아마 1인당 평균 2억 원이 넘게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투자를 해서 양성한 인력들이 해외에 취업하는 게 과연 적절한 방식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선 실업 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일시적인 방안이기는 하겠지만 이 문제가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사업을 확대해야 될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 이 정부 초창기부터 글로벌 리더 10만 양성 사업을 추진해 왔었는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세계 경제가 굉장히 안 좋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그러면 청년실업이 심각한데 그 청년들을 집에서 놀게 할 것이냐, 아니면 뭔가 배우면서 다음 기회가 주어졌을 때를 대비할 것이냐, 그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적으면 별문제가 없는데 굉장히 많은 수이고 또 온 국민들이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그 정도 돈을 들여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투자라고 봅니다.

○**김경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아주 시끄럽게 한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서 이 민간인 불법사찰의 증거를 인멸하고 은폐하는 과정에 노동부장관의 정책보좌관이 돈을 모아서, 4000만원을 모아서 증인의 입막음용으로 사용을 했다, 이게 검찰수사 결과 발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루되신 분들이 보니까 산업안전공단의 비상임이사, 교육원 외래교수, 그다음에 교육원장, 이렇게 말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 내 감사나 조사가 별도로 있었습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 공단의 비상임 전혜선 이사하고 교육기관장인 박영수 교육원장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공단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관련규정에 의해서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사람이 이미 퇴직하고 없습니다.

○**김경협 위원** 물론 보니까 퇴직은 했는데 공단 자체 내에서 그래도 정확한 조사나 실제로 돈을 이렇게 해서 내게 된 경위, 물론 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이 내라고 했겠지만,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에 대한 정확한 조사는 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퇴직으로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진상에 대해서 명확히 좀 파악을 해 놓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한번, 혹시 감사님 오늘 나오셨습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라 오늘 나오지 못했습니다.

○**김경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 새누리당 김상민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께 질문을 드리는데요. 굉장히 큰 곳을 운영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영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목록에 들어

가는 것이 어떤 부분입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경영평가는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업무, 경영관리적인 부분 또 청렴도와 관련된 부분, 고객만족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이 모두가 다 포함이 됩니다.

○**김상민 위원** 고객만족하고 청렴도는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들어갑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고객만족도도 상당히 중요한 지표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 청렴도는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청렴도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이게 책임경영에……

○**김상민 위원** 어느 정도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책임경영 속에……

○**김상민 위원**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퍼센티지로 따진다면? 평가지수의 퍼센티지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책임경영의 일부 항목으로 들어갑시다라는 또 업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몇 %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상민 위원** 모르지요, 청렴도가 어느 정도인지? 청렴도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중요합니다.

○**김상민 위원** 매우 중요합니까, 그냥 보통입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그 기관의 존립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민 위원** 일부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경영평가의 말씀……

○**김상민 위원** 예.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경영평가에 청렴도와 관련된 부분이 일부분 포함이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민 위원** 일부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존립의 가장 근본 근간이 된다고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일부의 평가지수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경영평가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가치로 따지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라는 그렇다고 해서 이 청렴도를 전체 3분의 1이라든가 절반이라든가, 이렇게까지 비중을 높이는 어렵다고 생

각을 합니다.

○**김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로커가 있었습니다. 뇌물 혐의로 파견된 브로커였어요. 그래서 한 모 공단의 20여 명의 직원들이 이 브로커에게 공단 자료를 내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지요. 그래서 아주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2005년도부터 7년간 조직적으로 부정을 저질러 왔지요. 그런데 공단본부나 고용노동부, 감사원이 전혀 몰랐어요. 그렇지요?

제보를 받았습시다. 제보를 받고 감사원 특별 감사 시에도 미적발됐습시다, 2011년 8월입니다. 2005년 이후에 현재까지 자체 감사 4건, 본부감사 8건, 감사원 감사 13번 받는 동안에 적발 못했어.

24명이었는데 이게 직원 63명의 38%에 해당됩니다. 38%에 해당하는 직원이 아주 조직적으로 7년간 부정을 저질러 왔지요. 게다가 인사 비리라든지 임직원들에게 승진 청탁성 금품 제공 혐의 포착됐지요.

그런데 2005년 69점에서 공단의 경영평가 점수가 2011년 81점, 높아져서 한 해 평균 36억 원의 성과금 챙겼습시다. 어느 공단 얘기입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저희 공단이……

○**김상민 위원** 아니, 어느 공단 얘기입니까? 이게 어느 공단 얘기예요? 어느 공단 얘기냐고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저희 공단이 2010년에 통합이 됐습시다.

○**김상민 위원** 아니, 어느 공단 얘기냐고요? 어느 공단 얘기예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지금 우리 근로복지공단을 그 전체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상민 위원** 맞지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청렴도의 가치가 중요하지 않아요, 아직도. 지금 우리 이사장님의 멘탈 속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부입니다, 일부. 그래서 7년 동안 조직적으로 부정을 저질러 왔는데도 전혀 알지 못했어.

그래서 새로 오신 거지요, 맞지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예, 그렇습시다.

○**김상민 위원** 그렇지요? 새로 여기…… 울산지사입니다, 울산지사.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상식적으로……

이게 지난 이야기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이런 큰 사건이 있는 이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여쭙 보는데 지금 제가 질문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염려스러움이 많습시다.

제가 질문을 다시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산재보험을 다루는 근로복지공단이 얼마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지 그리고 소수 몇 명이 합을 이루면 고용·산재 보험짜야 무마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단적인 사건이예요.

이사장님, 이번에 구속된 브로커 박찬문 씨 아시는 분입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직접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김상민 위원** 직접 아는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아는 사람이예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2002년도에 파면된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았습시다.

○**김상민 위원** 그렇지요? 뇌물 받고 해임된 사람이지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예.

○**김상민 위원** 뇌물을 받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공단 안에 존재해 있는 겁니다. 잘 보세요. 울산지사로부터 확정정산대상 사업장 자료를 건네받아서 대상 사업장에 접근해서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를 축소한 걸 무마해 줬습시다. 그 대가로 21억 원을 받아 챙겼고, 그걸 공단 직원들과 나누어 가졌어. 거기에 울산 지사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예, 당시 2005년 8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근무했던 전 지사장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시다.

○**김상민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7년 동안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렀는데, 공단 본부, 고용노동부와 감사원까지 전혀 몰랐어. 맞습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예, 그렇습시다.

○**김상민 위원** 왜 몰랐다고 생각하세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이 사건의 특징을 보면 울산지역이 중공업체의 하청업체가 상당히 많습시다. 여기에서 비리가 저질러졌던 사업장들도 대부분이 중공업체 하청업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청업체의 특성상 사업이 계속되기도 하지만 일정 기간 지속되다가 또 중단됐다가 다시 시

작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소간 이 고용·산재 보험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 같고요.

○**김상민 위원** 이사장님, 저는 이사장님께 해명의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말을 들으려고 하는 건데, 조금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다소간’이라고 하셨습니까, ‘일부간’에? 지금 제가 계속 여쭙어 보는 것이, 문제를 삼는 것이 뭐냐 하면 앞으로 이사장님의 이러한 ‘감사먹통’ ‘비리공단’ ‘횡령공단’ 이 정도쯤 됐으면 그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정도의 감사시스템, 이사장님이 갖고 있는 그 정도의 멘탈을 가지고 감사로도 밝혀내지 못하고 비리로 얼룩지고 횡령된 공단을 어떻게 깨끗하게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어쨌든 지난해까지 이런 사건이 전에 발생했던 것을 모르고 지나온 것은 저희 공단이 대단히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절차적인 부분 또 내용적으로 감사시스템도 다 개선을 했습니다.

○**김상민 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볼 때는 이사장님이 멘탈 교육을 좀 받으셔야겠어요. 먼저 이사장님이 이것에 대한 어떤 인지적 상태나 위급성이나 중요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 의원실에 오셔서 교육 좀 받으시지요. 이게 일부입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게 계속 ‘일부, 어느 부분에서’…… 아니, 지금 이게 울산에 있는 한 지역의 문제만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다른 지부에 이런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7년 동안이나 모든 특별감사를 통해서도 밝혀내지 못한 것을……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울산지역,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자체 특별감사 또 고용부와 합동 특별감사 등을 실시를 해서 유사한 업무에 대해서는 그 모두를 한번 특별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김상민 위원** 이거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서 혁신 방안이 필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보내 주시고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예, 알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공단 내부에 외부 유출을 차단하

기 위한 정보보안시스템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현재 그 조치를 다 완료했습니다.

○**김상민 위원** 이것도 좀 보내 주세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예, 알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다음에 이게 이 정도로 인사채신해 가지고 될까요? 지금과 같은 연고지 배치가 아니라 전국 순환배치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지금도 하위직원들은 주로 연고지 배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상위직들은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배치를 하고 있고 또 이번 사건 때문에, 특히 울산지역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오랫동안 근무한 직원들은 전부 다른 지역으로 순환배치를 시켰습니다.

○**김상민 위원** 아니, 이게 울산지역이 문제가 아니에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한 지역에 장기간 근무한 직원들은 이번에 전부 순환배치시켰습니다.

○**김상민 위원** 이게 자꾸만 울산지역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지역에서 이 정도로 조직적으로 이 시간 동안 해 왔는데, 이게 감사의 많은 시스템을 다 비껴 나갔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역과 단위로 봐야 될 것이 아니라 공단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 잘하셔야지 앞으로 이사장님도 잘되지지 만약에 사건 또 터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사건이 다시 터지지 않도록……

○**김상민 위원** 그리고 실제로 그동안에 있었던 문제들이 있다면 임기 중에 다 숙야 내고 풀어낼 수 있는 아주 혁신적인 방안을 제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걱정돼요. 이사장님이 갖고 있는 멘탈 상태가 걱정된다는 겁니다. 경영평가에 이렇게 부정과 부패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성과급을 가져가세요? 이것 다 국민혈세 아닙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기관평가 C등급을 받았습니다.

○**김상민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동안 금년도에만 문제입니까, 이게? 그동안 경영평가에서 다 미스된 것, 성과급 문제 다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지난해에도 C등급을 받았고 금년도에도 C등급을 받았습니다.

○**김상민 위원**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김상민 위원** 이사장님,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사장님이 임기 중에 이 문제 확실하게 조치하셔야 돼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예, 확실하게 개선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 내용에 대한 혁신방안 부분들도 제가 요청했던 부분들을 저희 의원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예, 알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은수미 위원님이 질의하실 차례인데요.

박종구 이사장님이십니까? 일어서 보세요. 조시려면 나가서 계시든지 그러세요. 내가 오전부터 유심히 보고 있는데, 내 눈에 딱 보여요. 눈감지 말고 눈 뜨시고 똑바로 하세요. 오전부터 보고 있었어요. 줄리시면 나갔다 오시고 그러세요. 아셨어요?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이사장 박종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은수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은수미 위원** 민주통합당 은수미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신영철 이사장님께 삼성 백혈병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작년에도 유사한 질의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은 물론 잘 아신테이고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몇 년 전에 삼성 사업장에 근무하다가 돌아가신 황유미·이수경·황민웅 씨의 유족들 및 요양급여를 신청한 박지연·김옥이·송창우 님들께서 발암물질에 노출된 상태에서 근무하다가 급성백혈병 등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하며 산재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불승인했고요, 이에 불복해서 산재법상의 심사절차, 재심사절차를 가족들이 다 받으셨습니다. 이 역시 승인되지 않아서 원고들이 2010년 1월 10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판결에서는 두 분, 황상기 님과 이선원

님 가족, 그러니까 황상기 씨와 이선원 씨에 대해서 돌아가신 황유미 씨와 돌아가신 이수경 씨가 그 발생 경로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발병이 촉진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일단 1심 법원에서는 산재임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2011년 6월 항소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 당시 국정감사에서 항소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한 것, 감사의 결정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항소 제기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지요.

○**은수미 위원** 결국 그렇다면 2011년 6월 공단이 감사의 지휘를 받기는 했지만 항소 제기 의견으로 감사에게 항소를 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있으시지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예, 그렇습니다.

○**은수미 위원** 그렇다면 1심 재판과 달리 이런 항소를 제기하게 된 이유를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며칠 전에 삼성전자 백혈병 발병 사례 관련 논문이 저명한 국제학술지에 실렸고, 그것도 특집으로 실렸는데요. 거기에서 당시 그 저널에 논문을 발표한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 측의 거부로 공장 정보를 얻지 못해 질병과 직업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다, 따라서 이 논문은 공식적이고 독립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삼성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외부 전문가들이 작업현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라고 제안했습니다. 결국 이 논문은 삼성에 의해서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학술지에 특집으로 실린 사건이 있었고 또한 이분들 역시 외부 전문가입니다. 이것을 고려하시고 왜 항소를 하시게 됐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저희가 당초에 불승인 조치를 했던 것도 산업안전공단의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여러 가지 유해화학물질로 인해서 백혈병이 올 수도 있다고 추단을 해서 일단 1심에서는 저희가 2명에 대해서 패소를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과정에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조사 결과만을 채증을 했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를 배척

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재판부가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된 다른 화학물질도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추정을 한 사실 그리고 과학적이거나 또 의학적인 검증이 없이 주관적인 추정 내지 단순한 가능성으로 업무와 질병 간에 상당한 인과 관계를 인정 한 것이 아니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항소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은수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굳이 국제적인 학술지에 논문을 실은 학자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털어 놓은 고충을 말씀드린 이유는, 삼성에 의해서 백혈병 관련 역학조사가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이 지금 국제적으로도 알려지게 된 겁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삼성이, 삼성이라는 재벌기업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한 사실 많은 부분 추단할 수밖에 없으며 1심 재판부도 또한 그 추단에 근거한 거고, 특히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같은 작업장에서 일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질병이 발병을 한 것이지요.

도저히 정보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 1심 재판부처럼 충분히 추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로복지공단이 고려를 했어야 되고,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여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적보험과 다른 공적보험, 적어도 노동자들한테는, 특히 이런 산재를 당한 노동자들한테는 최후의 안전망입니다. 그 안전망을, 국민 세금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기관조차도 삼성 백혈병 노동자들의 목소리, 그 가족들의 목소리를 들어 주지 않는다면 그리고 국제학술지에서조차도 이런 사안들이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저희 공단이나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판단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은수미 위원 잠깐만요.

신영철 이사장님, 죄송합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객

관적이고 공정한이라 함은 적어도 노사가 균형을 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을 때여야 합니다. 또한 노사가 균형을 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없을 때는 공적기관 혹은 정부가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방금 제가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실었던 연구자들의 고충을 말씀드렸습니다. 삼성과 그 삼성의 노동자들은 절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삼성으로부터 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정보와 모든 평가와 거의 상당수의 전문가들을 삼성이 끌어 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입증해야 되는 노동자들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저희 공단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고 있고 또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 질병의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역학조사 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수미 위원 아니요. 공적보험제도, 그러니까 공적보험이고 또한 정부 산하기관에서 저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참 우려스럽다, 적어도 아까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라는 이사장님의 말씀을 저는 단지 결과로서, 삼성이 내준 결과, 그 결과를 가지고 보는 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인지, 정부기관으로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삼성이 내준 결과를 보고 저희가 판단한 게 아니고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를 가지고 판단한 겁니다.

○은수미 위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이미, 굳이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그것이 어떤 것이었는가에 대한 논란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를 고려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1심 판결의 고려사항조차 충분히 수용하지 않고 항소심을 한 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인지, 그리고 1심 판결에서 ‘추단’이라는 표현까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소송, 사건 판사들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잠깐만……

판사들의 사안 판단……

○**위원장 신계륜** 마무리를 하세요. 시간 안에 하는 버릇 들이도록 합시다.

○**은수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저는 충분히 고려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 백혈병 사건으로 이미 56명이 돌아가셨고 100여 명 이상이 발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혈병 발병 퍼센티지가 일반 백혈병 환자에 비해서 3배에 이르고 있고 또한 그것 때문에 국제저널에서도 이것을 특집기사로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틀림없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이 입증하기가 이렇게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조사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반복적인 언급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근로복지공단뿐만 아니라 고용부 및 정부, 의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저는 좀더 고심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것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잠깐만요.

저희 환노위에서 삼성 백혈병 관련, ‘삼성’을 빼도 좋습니다. 산재 관련 소위를 꼭 만들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새누리당 위원님께도 부탁을 드리는데, 물론 저희 역시도 커다란 성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환노위에서 백혈병 소위 혹은 산재 소위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적어도 상식이 상식임을 입증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뿐만 아니라 여러 정부에 계신 분들도 제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 혹은 실현 가능한, 해결 가능한 대책이 무엇인가를 좀 머리를 맞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다음에는 이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북 고령·성주·칠곡 이완영 위원입니다.

어제 노동부 업무보고 시에 저도 모두발언을 드렸는데 짧게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과 함께 25년간 같이 근무하면서 또 오늘 뒷자리에 앉아 있듯이 같이 저도 25년간 경험하고 제가 또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과 함께 일을 한다는 게 남다른 뜻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함께 노동행정 발전에 도모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이사장님 이하 간부님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공무원을 할 때는 제가 갖고 있는 업무에만 관심을 가졌는데 오늘 이사장님들 죽 보고를 들어 보니까 제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구나. 어찌면 내가 지적할 게 하나도 없구나’ 오히려 이런, 업무보고대로만 진행된다면 그런 생각까지도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착안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장에서는 피부적으로 와닿는 것은 적지 않은가? 저 역시 지방청장을 최근에 해 본 사람으로서 각계 공단과 노동부가 같이 힘을 썼는데도 좀 부족한 감이 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문제되는 청년실업, 또한 청소년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앞으로 차기 정부에서는 청소년에게 소질과 창의력을 기반으로 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로 공약을 낸 바 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교육부보다는 노동부의 역할이 지대하게 클 것으로 내년부터 보여집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고학력으로 인한 미스매치 또 청년취업, 교육 낭비 이런 것들은 정말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데 청소년 업무를 제가 보고하신 것을 좀 보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고용정보원에는 직업에 대해 학생들 교육, 진로지도, 적성검사, 상담 프로그램, 진로직업박람회…… 진로직업박람회 제가 아는데 이사장님, 이것 1년에 한 번 하시는 것이지요?

○**한국고용정보원장 정철균**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저는 이렇게 진로직업박람회를 광역시·도별로는 개최되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다 한번 가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그렇게 확대할 생각 좀 해 주십시오.

○**한국고용정보원장 정철균**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잡월드도 생겼지 않습니까? 잡월드도 우리 청소년에게 엄청나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큰 예산을 들였는데, 잡월드 운영현황 계획도 나중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고졸 취업 확대, 특성화 고교 교사에 대한 교  
사능력 향상을 위해서 한기대의 역할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인력공단의 경우에 보면 숙련 기술인, 장인 역  
할 확대, 장인 작품 박람회…… 장인 작품 박람  
회도 1년에 한 번에 그치지 않습니까? 코엑스에  
서 한 번 하시는 것 맞지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이런 것도 저는 전국 광역시·도  
별로 한번 넓혀 준다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 위원님 말씀  
대로 같이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장인, 숙  
련 기술인들이 우리 청소년에 대한 교육…… 어  
쩌면 우리가 TV 한 번씩 보면, 중·고교 학생  
또는 초등학생이 기능자격증을 여러 개 땀다고  
TV에 한 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건  
데 일과성에 그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인력공단  
에서 좀 확대해 줬으면 좋지 않느냐?

사회적기업진흥원도 청년 사회적기업가 창업  
지원 이런 게 다양하게……

청년, 청소년에 대한 것을 죽 제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한번 정리할 때가  
됐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 국장님 나오셨지요?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관 이태희** 예, 나와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청소년하고 청년 문제에 대해서  
각 산하기관 그리고 노동부 포함해서 어떻게 집  
행되는지 다양하게 되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 보  
주십시오. 정리를 하면서 뭔가 그러면 시너지 있  
게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가 발휘하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 주시겠어요?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관 이태희** 예, 알겠습  
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또 들어 보니까 인생이모작, 퇴직인  
력 예정자, 베이비부머…… 노사발전재단의 7페  
이지에 나옵니다. 폴리텍대학에도 베이비부머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고령화 사회에서 정말 이모작  
을 위해서 재훈련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도 한  
번, 담당 국장님 갔습니까?

신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것도 노동부하고 하

는 것을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는지 같이 검토를 해 봅시다.

○**고용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신기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세 번째로 중소기업 재직 근로  
자, 본부에 제가 있을 때 매우 지난한 과제다, 대  
기업이 다 돈 타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참 오랫동안  
과제가 나오는데 한기대에도 나오고 인력공  
단 나오고 폴리텍대학에 죽 나옵니다.

담당 국장님이 박 국장님이세요?

어떻습니까?

앞으로 나오세요.

다양하게 추진하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관 박성희** 예.

○**이완영 위원** 어떻게 한 번 더 기관별로 하는  
것은, 다양하게 하는 것을 제가 줄이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같이 고민해서 정리를 해 봐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관 박성희** 예, 알겠습  
니다.

○**이완영 위원** 노사관계 교육이 매우 중요한데  
요. 특히 지금부터 새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분  
규 예상이 많아지는데 노동교육원이 한기대에 통  
합되면서 상당히 노사관계 교육이 줄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업무보고에 보면 한기  
대하고 노사발전재단에 분산돼서 추진을 하고 있  
는 것 같은데요.

답변 어느 분이 하셨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  
다.

담당 국장님은 없을 테고……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문형남** 복지재단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복지재단에서 말씀하시겠습니까?

교육원에서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공기업 민  
간기업 전부 할 것 없이 많이 됐는데, 그때 노동  
교육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줄었다고 보십  
니까?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문형남** 노동교육원이  
한기대의 산하기관이 되면서 민간 부문에 관한  
노사관계 교육이 그쪽에서는 없어졌어요. 그것을  
노사발전재단이 받아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작년도보다는 금년도에 좀더 증액을 시  
켜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조금 더 되도록 위원

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완영 위원 저는 자료를 하나 부탁드립니다, 노동교육원에서 추진했던 노사관계 교육의 실적, 예산하고 이번에 노동교육원에서 하지 않고 발전재단이나 한기대에서 분산돼 가지고 교육하는 것 실적을 한번 자료로 내 봐 주시고요.

저는 예산과 이것 굉장히 늘려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불법체류 근로자 문제는 아까 인력공단에서 업무보고 잠깐 들어가 있지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 예.

○이완영 위원 제가 최근에 현장에서 들은 얘기는 불법체류 근로자들이 집단적 행동을 하면서 심지어 우리 자국 근로자도 배척하면서, 이쪽은 건설 쪽입니다. 자기네들끼리 정보를 해서 많이, 그것도 합법이 아닌 불법 근로자들만 많이 하고 있다는데…… 자발적 귀국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계신다는데, 물론 인력공단 힘으로는 안 되지요, 법무부도 있는데.

현황 파악은 좀 하고 있습니까, 지금 불법체류자에 대해서 얼마나 있는지?

(신계륜 위원장, 김성태 간사와 사회교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 금년에 귀국해야 될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을 지금 특별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불법 취업자 수는 제가 숫자를 바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이것도 사실은 인력공단보다는……

노동부 담당 국장님, 사실은 법대로 강제 귀국 시켜야 되잖아요?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관 이태희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법무부하고 잘 협조가 안 됩니까?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관 이태희 잘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런데도 왜 이렇게 많습니까, 불법체류자가?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관 이태희 위원님 질문 주신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완영 위원 아니, 현황은 제가 나중에 받으면 되고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느냐고요.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관 이태희 17만 5000

명 정도……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남게 두고 있느냐고요.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관 이태희 방금 공단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취업기간 만료자가 작년부터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마 그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완영 위원 잘 알겠고요.

제가 이런 현장 사례를 말씀드렸으니까 현장 파악도 좀더 하시고 법무부하고 귀국조치 시킬 계획을 협의해서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관 이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인력공단이사장님, 국제기능올림픽……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1분만 더 드리세요.

○이완영 위원 우리가 기능인 우대 정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청장 할 때 명장, 장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국제기능올림픽 수상자까지도 해당 분야에 근무 안 하고 서비스 업종으로 빠진다’ 지금 국제기능올림픽 수상자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경력을 관리하십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 금년부터 거의 대부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파악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몇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 초창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금년부터 시작입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 아마 곧 완료할 수 있게끔 하고 있을 겁니다.

○이완영 위원 언제쯤 완료합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 그전에는 실태 파악이 안 됐었는데 금년 들어서 선수들 중심으로 협회도 만들었고요. 저희들이 그 협회를 통해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완영 위원 제가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분들이 진짜 제대로 제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무엇보다 절실할 텐데요. 한번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기대에 ‘실천공학기술자’라고 정관

에 돼 있어요. 제가 아무리 직업사전을 봐도 실  
천공학기술자를 어디서 이렇게 만들어냈는지 모  
르겠는데요. 원래 기능은 직업훈련교사 양성을  
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기대를 만들었는데 이제 좀 많이 바뀌었지만,  
이것 용어 설명 좀 해 보시지요. 설명은 거기 되  
어 있는데 도대체 개념 자체가 그냥 만들어냈다  
는 느낌을 많이 줘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전운기** 저희 대학에  
서 처음으로 고안한 용어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학회가 만들어져서 실천공학기술학회라는 게 있  
고요. 기본적인 개념은 일반 공학도와 같은 전문  
성을 지닌 엔지니어에게 저희가 교사로서의  
HRD 과목, 교직 과목을 이수하게 하지 않습니  
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중소기업에 가면 우리 졸업  
생들이 산업현장에서 엔지니어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그 회사에 새로운 공정이 들어왔다 그러  
면 누군가가 교육을 진행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  
까? 그러면 교육계획을 짜고, 교육플랜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진행과 평가까지 하는 그런  
다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엔지니어들을 실천공학  
기술자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졸업생의  
약 80%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하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하나 위원** 민주통합당 장하나 위원입니다.

저는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님께 질문을 드리  
겠습니다.

2010년부터 시행된 제도인데요,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제도를 도입해서  
운영 중이신데 알고 계십니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성규** 예.

○**장하나 위원** 이 내용은 지금 장애인 고용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공공기관, 자치단체 그리  
고 기타 민간사업장에도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면  
1명을 고용했을 때 2명으로 체크를 하는 이런 제

도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중증장  
애인에 해당하는 것은 장애인고용촉진법에만 규  
정이 돼 있고 그게 1급·2급 그리고 3급 장애인  
중 언어나 손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중증장애인  
으로 간주를 하고 더블카운트제도에 해당하도록  
한다는 것인데요.

진짜 문제는 우리가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활  
동보조인하고 또 근무시간에는 근로보조인이 도  
와줘야만이 업무가 가능한 이런 최중증장애인을  
생각하는데 현재 1, 2급과 3급 중 언어·손 장애  
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별로 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최중증장애인들이 취업을 하는  
데 진입장벽이 더 높아지고 배제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1, 2, 3급 장애인 중에서도 활동보조인  
없이 근무하실 수 있고 상대적으로 장애 정도가  
덜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회사에서  
고용을 하면 2명으로 쳐 주는 바람에 최중증장애  
인은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더군다나 완전히 기  
회를 역으로 박탈을 당한 거지요. 그러니까 너무  
나 제도의 취지에 역기능을 하는 제도인 것 같습  
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라든가 아니  
면 시정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런 내용 좀 듣고  
싶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성규** 더블카운트  
가 우리나라와 일부 일본 같은 데서 실시를 하는  
것인데요. 워낙 중증장애인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최중증 그분들은  
정말 힘들고요. 그전에 이미 좀 중한 분들, 지금  
현재 우리 고용노동 영역에서 중증장애인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그런 1, 2급 외 3급 일부 이런 분들마  
저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더블카운트가 생겼습니  
다. 그런데 아직 이분들도 진입장벽이 높은 상태  
이고요.

다만 앞으로 장애인고용정책은 중증 쪽으로 포  
커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취업성공패키지라든  
가 또는 지원고용제도라든가 근로지원인제도를  
확대해서 앞으로 그분들이 더 일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데는 저도 생각을 같이하고 있  
습니다.

○**장하나 위원**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취업패키  
지나 고용 지원하는 다른 제도들도 도입하신다  
그랬는데 저는 일단 이 장애인 더블카운트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드시피 중증장애인 기준이 다른 장애인 복지법이나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고 장애인고용 촉진법에서 더블카운트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중증장애인을 규정하셨는데 1급·2급하고 아까 말씀드린 3급 중 언어나 손에 장애 있으신 분 이렇게 돼 있던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고려해 보실 게 아니라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진입장벽이 1, 2급도 높으시다고 했지만 1, 2급 장애인 판정은 보건복지부 소관인 것 아시지요? 그래서 전문 분야가 아니시겠는데,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실상 이 법의 취지에 중증 장애인이라고 했던 것과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취지, 아까 일본 예도 얘기했지만 일본도 고도장애 얘기할 때는…… 활동보조인 인정제도가 보건복지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인정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장애인은 장애판정 등급과 상관없이 활동보조인 지원시간을 주 몇 시간, 몇 시간 이렇게 해 놓은 것이 1, 2, 3급이 있던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1급·2급·3급…… 1급은 지적장애인 위주이고 한데, 하여튼 오히려 활동보조인 인정제도에 의해서 이 중증장애를 하는 게 아까 다른 나라의, 일본 예를 들었듯이 그 취지에 부합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의 법 개정이 많이 시급하고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노동부에도 이런 법 개정에 대해서 의견도 개진해 주시고 하셨으면 하는 게 이 좋은 법의 취지를 살리는 길이라고 확고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 2급 진입장벽이 높다고 해서, 아시겠지만 이 제도 때문에 최중증장애인의 기회를 박탈하는 게 돼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한두 분 고용해서 직업은 면죄부만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시급하게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성규 알겠습니다. 직업영역에서 중증도 문제를 의학적인 관점이 아니고 근로능력 측면에 맞춰서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와 덧붙여서 같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도 역시 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님께 드려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잘 아실 텐데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소득에 따라서 수급비를 삭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이 장애인일자리라고 배려해서 나와 있는데 오히려 일자리를 기피합니다, 기존에 받던 수급비가 깎이는 경우 손해가 되기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 하나 하고요.

또 지금 장애인일자리라든가, 장애인들이 최저임금 적용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만든 일자리에 불구하고 월 보수가 20만 원, 보호사업장은 10만 원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일자리를 늘렸다는 생색만 낼 뿐이고 사실 비장애인들과 비교할 수도 없는 월 10만 원, 20만 원의 보수라는 게 얼마나 장애인에게 모욕감과 차별, 그 보수 자체가 엄청난 차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장애인일자리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하고 어떤 기준을 강화하는 것들이 고용공단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나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러 유관기관 공공단체에서 하고 있는 이런 장애인일자리사업들이 모니터링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계신지 일단 여쭙 보고 싶어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성규 지금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일자리 만드는 부분은 장애인 시설이나 보호작업장 이런 쪽에서 많이 하는데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오히려 그런 분들의 많은 부분을 일반고용 쪽으로 유도하고 싶지만 아직 부처 간에 조금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조금 더 간추려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하나 위원 일단 부처 간 이견은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애인고용공단의 입장은 철저히 장애인의 고용환경을 낮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성규 그렇습니다.

○장하나 위원 그리고 지금 장애인이 최저임금 법상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공단 이사장님으로서의 의견을 짧게 듣고 싶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성규 직업능력이 현저하게 낮아서, 특히 지적장애…… 가슴 아픈

일입니다마는 그 부분을 일반 기업에 똑같은 임금을 주라고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기초복지 차원에서 세금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그러면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장애인일자리를 만드는 것 자체가 작업능률이라든가 시장의 논리라든가 경제성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자 그리고 고용의무를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경우는 최저임금도 지금 적용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현저히 능률이 떨어지는 사람이 일반 민간기업에서만 못 받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만든 장애인일자리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최저임금의 칠팔십 %, 보호작업장은 삼사십 %만 받고 있던 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1분 더 드리세요.

○**장하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극히 일부의 경우가 아니라 이미 이런 잘못이 만연해 있다, 이게 제가 지적하거나 고민을 같이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이분들이 받아야 되는 임금은 ‘일의 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받아라’ 하기보다는 이분들은 생활하는 데 솔직히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생활임금을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권, 그러니까 이분들이 일하시는 것을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을 하고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다른 기관은 차치하더라도 장애인고용공단의 입장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사장님 이하 또 많은 공단 분들께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게 언제 자료인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신 자료인데, 올 7월 같은데……

○**위원장대리 김성태** 장하나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장하나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여기고 있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들 목록들을 노동부에서 발표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국회가 저조율로서 6위입니다. 그리고 18위가 대법원, 25위가 헌법재판소, 이것은 공무원 고용률에 따른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가기관에서 고용하고 있는 공무원 외에 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25위가 검찰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사법기관들이 이런 저조율의 상위에 있다, 특히 국회가 6위라는 것은 저도 부끄럽고 반성할 부분이고 국회 안에서 저도 의견 개진을 해서 개선할 게 있으면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나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문제도 공단에서 많이 의견 개진을 강력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성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존경하는 장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지역구의 이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종훈 위원** 저는 오늘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기관이 많아서 짧은 시간 내에 질문하는 게 무리인 것 같고요. 국정감사에서 하겠습니다. 대신 국정감사 전에 제가 모든 기관에 부탁드리고 싶은 자료 협조, 그런데 자료 협조라기보다는 사실상 보고서 같은 것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정치 신인인데 저는 국정감사가 지적사항을 찾고 한쪽에서 숨기려 하고 이런 술래잡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국정감사가 제도개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기관과 국회가 서로 협력하고 논의하는 장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좀 시대에 안 맞는 사업들도 정리를 하고 또 새로운 사업에 예산 배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여러 기관에 계신 분들이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문제도 잘 알 뿐만 아니라 답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기관 자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 또 정책이나 제도·법이 꼭 바뀌어야 되는 부분, 추가 예산 배정이 필요한 부분 이렇게 나누어서 보고서를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쓸 겁니다.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맞춰보고

서로 보완을 했으면 싶고요.

오늘 그 보고서에 담겨질 내용에 대해서 여섯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려운 상황에 놓인 근로자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보호하고 어떻게 하면 재취업을 더 잘 시킬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하고 계신 행정서비스보다 뭐가 더 나아져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컨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지금 택배 기사분들하고 퀵서비스 기사분들이 금년 5월 1일부터 산재보험이 확대 적용되게 되어 있지만 비전속 퀵서비스 부분은 종사자가 보험료를 전부 부담해야 되는 것 때문에 아주 지극히 낮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기관에서도 고민해서 보고서를 쓰지만 여기 노동부 국장님도 나오셨는데 노동부와 같이 써 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폴리텍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다문화분들을 위해서 다솜학교가 있다고 하지만 다문화, 탈북자, 새터민 교육뿐만 아니라 이런 취약계층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정말 사회에 통합하기 위해서 우리 고용노동부 행정서비스에서 뭐가 돼야 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산업구조가 서비스화되고 고령화가 되는 트렌드에 이런 변화 추세에 맞게 지금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현장성이 있고 미래 지향적인 행정서비스가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산업구조가 변화됐는데 그게 잘 반영되고 있는지 체크하고 반영하라고 한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요. 서비스화되면서 예전과는 다른 과로사 이런 화이트칼라의 질병들, 그다음에 고령화되면서 근골격계 이런 분들의 것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더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근로복지공단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채당금을 지급하고 나서 나중에 구상권 행사하지 않습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예.

○이종훈 위원 그런데 예전에 공장들 많고 이런 때는 파산하고 난 다음에 가면 공장이라도 남아

있고 땅이라도 있는데 요새는 가면 사무실에 아무것도 없고, 사무실은 임대고 이래서 구상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 보자 이런 말씀이고요.

세 번째, 기관 간에 행정서비스가 서로 연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은 고용노동부 소속이라도. 한국고용정보원, 폴리텍, 산업인력공단, 잡월드, 이런 기관들이 한 곳에서 직업분석을 잘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폴리텍의 훈련, 그다음에 인력공단의 자격, 그다음에 진로지도, 진로교육, 이런 것들이 다 연계되어야 되는데 이들 기관 간에 어떤 장기계획하에서 이게 연계되고 협력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노력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구요.

저는 행정서비스에 민간이 많이 참여하는 게 앞으로의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과거하고 달리 이제는 공공 부문보다 민간이 더 잘합니다, 전문성이.

두 번째는 이제는 특히 대기업 중심으로 민간 기업이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자본주의 4.0 뭐 얘기 나오는데 그런 정신에서도 그렇고, 세 번째, 일방적인 시혜가 아니라 참여를 통해서, 수혜자가 직접 참여를 통해서 뭔가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라고 본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비전이 있고 전략이 있어야 될 것 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인력공단 직업방송, 지금 시청률 거의 제로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할 때 우리가 좀더 잘 만들어 보겠다 그냥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그 콘텐츠 자체를 기업이나 또는 시청자 관점에서 콘텐츠를 직접 만들게 하고 거기에 광고권을 준다면 광고를 위해서도, 우리 광고를 더 많이 보게 하기 위해서라도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지 않을까, 저는 조금은 순진한 생각,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아직도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의 공공직업교육기관, 그것도 고용보험기금이 들어가는, 피보험자한테 들어가는 것도 아닌 막대한 기금이 들어가는데 폴리텍에서도 민간이 직접 기

업 주도의 훈련을 하고 거기에 재정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더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중소기업 훈련 컨소시엄 말고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거기도 더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한 부분 같고요.

성과관리가 중요합니다. 서비스만 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관리가 엄청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폴리텍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노동시장 나가서, 일단 취업하는 것까지만 관리하고 그다음에 끝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다음에 진전이 되는지, 물론 지금 일부 추적을 하는 그런 작업도 하시겠지만 그것과 관련된 DB를 구축하고 그것에서 뭔가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피드백 받아 가지고 다시 어떻게 하면 행정서비스를 더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노력이 체계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사회적기업진흥원의 경우는 지금 680개가 사회적기업 인증받았다는데 그 이후에 앞으로 성공사례, 실패사례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진흥원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스마트 시대에 맞는 그런 서비스가 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보고를 죽 들으면서 보니까 일부 기관에서 있지만 그런 부분이 여전히 취약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지금 오늘 모두 여섯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여섯 가지 관점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체 노력으로 될 수 있는 일, 정책과 법제도가 꼭 바뀌어야 되는 것, 예산 배정이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써서 저한테 보내 주시고요, 저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 보고, 노동부도 적극 협조해서, 왜냐하면 노동부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서 그런 부분에 보다 좀, 국정감사가 끝나면 우리나라 고용노동행정 서비스가 좀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생산해내는, 발굴해내는, 그래서 그것이 올 예산에도 반영이 되고, 저희 상임위에서 법 개정하는 데도 아이디어를 충분히 많이 받고 이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존경하는 이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명숙 위원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간단히 근로복지공단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주 간단히?

어떤 일을 하는 데인가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저희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기능은 산재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산재근로자 치료를 위한 병원을 10개를 운영하고 있고, 또 취약한 계층의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다각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니까 산재보험이 핵심이고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일, 이런 것을 하시는 데지요?

이제는 복지라는 것이 시혜가 아니고 노동자들의 권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삼성 백혈병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문드리겠는데요. 백혈병 피해자나 가족을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이 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저희는 산재보험제도를 운영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각종 질병이나 사고 때문에 요양을 신청하면 거기에 대해서 승인이 되고, 승인이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 각종 급여를 지급하고 또 재활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라는 요양 승인이 되지 않으면 그러한 지원이 어렵습니다.

○한명숙 위원 요양 승인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저희 공단이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공단이 하고 있지요? 그러면 백혈병 피해자나 가족을 위해서 공단이 한 일은 없다는 얘기지요, 지금?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이제까지 삼성에서 25명이 신청이 됐는데 그중의 1명에 대해서는 요양 승인이 됐고 4건은 현재 역학조사 중이거나 아니면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불승인이 되거나 또는 반려가 됐습니다.

○한명숙 위원 제가 알기로 삼성에서는 ‘작업을 하는 동안에 국내외적으로 유해물질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 ‘백혈병을 유발

하는 벤젠은 아예 사용도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백혈병과 직업 연관성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좀 거짓말인게 밝혀졌어요.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산업안전공단 이사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에서 2009년도에 삼성 역학조사 하셨지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 예.

○**한명숙 위원** 거기서 어떻게 결론이 나왔나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 그때는 벤젠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래서 공장 노동자들에게 그런 발암성 물질이 노출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지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 예.

○**한명숙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2009년도부터 또다시 역학조사를 하셨지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 예.

○**한명숙 위원** 그때는 어떻게 나왔나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 소량의 벤젠이 검출된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량의.

○**한명숙 위원** 제가 보니까 '삼성전자 반도체 제조 사업장 정밀 작업환경평가 연구 결과로 벤젠,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비소 등이 발견되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렇지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 예.

○**한명숙 위원** 그게 맞지요? 그러면 그 이전에 발표한 것은 '삼성 백혈병이 업무 관련성 없다' 이렇게 삼성하고 똑같이 발표했었는데 그다음에는 왜 달라졌나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 그때는 개별적인 벤젠에 대한 그런 것을 조사했고요, 그 이후에 2009년부터 11년까지는 전체적인 그러한 것에 대해서 검출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부산물에 발생하는 그러한 세밀한 그런 것까지 검출해서 미량의 벤젠이 검출된 겁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검출방법이 달라서 그랬다고 볼 수 있나요? 그러면 역학조사를 하는 어떤 기술이나 방법이 점점 더 세밀해지고 엄격해지고 발전했다고 말씀해도 될까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 위원님,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들은 것으로는 이번에 부산물로 발생한 것은 원료 속에 들어 있는 것을 시험을 통해서 확인한 겁니다, 미량의.

○**한명숙 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10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 들을 수는 없고요.

어쨌든 똑같은 삼성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기법이 달라졌든 기술이 발전했든 간에 처음에는 관련 없다고 했다가 다음에는 검출됐다고 발표를 공식적으로 했어요.

이것을 보면 삼성과 공단의 말이 처음에는 같다가 이것이 거짓말로 밝혀지고,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이나 산업안전보건공단도 뭔가 근로자를 위해서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거나 산재에 대해서 근로자들의 권리를 다,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기업 쪽에 선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제인데요, 어제 이게 뭔가 하면, 삼성 백혈병과 직업병 피해자 증언대회가 있었어요. 여기 국회에서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아는데요.

그런데 이 피해자 증언에서 보면 삼성에서 10억 원 줄 테니까 언론, 사회단체와 접촉하지 마라, 이런 식의 회유를, 여러 건이 있었는데, 왜 삼성이 당당하고 아무 문제 없으면 이런 회유를 증언자들에게 하는지, 이런 문제들은 참 공개적으로 우리가 투명하게 해야 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 한 가지 더 여쭙어 보고 싶은 것은 지금 행정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 패소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다시 항소를 하셨지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예.

○**한명숙 위원** 항소를 하셨는데, 거기 삼성 보조참가인이 같이 들어가 있지요, 지금?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이런 소송을 할 때 언제나 기업이 문제가 되면 기업이 보조참가인으로 참가를 하나요? 항상 그런가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여기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재해자에 대해서도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고지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고지를 하고 본인이 참가하겠다고 신청할 경우에 법원이 판단해서 승인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다른 기업들도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한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네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예, 전에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런 사례에 대한 자료 좀 내주십시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오히려 사업주보다는 재해자가 더 많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리고 지금 삼성 보조참가인에서는 울춘에서 변호사가 나오고 있나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명숙 위원** 모르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울춘에서 변호사 6명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항소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좀 드러납니다. 이거 지난번 국감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삼성과 대책회의를 했더라는 기사가 여러 건이 났는데요, 이렇게 삼성과 대책회의를 했습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한명숙 위원** 전혀 그런 사실이 없는데 왜 이렇게 언론에 이런 것들이 막 나올까요? 그때 삼성반도체 산재소송 수행자하고, 그러니까 공단의 산재소송 수행자지요. 그리고 삼성전자반도체 사업부하고 만난 것은 사실이지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예, 만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제가……

○**한명숙 위원** 그때 만난 사람 혹시 기억하십니까, 공단의 삼성반도체 산재소송 수행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저희 공단에서는 경인지역본부의 송 모 부장이 만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오 모 차장과 변 모 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예, 만나서 한 얘기를……

○**한명숙 위원** 혹시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이 자리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이 자리에 안 나와 있습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경인지역본부에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때 만나서 한 얘기는 삼성이 1심에서 보조참가를 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가급적 보조참가

를 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의사를 전달했다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한명숙 위원** 예, 왜 그렇게 전달했나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1심에서 삼성이 보조참가를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우리 공단과 삼성이 마치 소송에서 공조를 하는 것처럼 오해를 받기 때문에 가급적 항소심에서는 삼성이 보조참가를 하지 말 것을 요청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명숙 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예, 1분 추가해 주세요.

○**한명숙 위원** 그런데 지금 언론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만 항소를 할 때도 이미 사흘 전에 항소를 해 놓고 그리고 그 유가족들과 피해자를 만나 가지고는 “모든 마음을 열어 놓고 전문가와 의견을 검토해서 사실을 다 알리고 그리고 항소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미 그 얘기를 할 때는 사흘 전에 항소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그것 사실이 아닙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예, 그 부분도……

○**한명숙 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실이 아닌 보도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면 이것에 대한……

이것이 오보지요?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일반 일간지에는 그렇게 보도가 된 걸로,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한명숙 위원** 확인하십시오.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마무리해 주십시오.

○**한명숙 위원** 지금 인권위에서도 산재보상보험법의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내용을 개정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입증책임을 국가나 기업 부담으로 전환하라고 되어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의 입장은 됩니까?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지금 그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8월까지 인권위에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제안인가 하면, 지금 삼성 공장에 일하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고3 때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법도 모르고 산재보험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사람들이 많은데……

○위원장대리 김성태 자, 마무리해 주십시오.

○한명숙 위원 예.

근로복지공단에서 이 사람들에게 노동법이나 산재보험법, 이런 것들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좀 교육시킬 의향이 있습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런 교육기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산업안전과 관련해서는 산업안전공단에서 교육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명숙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을 좀 협의해서 가지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존경하는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의 한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정애 위원 민주당의 한정애입니다.

그냥 이어서 하겠습니다.

신영철 이사장님께, 삼성 것 관련인데요.

앞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 해 주셔서 비슷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항소를 지금 하셨습니다. 이걸 단지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매그나칩반도체 공장도 해당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하셨는데 저희가 사전에 파악을 해 본 바에 따르면 복지공단이 재판부 판결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다투어 불 실익이 있다라고 항소를 진행 중이신데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건 다투어 불 실익이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실익이 뭔가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판부에서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된 그런 화학물질도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추정을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과학적이나 의학적으로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추정만으로 그 업무와 질병 간에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결론을 냈기 때문에……

○한정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원고나 재판부의 비전문성을 문제 삼으시는 거지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한정애 위원 문제를 삼으시는 건데, 적어도 재판부의 전문성을 저는 어쨌든 백번 믿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판정을 하면서 전혀 의학적인 근거나 이런 것 없이 판결을, 그 판결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이나 파장을 고려하지 않고 재판을 하시리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의 얘기를 듣고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러면 백번 양보해서 만약 재판부의 전문성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하면 그 전문성과 관련해서 월등하다고 봐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질병이 산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반증의 책임을 지시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권위에서 고용노동부에 그런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한정애 위원 노동부가 자료를 만들고 하는 데에 근로복지공단이 개입을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저희도 협의를 합니다.

○한정애 위원 그러면 제가 근로복지공단의 입장이 된가, 그걸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산재와 관련한 보상과 치료와 재활을 어쨌든 담당을 하고 계시고 외국의 여러 산재보험제도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 나가는지를 당연히 알고 계실 것이고, 그럼 지금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어떤 식의 산재보험제도를 가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건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그런데 그 부분은……

○한정애 위원 소신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복지공단의 입장이 어떤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결론은 노동부가 내시겠지만 복지공단에서 생각하는 제도는 이렇게 개선되어야 된다고 하는, 아니면 개선 안 되어야 된다고 하는 어

면 입장을 밝혀 주십사 하는 겁니다.

(김성태 간사, 신계륜 위원장과 사회교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사안을 제가 ‘우리 공단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기는 좀……

○**한정애 위원** 아니, 그런데 복지공단이 무슨 백지 상태로 그런 협의에 임하지는 않으실 것 아닙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물론 저희도……

○**한정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외국의 사례들을 봤을 때 대체적으로 이런 유해물질 사용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직업병의 인정, 직업성 암의 인정이 어떤 식으로 추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그런데 그 부분도 각 국가별로 다 다릅니다, 전반적인 추세가 동일한 건 아니구요.

○**한정애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발언을 끊고요.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발언을 다 하시고 하십시오.

○**이완영 위원** 발언을 다 하고 하셔야지.

○**한정애 위원** 아니요, 이것과 관계가 없는 거라서.

아까 저희 장하나 위원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황을 중간에 좀 파악을 해 봤습니다.

SJM 270여 명이 실질적으로 침탈을 당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실제 아마 현장은 용역이 들어와서 접수가 돼 있는 상태고요.

문제는 몇 개 확인된 사실이 버스 11대, 버스 13대 별도로 해서 만도 문막공장과 만도 평택공장으로 용역이 이동 중이라고 하는 사실이 들어오길래 그걸 확인을 했는데, 실제 지금 경찰이 확인한 사항으로 3시에 만도가 직장이 폐쇄가 되고 용역이 배치가 됐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경찰이 두 눈을 뻔히 뜨고 그냥 보고만 있었습시다. 노동부에 확인을 그 사이에 했는데 노동부는 알아보겠습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김성태 위원** 질의를 하세요.

○**한정애 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회의를 시작할 때 위원장님께서 이미 의사진행발언을 들으시고 상황을 파악하라고 한 뒤에 제가 4시 조금 전에 이걸 다시 노동부에 물었거든요. 그때 파악했습

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위원장 신계륜** 저한테 질문하면 안 될 것 같고요.

○**한정애 위원** 여기 노동부에 누가 와 계십니까?

여기 산하기관 업무보고 할 때 노동부에서 누가 와 계시지요?

누가 와 계시지요? 노동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성태 위원** 뒤에 있어요.

○**이완영 위원** 저 뒤에 많아요.

○**한정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실 때, 파악하라고 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알아보셨어요?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관 이태희** 지금 담당 국장이 파악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담당 국장이 파악을, 아까 우리도 물어봤는데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고 알아보겠습니다라고 답변 주고……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관 이태희** 지금 그 건 때문에 아마 지금 밖에 나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질의 계속하십시오.

○**한정애 위원** 인력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 예.

○**한정애 위원** 준비 많이 하고 오셨지요?

출국만기보험금이라고 아시지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 예.

○**한정애 위원** 2004년 8월부터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퇴직금의 형식으로 본인이 찾아가거나 1년 미만에 혹시 노동자가 어디 다른 데로 가거나 하게 되면 사업주가 낸 금액을 도로 가져가거나 하고 있는데, 2012년 1월 말 기준으로 찾아가지 않은 출국만기보험금이 215억이고 소멸시효가 지나서 보험회사로 귀속되는 보험금이 현재 37억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삼성화제가 주로 많이 갖고 가더구먼요. 물론 2004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삼성화제가 다 했었고 그 이후에 2006년부터는 컨소시엄 형태로 해 가지고 하는데 삼성화제 컨소시

업이에요. 지분율이 삼성이 60%, 몇 개 회사들이 나머지를 차지하는…… 찾아가지 않고 있는 이 돈 그다음에 소멸시효가 지나 가지고 보험회사로 귀속된 이 돈,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 소멸시효가 지나도 3년까지는 찾아서 지급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는 저희가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과 그다음에 고용부 그리고 보험회사가 협의해서 그 돈을 무료 의료비나, 외국인 근로자들 의료비나 아니면 귀국 지원비용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한정애 위원** 그렇게 하신 실적이 있으십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 그 부분을 아직 해결을 못 했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게 왜 아직 해결이 안 되시지요?

제가 이걸 찾아봤는데 예전에 공단 관계자가 2009년 9월 9일 날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서 2년이 지나면 통상 보험금청구권이 소멸되지만 공단 측이 해외주채권 등을 통해서 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운동을 전개하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 예, 그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래도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에 보험금을 예탁하는 방안 등도 구상하고 있다.” 결국은 2009년 9월부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때부터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2009년, 2010년, 11년, 12년……

그리고 지금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이 전용보험 가입확인서 발급하기 위해서는 꼭 삼성화재 홈페이지 통해서만 가능하더구먼요. 뭐 삼성 몰아주기 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 그게 삼성 몰아주기라기보다도요, 저희가 계약 당사자가 삼성 컨소시엄이 되다 보니까……

○**한정애 위원** 삼성컨소시엄인데 2004년 이후 죽 삼성만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 예.

○**한정애 위원** 삼성을 특별히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 아닙니다. 삼성을 특별히 사랑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해

서 삼성이 선정이 된 겁니다.

○**한정애 위원** 근로복지공단도 삼성을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고, 사랑해서 ‘아프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 우리 인력공단도 그러시는 것 같고……

됐습니다.

이것 그 결과를 좀 보고를 해 주세요.

그다음 2009년 이후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 그간에 저희가 했던 거요?

○**한정애 위원** 예, 예를 들어서 여전히 방안을 구상하고 계신 건지, 방안이 구상돼서 결과로서 뭘 하시고 계신 게 있으신 건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 최근에는 저희가 미소금융에 저 돈을 넘겨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한정애 위원** 미소금융, 얼마 전에 뉴라이트가 이십몇 억인가 해먹고 달아난 그 미소금융 말입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 물론 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이 사업을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다른 기관이 보험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도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한정애 위원** 아무튼 그 귀속되어 있고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에 대한 방안들을 내놔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 예,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또 하나, 인력공단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기술자격검정원, 아까 인사말씀에서 ‘국가자격 허브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국각기술자격 12개 종목을 한국기술자격검정원으로 재위탁하였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민간입니까, 기술자격검정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 민간 비영리법인입니다. 고용부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입니다.

○**한정애 위원** 비영리법인인데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발기인을 이렇게 보면 다섯 분이 하셨는데 전부 인력공단 출신이세요. 전부 인력공단 출신으로 되셨고, 기술자격검정원 임원으로 지금 되어 계신 분 중에 이사장은 비상임인데 노동부시고 사무총장, 노동부 그리고 2명의 본부장, 인력

관리공단 출신이시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 그 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스스로 그 법인체를 만든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리고 제가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사업계획보고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2010년에 12개 종목을 어쨌든 위탁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12개 종목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190억입니다, 2010년 기준으로. 190억이고 지출이 75억입니다, 이걸 하기 위한 지출금액이. 이게 수지차를 보면 118억이 남습니다.

다른 검정시험은 다 해 봐야 사실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국고가 들어가지요, 고용보험기금이. 이것만 좀 남습니다. 118억이 남는데 용역금액을 단가를 대충 계획을 삼으신 게 111억을 잡으셨어요. 그러면 190억으로 잡았을 때 결국 용역을 111억에 주니까 수지차가 82억이 됩니다. 결국은 수지 차 감소가 얼마가 나냐면 36억 정도가 나는데 이걸 용역을 줌으로 해서 그것도 인력공단 출신의 사람한테 다 줌으로 해서 인력공단이 얻는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 김정협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렇게 넘기고 나서 최근에 분석을 해 보니까 1인당 검정비용이 과거 저희가 직접 했던 때보다 더 저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인력공단이 원래 의도했던 것은 전체적인 자격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일인데 검정 집행 업무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일이 좀 소홀히 취급됐던 겁니다.

그래서 자격의 품질 높이는 일에 좀 역량을 집중하고 그다음에 검정 집행 업무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코스트를 다운시켜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그런 의도로 했었는데, 실제 지금 비용은 저희 인력공단 1인당 인건비보다는 지금 검정원 직원 1인이 받는 인건비가 더 낮기 때문에 실제로는 효율성 측면에서 나온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정애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용역금액을 111억으로 잡고 실제 지출된 것은 119억으로 조금 더 지출됐는데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 그 부분은 수치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이걸 제가 조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다음은 최봉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홍 위원** 오늘 여기 참석하신 노동부 산하기관이 10개인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설립 목적을 보면 근로자를 위해서, 근로자가 낸 보험료와 정부가 출자한 돈에 의해서 근로자를 위해서 쓰여지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10개 기관의 오늘 총 예산을 죽 보니 7조 3446억입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1만 1000명입니다. 1인당 자기 봉급을 빼고 연간 6억의 예산을 쓰는 셈입니다.

그렇게 볼 때 과연, 오늘 보고대로 한다면 노동자들이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지에 있는 노동자들은 노동부나 산재나 모든 기관에 대해서 완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뭔가 그 집행과정이나 그런 데서 문제가 안 있었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례로 오늘 산업안전공단에서 발표하시기로 재해율이 87년 2.66에서 현재 0.55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의 통계에 의해서 책정하는 노동부의 산재요율은 계속 올라만 갔지 내려온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대비할 때 보험료 낸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업종별로 달라짐으로 인해서? 지금 백혈병 같은 경우도 거기서는 업종이라고 봅니다. 일반 개인 가정에서 몇 년 같이 살던 사람이 밖에 나가 가지고 병에 걸렸다, 그 가정에서 같이 있던 동료들이라도 그걸 자기가 같이 살면서 그랬다 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데……

삼성, 우리나라 최대의 재벌입니다. 사회적인 책임이나 그 종사했던 근로자들에 대한 책임이나 그런 건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속에서 외부세력이 들어가 가지고 충돌질함으로 인해서 합의될 수 있는 과정도 바뀌어 나가겠지만, 거기에 합세가 되면 도저히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같은 경우에는 이 목적이 산업재해보험 시설의 설치 아닙니까? 산업안전공

단은 예방기술의 연구·개발입니다. 또 아까 보고서에서 보다시피 국제사회보장협회 의장국이 됐습니다. IT산업, 우리나라 현재 세계 최고의 위치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산업의 산재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삼성을 이해시켜 가지고 산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걸 풀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그 비근한 사례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옛날에 산재보험이 적용되기 전에 근골격계 질환 문제를 가지고, 근골격계 질환을 보유한 사람들은 나이 55세가 넘으면 하루 이틀씩 쉬어야 일을 합니다. 안 쉬면 계속 아픕니다. 그 이틀을 쉬는 동안에 같은 동료들이 치료비를 모아 가지고 ‘나오지 마라’ 하면서 그 사람들 약값을 줬습니다. 한약도 먹고 집에서 이틀 쉬면 그다음 날 또 너끈합니다.

55세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인데 지금 현재 산재보험법 근골격계 질환이 많은 애로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 당시에 근골격계 질환을 내 보려고 부산대학교 의대교수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나라 산재보험이 요양에 들어가면 완치가 되어 가지고 나와 버리면 다시 못 들어갑니다. 그게 제도상 허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골격 질환도 제가 볼 때는 역학조사를 다시 해서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백혈병 같은 이런 것도 실제 기업이 전혀 억울한 일이 안 생기도록……

지금 한번 보십시오. 50명이 죽었고, 100여 명이상이 와병 중이고, 어제도 국회 앞에 와 가지고 떠들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관심을 쏟아야 할 곳이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팽개쳐 놓고 그저 의학적인 전문적인 지식, 물론 우리나라에 있는 분들이 전문적인 지식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하다가 보면 삼성 편 들 것이고 그럴 사정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노동자 편에서 가지고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산재와 같이 관계되는 문제인데 지금 산재보험 적용하는 문제는 룰을 정해 놓고 경우에 따라서 특수와병이 되어 가지고 재판을 걸어가 요양명령이 떨어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현재 100원 주던 것이 재판

에 가 가지고 500원을 주라 이런 판결이 났을 때 근로복지공단은 그와 똑같은 해당되는 비용을 가지고 요양신청을 해서 보상을 요구하면 재판을 해 가지고 오라 합니다.

그러면 재판을 해 가지고 몇 달이 걸리고 하는데 그런 문제는 대법 판결이 나면 노동부하고 협의의 해 가지고 관계 규정을 보완하더라도 즉각 즉각 시정할 수 있는 그런 방침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노사발전재단 지금 나와 계십니까는 노사발전재단 2006년도 발족해 가지고 지금 6년차입니다. 처음에는 노무현 정부 당시에 네덜란드 모델을 채택하면서 네덜란드의 사회경제평의회 이래 가지고 노사정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공동으로 해 나가자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 사회경제평의회는 노사정이 하고 있는 이익을 내는 기관들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 정부는 그것을 못 모으고 정부출자만 해 가지고 노사사는 한 푼도 안 내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와 가지고 경영은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까 2011년도 3개를 통합해 가지고 발전재단을 만들어냈는데, 실제 오늘 주요 사업을 보니까 정부 보조가 4건이고, 위탁이 8건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노사발전재단에서 정부와 또 노총이나 경총과 협의를 해 가지고 이문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양해를 받아 가지고 흡수를 해서 거기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나가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그런 정책을 한번 건의하는데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근로복지공단, 존경하는 한정에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앞의 위원들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여러 가지 애로사항 많습니다. 자체 감사기구 있지만 유명무실했습니다. 차제에 이사장님 정례화해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감사원 감사를 제도화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 자체는 시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 건의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산재보험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화물차 노동자가—기사입니다—이 회사에 가서 작업하면 산재가 되고 중간에 쉬는 날 자기가 한 탕 뛰는 것 같으면 산재가 안 됩니다. 자동차운송사업법상 자기 차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차를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고용이 되는 형

식을 취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용자 개념을 근로기준상 다른 데와 틀리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똑같은 노동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판례 변경이 된다면 이 사람들도 노동자 대우를 받겠지만도 그런 문제도 지극히 보험 효율도 안 내려가고 그대로 한다면 그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택배 마찬가지로 겁니다. 좀 연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표 위원 민주당 인천 부평을 출신 홍영표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다가 주요 간부 인적 사항을 좀 보니까요, 제가 이전에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명박 정부 와서 낙하산인사가 정말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제가 죽 보니까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공단 주요한 노동부 산하의 공기업들을 보면 공단 자체에서 진급해서 임원이 된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을 비롯해서 한 명씩입니다. 전부 다 낙하산입니다.

이게 고용노동부 전직 간부들의 낙하산 그리고 또 여기저기서 떨어진 낙하산으로 인해서……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 여기는 어떠한 전문성도 필요가 없습니까? 그냥 아무나 와서 할 수 있습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영표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들어와서 20년, 30년 일한 분들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근무해야 됩니까? 내가 이사장, 감사 여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성을 가져야 할 이런 자리까지도 근로복지공단 출신은 1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사장님 이런 것 좀 막아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직원들 보면 미안한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산업인력공단 이사장님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백현기 이사장님도 그렇고.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직원들이 여기 입사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겠어요, 승진도

안 되는데?

제가 이것은 말하나마나한 소리라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사장님 이런 것도 잘 신경을 쓰십시오.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 삼성의 백혈병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야 위원 모든 분들이 다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지난 2년 동안 18대 국회에서부터, 당시에 삼성 백혈병 문제는 여야 할 것 없이 지적을 한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예, 그렇습니다.

○홍영표 위원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정말 백혈병으로 죽어간 사람들, 그 가족들, 지금 또 백혈병을 주장하고 있는 한 140명이 되는 사람들, 이분들의 심정을 정말 눈곱만치라도 생각을 했다면 지금까지 저는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입증책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했습니다마는 똑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독일도 입증책임이 산재보험조합에 있고, 스웨덴은 산업의학전문의한테 있고, 캐나다의 온타리오주는 업무로부터 발생했다면 반대의 증거가 없는 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세계적으로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는데요, 좀 상식적인 판단을 해 보십시오. 삼성반도체 작업장에서 일했던 사람이 그 복잡한 화학물질의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입증을 합니까? 이사장님은 입증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재판부에서 결론이 나오니까 ‘재판부의 전문성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항소를 하겠다’ 이런 짓이나 하고 말이지요.

제가 이것을 한두 번 얘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최근에 SBS ‘추적자’라는 드라마 아시지요?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논란과 의혹이 쌓이고 사건을 복잡하면 만들면 국민들은 잊을 겁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요’ 지금 근로복지공단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일하는 방식이 딱 이 대사입니다. 사람들은 나중에 다 죽고 없겠지요.

그래서 저는 물론 제도를 닦할 수 있겠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질병의 인과관계 원인에 대해서는 분명히 근로복지공단에서 책임을 지고 하겠다 이런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급 적용이 안 된다 하더라도 삼성 백혈병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나서서 적극적 역할

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수도 없이 지적했지만 이 핑계 저 핑계, 그러면서 오늘까지 온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다음에 산재보상 관련해서 평균임금 정정신청에 3년 소멸시효 규정을 최근에 내규로 도입했지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예.

○**홍영표 위원** 도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제가 매일노동뉴스에 보도가 되고 나서 확인했습니다라는 내부적으로 질의회시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아마 지사에다가 회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홍영표 위원** 그러니까 사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예, 그렇습니다.

○**홍영표 위원** 이것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에 대해서 정말 고통 받고 있는 산재 희생 노동자들 쪽에 서는가 아닌가의 저는 이게 또 하나의 사례라고 봅니다. 이것을 법도 바뀌지 않고 관례도 바뀌지 않았는데 가능하면 지금 산재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 편에 서서 뭔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이렇게 해야지 내규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기존에 이미 했던 사람, 앞으로 할 사람 이런 데서 차별도 발생하고요. 그다음 근로자 복지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신의성실의 어떤 책임도 방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원위치 시키십시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회시한 내용 자체가 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대해서 평균임금 정정을 불인정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평균임금을 정정을 할 경우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간과하고 이러한 회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 하여튼 바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용정보원에서 노동패널 하고 있지요?

○**한국고용정보원장 정철균** 예, 그렇습니다.

○**홍영표 위원** 이게 지금 한 13년 동안 한 겁니다. 정부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한 귀중한 자료인데, 고령자패널도 마찬가지로요.

이것을 원래 한국노동연구원에서 했지요?

○**한국고용정보원장 정철균** 그렇습니다.

○**홍영표 위원** 그리고 거기에 전문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아시지요?

○**한국고용정보원장 정철균** 그 당시에 있었습니까.

○**홍영표 위원** 전문가들이 다 거기서 했었고 13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한국고용정보원장 정철균** 노동패널만 13년……

○**홍영표 위원** 예?

○**한국고용정보원장 정철균** 노동패널만 그 당시 그렇게 하고, 고령자패널은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

○**홍영표 위원** 아무튼 노동패널 13년 했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왜 갑자기 한국고용정보원으로 옮겼습니까?

○**한국고용정보원장 정철균** 저희는 일단 정부로부터 수탁을 받았습니다.

○**홍영표 위원**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해라, 이렇게 해서 한 것이지요?

○**한국고용정보원장 정철균** 그 당시 아마 여러 가지 여건에 안정적 업무 수행을 위해서……

○**홍영표 위원** 안정적 업무 수행이 됩니까?

○**한국고용정보원장 정철균** 글썄, 일단 패널이 좀 안정적으로 수행되어야 되는 그때…… 아마 당시 좀 움직였었던 것 같습니다.

○**홍영표 위원** 그런데 지금 고용정보원으로 이 사업이 넘어가고 난 이후에 노동패널이나 고령자패널 데이터가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한국고용정보원장 정철균** 되고 있습니다.

○**홍영표 위원** 어디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한국고용정보원장 정철균** 작년에도 저희가 노동패널에 대해서 워크숍을 했고요. 올 9월, 10월에도 또 워크숍을 할 겁니다. 그리고 고령자패널도 저희가 이번에 지금 조사를……

○**홍영표 위원** 분명히 하고 있습니까?

○**한국고용정보원장 정철균** 하고 있습니다.

○**홍영표 위원** 제가 듣기로는 공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거 책임지셔야 돼요.

○**한국고용정보원장 정철균** 예, 책임지겠습니다. 다만 소규모로 저희가 해서 그러는데……

○**홍영표 위원** 왜 그것을 소규모로 합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하면서? 소규모로 몇 명이 했어요?

○**한국고용정보원장 정철균** 제가 몇 명이 참여

했는지 정확히 모르는데요, 다만……

○**홍영표 위원**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한국고용정보원장 정철균** 많은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홍영표 위원** 저한테 그 참석자하고 정확하게 그 패널 진행한 것을 보고해 주십시오.

○**한국고용정보원장 정철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 그리고 패널 데이터라는 게 매년 추적해서 실시하지 않습니까?

○**한국고용정보원장 정철균** 예.

○**홍영표 위원** 그래서 이런 어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내적 일관성이 중요한데, 전문성도 그렇고요. 저는 이것을 갑자기 노동연구원에서 고용정보원으로 옮기면서 전문성의 부족이나 인력의 부족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 문제없습니까?

○**한국고용정보원장 정철균** 저희 원에서도 그동안에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라든지 청년패널 조사를 과거부터 해 왔습니다, 한 칠팔 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미……

○**홍영표 위원** 그것은 노동연구원에서 해 왔던 규모나 이런 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한국고용정보원장 정철균** 패널조사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일단 비슷하고요. 그래서 다만 저희가……

○**홍영표 위원** 아니, 큰 틀에서 비슷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규모나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 보면 다른데……

○**한국고용정보원장 정철균** 패널의……

○**홍영표 위원** 아니, 그러면 문제가 없다 이거지요?

○**한국고용정보원장 정철균** 아니,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닌데 다만 원래 패널은 당초에 했던 데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계속. 그렇지만 어쨌든간에 저희한테 넘어왔어도 저희가 표본을 보완하고 해서 좀 질을 높이는 작업을 해 왔던 것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홍영표 위원** 이게 우리 정보원 원장님의 책임은 아니지만 사실은 이 정부 들어와서 한국노동연구원을 손을 봐야 되겠다 하면서 시작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학술적인 사업까지도 정말 말이 되지 않게 고용정보원으로 넘긴 거거든

요. 그래서 저한테 이 자세한, 아까 하셨다고 했어요. 제가 듣기로는 공개 안 된 것으로 알거든요. 이쪽의 전문가들한테 들어보니까 과거와 같이 공개가 안 됐어요.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한국고용정보원장 정철균** 예, 그렇습니다.

○**홍영표 위원** 그 내용을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고용정보원장 정철균** 예.

○**홍영표 위원** 나머지 문제는 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태 위원** 새누리당 서울 강서을 김성태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습니다.

노사발전재단 문형남 사무총장님!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문형남** 예.

○**김성태 위원** 오늘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그 자료들이 본 위원 질의 10분 전에 이제 도착했어요. 꽤 많은 자료인데 10분 동안에 저희 보좌 비서진이 부분적인 내용만 내가 하나만 좀 봐라 그랬더니 본 계, 특채가 몇 명인가 보니까 직원 누적 총계 총 248명 중에 특채가 15명이에요. 약 6%.

본 위원이 10분 만에 이런 자료를 보는 건데 노사발전재단 근무자 중에는 자질도 부족하고 또 불성실한 근무태도 또 재단에 무슨 일이 있고 하면 매사를 정치적으로 보고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인식을 하는 직원들이 많다, 이런 제보예요. 이것은 상당히…… 재단이 느슨하고 이렇게 조직이 운영된다면 이것은 아주 큰 문제예요.

고용노동부, 지금 현재 누가 나와 있습니까? 노사발전재단은 고용노동부 어느 부서에서 누가 담당하고 있어요?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정지원** 지금 담당 국장이 자료 때문에 밖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태 위원** 자료 때문에 밖에 나간 거예요? 지금 자리 이석하는 이유가 뭐예요?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문형남** 담당 국장이 노사협력정책국장인데 아까 노사분규 관련해서 아마 나간 것 같습니다.

○**김성태 위원** 알았습니다.

문형남 총장님, 제가 오늘 제출한 자료를 저희 의원실에서 여러 가지 면밀하게 보고 또 앞으로 도 자료 요청을 할 겁니다. 본 위원에게 노사발

전재단 직원들의 그런 불성실한 근무태도나 또 자질 면에서 직원 내부 간에 문제가 발생해서 본 위원한테 제보가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시고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노사발전재단, 특히 사업부문별 지금 현재 인적 관리가 느슨해요,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만전을 기하십시오.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문형남**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리고 폴리텍대학 박 이사장님, 지난 3년 동안 폴리텍대학 취업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이사장 박종구** 해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 85%대 기록했습니다.

○**김성태 위원** 폴리텍대학에 지금 현재 저변에 이 학교를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이사장 박종구** 예.

○**김성태 위원** 특히 기숙사는 지금 어느 정도 구비가 되고 있습니까?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이사장 박종구** 기숙사는 전국 34개 캠퍼스에 대부분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캠퍼스별로 여건이 좀 좋은 데도 있고 그렇지 못한 데도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학생들 전체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여건은 되고 있습니까?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이사장 박종구** 상당수 캠퍼스는 원하는 학생은 수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캠퍼스의 경우는 조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못한 캠퍼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특히 저소득가구의 자녀들이 폴리텍대학 진학을 통하고 또 기숙사 이용을 또 하고 빨리 또 졸업해서 진학을 희망하는 그런 가정의 학부모들이 많이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구비에 특별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이사장 박종구** 예, 지금 BTL 등을 통해 가지고 건설을 촉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특히 올해 내년도 사업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시고 의원실에도 협조를 구하고 하세요.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이사장 박종구** 예.

○**김성태 위원** 다음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이사장님, 지금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건설업까

지 확대하겠다고 내년부터 이렇게 입장을 가지고 계시지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 예.

○**김성태 위원** 총 사업비도 70억인데 공단은 그동안 제조업 서비스 분야에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마는 안전시설 구입비용이 아닌 임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건설업이 처음이지요, 이번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 예, 처음입니다.

○**김성태 위원** 본 위원이 건설업계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 자신도 80년대 초에는 중동 건설현장에 근무도 해 본 사람입니다마는 아직까지 지금 현재 건설 사업주는 체불이라든지 특히 하도급 결제 지연 이런 나쁜 건설현장의 관행이 개선되는 것은 상당히 요원합니다.

그런데 건설 사업주에게 70억의 혈세를 갖다 주겠다는 정책이 이게 국민들한테 나는 공감을 얻을 수 있겠나 이렇게 상당히 의아심을 가집니다. 앞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어느 건설회사가 공사비에 안전시설이라든지 또 이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구매비용을 포함시키려고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이 비계 설치비용을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이 건설회사는 당연히 공사비에 안전시설 설치 및 구매비용을 포함시켜야 되는데, 이 건설 사업주들의 인식이 아주 나빠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엄중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로지 요 근래 이렇게 보면 최근에 증가되는 건설 재해를 임시방편으로 막아보겠다는 공단 간부들의 알팍한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본 위원이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의 소규모 사업장에는 강관비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아주 영세한, 그런 기업이 아닌 개인업자들입니다. 거기에서 요즘 재해가, 추락재해가 33%가 발생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중견기업 이상이 아니라 20억 미만 아주 소규모 사업장에

시범적으로, 다하는 게 아니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성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건설 사업주들이 크든 작든 간에 상당히…… 지금 현재 건설현장이 산업재해가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 예,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장이든 뭐든 간에 당연히 안전시설 설치하고 여기에 따른 구매비용을 자기네들이 공사비용 안에 포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네들 집장사, 그냥 그저 집짓고 자기 이윤에만 눈멀어 가지고 작업하는 인부들 안전시설 이것 도외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재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비계 설치비용을 갖다가 이렇게 70억이나 들여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이것은 국민정서에 안 맞아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누구 담당입니까?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하고 공단이 협의해 가지고 이 정책을 수립한 겁니까?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관 문기섭** 예, 협의했습니다.

○**김성태 위원** 다시 재검토하세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많은 지금 현재 영세 중소기업의, 특히 제조업 이런 분야의 산업안전 지원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그 돈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막상 그런 때는 지금 지원이 덜하고 산업재해가 영세 건설현장에 많이 발생하니까 정부가 국민혈세를 가지고 안전시설 설치하는 그런 구매비용까지 이렇게, 설치비용까지 임대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은 이것은 안 맞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관 문기섭** 저희가 생각했던 말씀을 잠깐 설명을 올리면, 강관비계가 기준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지원을……

○**김성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판단과 기준을 그렇게 세우면 건설현장에 다 지원해 주어야 돼요. 건설현장 말고 토목현장도 지원해 주어야 되고 다 지원해야지요. 토목현장에 전부 큰 몇천억짜리 토목공사 수주하면 원청 대우건설, 한화, GS건설이 합니까? 전부 3단계까

지, 4단계까지 내려간 이 영세한 하도급 업체가 합니까.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관 문기섭** 예.

○**김성태 위원** 그런데 그런 때는 또 지원을 안해 주고 영세 주택건설 현장만 지원해 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산재 증가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임시방편으로 막아보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또한 공단은 성과 달성과 또 홍보에만 몰두해서 정작 장기적인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건설회사들에게 산업안전 면의 책임을 망각해 버릴 수 있도록 하는 나쁜 정책 지원 관행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이 시간 이후에 재검토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관 문기섭**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김성태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관 문기섭** 저희들은 감안을 해서……

○**김성태 위원** 토 달지 마시고 검토해서 다시 보고하세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관 문기섭** 하여튼 그 부분 감안해서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그리고 이제 보충질의 마지막으로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정 위원** 본질의지요?

○**위원장 신계륜** 본질의지요. 죄송합니다.

○**심상정 위원** 신영철 이사장님, 얼마 전에 쌍용자동차 구상금 청구소송 취하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숙고 끝에 소송 취하를 결정해 주셨어요. 옳은 결정이라고 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노동부 여러 부서나 또 산하조직 가운데서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과 관련 있는 그런 공단이기 때문에 그 어느 기관보다도 노동자들의 편에 서서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사명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사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예.

○**심상정 위원** 제가 내내 있지를 않아서 질의답변 내용을 다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짐작컨대 아마 삼성 백혈병 문제에 대해서 많은 위원

님들의 질의와 또 이사장님의 답변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거두절미하고 저는 삼성 백혈병 문제는 직업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재로 인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제가 그 문제를 직업병이다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는 어디까지나 관련되는 기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러면 삼성 백혈병 문제가 같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질병의 모습을 띠고 나타났는데, 어떤 것은 개인적 질병이고 어떤 것은 직업병일 수도 있습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지금 저희가 그것을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25건이 저희한테 접수가 됐는데 그중에 4건은 현재 역학조사 중이거나……

○**심상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여러 건이 있는 건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개별 건이 하나 하나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상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지 않습니까? 묻는 데만 좀 답변을 해 주세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상정 위원** 동일한 사업장에서 비슷한 질병을 얻었는데 어떤 것은 직업병이고 어떤 것은 개인 질병일 수 있습니까? 그것만 제가 여쭙 보는 겁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그 부분은 공정이 좀 다르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아마 차이점이 좀 역학조사 하는 과정에서 인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법 뒤로 자꾸만 숨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으로서 있는 현실을 놓고 이야기를 하세요. 아무리 법이라 하더라도 법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현실을 가릴 수는 없어요.

지난 1심 행정법원에서 한 번 승소를 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예.

○**심상정 위원**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불승인이 됐는데 행정법원에서 산재가 인정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법원에서 판단했던 것은 실제 검증이 안 된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이렇게 추정을 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조사 결과를 수용을 해서……

○**심상정 위원** 그것 읽지 마시고요, 자료 읽지 마시고요. 자료 읽으면 서로 자료 가지고 이야기 하면 되지 뭐하러 이 자리에서 문답을 합니까? 저를 보고 말씀을 하세요.

역학조사 결과나 또 회사 측의 자료 중에 이게 영업기밀이라고 주장하면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공개되지 않지요? 그러면 사실상 노동자들이 이것을 입증할 방법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노동자가 직접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위원** 예, 그래요. 노동자가 입증하기 어렵지요.

상대는 거대 삼성입니다. 입증책임 문제는 얼마나 입증하는 쪽이 돈과 권력을 휘두르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노동부가 결국 삼성 대기업 눈치를 봤기 때문에 불승인한 것 아닙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저희 공단에서 삼성의 눈치를 봐서 불승인한 것은 아닙니다.

○**심상정 위원** 그러니까 행정법원에서는 어떻게 산재가 인정됐어요,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판단의 근거가……

○**심상정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잘못 판정한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료 가지고 법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그러니까 저희 판단 근거는……

○**심상정 위원** 노동자들이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안 되는 가운데서 노동자에 입증책임을 물어서 산재 인정을 하지 않는데 행정소송에서 인정이 됐어요. 근로복지공단에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구차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취하하세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노동자보고 직접 입증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저희는 조사하는 과정에서……

○**심상정 위원** 산재법 시행령에서 직업상 암으로 인정되는 게 몇 가지인지 혹시 아시나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현재 일곱 가지가 열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이 기준이 마련됐는지 아세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열거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불인정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심상정 위원** 아니, 언제 이 기준이 정해졌는지 말씀하시라고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그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연도는 오래 전이지요, 63년요.

지금 대한민국의 암 발생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아시아에서 1위입니다. 10년 만에 2배로 늘었어요. 모든 국민이 지금 암 때문에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63년 산재법이 왜 한 번도 기준을 안 고쳤어요? 이사장님이 이런 것을 걱정하셔야 돼요. 이런 것을 따져 보시고 이 법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현실에 맞는지 이것을 고민하셔야지요, 이런 것을.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예, 그 부분은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어떻게든지 산재 불승인할 수 있는, 인정 안 하는 거기에 머리 쓰지 마시고요.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변명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있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그렇게 판단한 것이지……

○**심상정 위원** 그러니까 63년도 기준을 가지고 지금 그 주장을 하는 게 현실성이 있는 합리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그것은 열거가 되어 있을 뿐이지 거기에 없다고 해서 불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심상정 위원** 그래서 그만큼 잘 인정하셨습니까? 산재 인정률이 계속 줄어들이요? 객관적으로 암 발생률은 지금 하루가 다르게 튀고 있는데 인정률은 계속 줄어드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어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그런데 지금 암 발생률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심상정 위원** 그만하세요. 그만하십시오.

이 개정에 대한 의견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민기 씨 아시나요, 이사장님?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전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렇지요.

이 당시 삼성반도체 역학조사를 진행한 바 있어요. 아시지요, 이것도? 2009년~2011년요, 그렇지요? 보고받으셨지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복지공단에서 그 역학조사 받으셔서 판정하신 것 아닙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역학조사를 산업보건연구원에 의뢰하면 그 결과가 통보가 오면 그것을 가지고 합니다.

○**심상정 위원** 이분이 올해 3월에 삼성SDI 사외이사로 선임됐더라고요. 알고 계셨어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기는 좀……

○**심상정 위원** 백헌기 이사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요.

○**심상정 위원** 한국폴리텍에 한 달 동안 잠시 경유하셨다가 서둘러서 가셨어요. 이분이 계실 때 삼성반도체 역학조사를 했는데, 그 역학조사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왜 공개 안 하십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그것은 저희가 공개하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심상정 위원** 이사장님, 자료를 왜 요약본만 말씀하시고 공개를 하지 않으시지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 그게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심상정 위원** 기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그러는 거지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 그것보다도 산업안전보건법 37조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거기 제9조1항1호에 따라서 원래 조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것은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공개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심상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위원장님, 개인정보와 관련되어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개인정보는 가리면 됩니다. 그래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09년부터 2011

년까지 삼성반도체 역학조사 자료를 제출할 것을 의결해 주실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 의결에 따라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기관장님들, 괜찮겠습니까? 계속 할까요, 아니면 잠시 쉬었다 할까요?

○**심상정 위원** 조금 더 해야 되겠는데요. 추가질의 말이에요.

○**위원장 신계륜** 추가질의 합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할까요?

15분 정도 정회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홍영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정 위원** 아까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리텍 박종구 이사장님 계신가요?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이사장 박종구** 예.

○**심상정 위원** 노민기 씨가 한국폴리텍Ⅱ대학 인천캠퍼스 학장을 하셨는데, 학장님은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이사장 박종구** 대략 한 1억 정도 수준입니다.

○**심상정 위원** 1억, 그러면 삼성SDI 사외이사보다 훨씬 못한가요?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이사장 박종구** 제가 SDI가 얼마 주는지는 정확히 몰라서 비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심상정 위원** 한 가지 더 물겠는데요.

혹시 노동부의 노사정책실장 계신가요?

○**고용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신기창** 국장들이 나와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근로기준정책관 계세요?

○**고용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신기창** 근로개선정책관은 오늘 안 나왔고요……

○**심상정 위원** 그러면 누가, 노동부에서 나오신분 한번 보세요.

○**고용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신기창** 위원님, 어떤 사안인지 몰라서……

○**심상정 위원** 2010년에 ‘직업성 암 등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기준 합리화 방안’이라는 연구용역을 썼지요?

○**고용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신기창** 담당국장과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러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관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 문기섭입니다.

○**심상정 위원** 그러세요?

2010년에 연구용역을 썼지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관 문기섭** 예, 그렇습니다.

○**심상정 위원** 이 연구의 책임자가 누구였습니까?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관 문기섭** 김수근 박사입니다.

○**심상정 위원** 그 김수근 박사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관 문기섭** 전에 성균관대학교에 계시다가 지금은 삼성전자 관련 연구센터 소장으로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러세요. 그런데 삼성전자 건강연구소가 언제 출범한지 아세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관 문기섭** 출범 연도까지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심상정 위원** 제가 보니까 2010년 4월인데요. 그러면 연구용역 기간은 언제부터였습니까?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관 문기섭**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0년도 중에 발주돼서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심상정 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연구기간이 2010년 4월 8일부터 11월 3일까지예요.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관 문기섭**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렇겠지요, 제가 확인해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노동부에서 암 등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을 썼는데 그 연구책임자가 삼성전자 건강연구소 부소장이세요.

그런데 그러면 삼성전자 건강연구소는 언제 만들어졌나 보니까 4월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연구용역을 언제 썼나 보니까 4월 8일 날 썼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삼성전자가 백혈병 문제에 대응

하기 위해서 건강연구소를 만들었는데 이제 거기에 고용노동부가 용역을 줘서 도와줬다는 결론이지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니까, 고용노동부가 전경련의 노사대책부 같은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받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게다가, 백헌기 이사장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 예.

○심상정 위원 역학조사 자문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산하에 있지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 예.

○심상정 위원 여기에 지금 김수근 교수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참여하고 있지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 ……

○심상정 위원 잘 모르세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 예.

○심상정 위원 여기 담당자 누구세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 참석 안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연구원장이.

○심상정 위원 언제 그만두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그만두셨나요?

○위원장대리 홍영표 자,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관계자 분은요. 안 들리니까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박정선 작년부터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작년부터 빠지셨어요?

우리 백헌기 이사장님, 이렇게 삼성 백혈병 문제를 다루고 있는 시기에 그 보고서를 삼성전자 연구소 부소장한테 맡기는 일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 전에 있을 때요?

○심상정 위원 아니, 언제든 말이지요. 이런 일이 적절하다고 보세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 글썄,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심상정 위원 아니, 왜 그 답변을 못 하세요?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를 지금 산재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데 고용노동부가 그 용역을 삼성전자 연구소의 부소장한테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를 제가 묻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답 못 하실 분이면 이사장 하시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관 문기섭 위원님, 제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심상정 위원 아니요.

말씀하세요, 이사장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 글썄요, 제가 있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심상정 위원 제가 이사장님한테 책임을 묻는 건 아닙니다. 제가 여쭙는 거예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뽑았는지……

○심상정 위원 그러면 절차에 의해서 뽑으면 그건 정당합니까, 그런 일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 그러니까……

○심상정 위원 저한테 너무 걱정을 주지 마십시오.

이런 몰상식한 일에 대해서도 지금 노동부 관련 기관에서 답을 못 하면 이 노동부를 어떻게 노동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사장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 예.

○심상정 위원 역학조사 자문위원회 구성을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것은 제가 다음에 적절한 기회에 또 묻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 예.

○심상정 위원 이게 삼성의 노무관리 부서지 어떻게 대한민국 국가의 노동권을 책임지는 노동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른 부처가 아무리 삼성 앞에 쫄쫄매도 이런 정도는 아니에요, 이런 정도는.

삼성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삼성전자 연구소 소장이, 그것도 급조해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용역을 주는, 그게 제정신입니까, 도대체? 그리고도 여러분들이 노동부, 노동을 입에 달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19대 국회는 그동안 이렇게 해 온 관행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완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기능인’을 이제 ‘숙련기술인’으로 법에서 완전히 용어를 바꿨습니까, 노동부

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 법률적 용어를 바꿨습니다, 기능인 대신 숙련 기술인으로.

○**이완영 위원** 명칭만 바뀌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기능인들의 정말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우대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제기능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이 스물여섯 번째 참가해 열일곱 번 우승한 기능 대국입니다.

그런데 이 국제기능올림픽 우승자들이 우승을 이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기능인들 양성 또 기능의 향상, 이게 저는 우리 관리 부재로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저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 국제기능올림픽에서 들어오면 김포공항에서 카퍼레이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얘기 들어 봤습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 예,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은 안 하지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 예.

○**이완영 위원** 어느 우리 정부나 정치인들이 이렇게 기능인,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금메달 수상자조차도 자기 전공을 버릴 정도로…… 저는 노동부와 같이 협의해서 명장도 제가 한번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올림픽에 가면 연금도 준다고 하는데 저는 체육 이상으로 우리 기능인을 존중하고 싶습니다. 해서, 문화부의 문화재입니까? 무형문화재도 지원을 하지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 예.

○**이완영 위원** 무형문화재, 명장, 체육인을 한번 비교를 같이 해서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정말 우리 기능인에 대해서 뭔가 명장까지 포함해서 지원을 확대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직업훈련 또는 어떤 사업을 할 경우에 지원 대책 이런 것을 포함해서 같이 한번 방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박성희 국장님, 괜찮지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관 박성희** 예.

○**이완영 위원** 우리 새누리당은 대안을 제시해서 정부와 국회가 함께 정말 건전한 정부 정책을 만드는 데 경주하는 그런 의정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산업안전공단 이사장님께는, 산업재해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통계상, 노동부

가 많이 애를 쓰셔 가지고……

그전에 이사장님, 올해의 CEO 대상 받았지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 예.

○**이완영 위원** 축하드립니다.

에도 불구하고 지금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오히려 떨어질 줄 모르고 올라간다는 통계 보셨지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 예, 맞습니다.

○**이완영 위원** 인정하시지요? 50인 미만 하시는 사업은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시는 사업을 듣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특단의 대책을 노동부하고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 지금 그 대책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시행하는데 그래도 부족하지 않겠냐 하는 말씀입니다, 제 지적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 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영세 근로자들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저도 청장을 할 때 그런 사고가 많았거든요. 조그만 점포에서, 뭐라고 합니까? 인테리어 하다가 팽팡 터져 가지고 사고 나고 이렇게 다 영세 사업장이란 말이지요. 이런 데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해 봅니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도 상당히 늘어난다는 통계 가지고 계시지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특히, 물론 외국인 근로자도 합법적으로 들어오면 국내 직원들, 근로자와 함께 산업안전 교육을 받을 텐데, 외국인 근로자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지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 제가 작년서부터 계속 산업현장을 다니면서 재해가 연속나는 소규모 사업장을 다녀 보니까 5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반 정도는 외국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근로자들도 기피하는 그러한 영세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재해가 많이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개국에서 들어와 있는데 그들을 위한 교육자료라든가 또 언어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들 지금 우리 공단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사실 50인 미만, 제가 두 가지 질문이 겹쳐 있습니다. 그렇지요? 똑같은 문제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 예.

○이완영 위원 노동부의 산업안전국장님, 지금 이사장님 말씀 들으셨지요?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다수 수입해서 쓰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 교육이 그분들 언어 소통으로 해 가지고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큰 문제 아닙니까? 다른 데 돈 쓰지 마시고요, 이분들을 위해서 많이 들어온 나라별로 해 가지고, 외국인고용지원센터도 제가 보면 베트남어, 중국어, 많이 채용하고 있거든요. 산업안전보건 교육도 해당어를 쓸 수 있는 분들을 채용해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확충 좀 하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관 문기섭 예, 더 확충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인력공단에서 외국인력이 들어오면 그때 교육을 시킬 때 산업안전교육도 같이 하고 있고, 외국어로 지금 관련 자료를 10개 국어로 하다가 13개 국어까지 늘리고 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주신 취지 감안해서 더욱더……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책으로 번역해 가지고 주는 것 가지고는 약하고, 이사장님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직접 그 언어로 교육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니까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쪽에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 좀 해주십시오.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관 문기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마지막으로, 저는 다른 것은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외국인 출국만기보험금이, 과거 우리 한국 근로자들이 중동 지역 나갔을 때 이 문제가 안 풀려서 우리가 중동 국가로부터 노동부에서 반환해 가지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지, 이 제도가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 중동의 저기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중동 문제는 아마 사회보험이지 않았습니까?

○이완영 위원 사회보험입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 예, 사회보험료 문제……

○이완영 위원 그럼 이것은 사실 조금 내용이

다르네요. 그렇지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 예,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완영 위원 저는 조금 다르다면, 그런데 결국 중동 건은 우리가 계속…… 중동 정부가 결국은 우리한테 돌려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보험회사에 귀속된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나중에 어쩌면 우리 정부가 부담해 가지고 지출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귀속을 국고로 하는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안 찾아가는 동안은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를, 아까 의료비하고 귀국 지원비로 확충해 쓰신다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외국인 근로자 복지로 쓰든 활용을 하고, 제도를 바꿔서, 그다음에 나중에 또 혹시 우리 정부가 물 수가 있거든요. 부담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을 봐서라도 반드시 국고에서 쓰도록 제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 국고 문제는 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돈이 어떤 식으로든지 보험회사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게끔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제도 개선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이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협 위원 산업인력공단 이사장님, 아까 해외 취업 관련해서 그동안에 공단에서 해외 취업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아직까지 취업자 수하고요, 그다음에 이들의 해외 근무기간, 그리고 해외에서 근무하고 귀국하신 분들의 귀국자 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지금 통계자료가 없으면 한번 자료를 준비해서 같이 주시고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 간사, 김성태 간사와 사회교대)

○김경협 위원 그리고 해외 취업 사업 이후에 여기에 들어갔던 소요 예산, 그래서 예산의 효율

성 문제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요 예산 내역까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님, 아마 오늘 별로 질의를 안 받아서 한가하시지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김재구** 그렇지 않습니다. 경청하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아무튼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정책, 결국은 고령자,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 등 노동시장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고용 취약계층이 아주 광범위하게 존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업이나 내용을 봤을 때는 아직 초보 단계라서 그런지 전혀, 아주 너무 취약한 것 같습니다. 대체로 아직까지 정부에서 무상 생계비를 지원하거나 공공근로 같은 억지 일자리 만드는 사업들, 대단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대표적으로 사회적기업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인프라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아까 겨우 하는 게 판로 개척, 컨설팅, 사회적기업가 양성하는 과정 이런 정도인데, 이 정도 가지고 사회적기업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자리를 잡아 나갈 수 있을까 참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발효된 이후에 아마 인증 사회적기업 수가 680개가 전체지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김재구** 예.

○**김경협 위원** 이 중에서 혹시 사업에 실패해서 부도가 났거나 폐업한 기업 수가 얼마나 되는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김재구** 예, 그동안에 저희가 6월 말 현재 680개의 인증을 하였고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인증이 취소된 경우가 있습니다. 32개소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관심사항과 관련해서 지난 2009년부터 작년 2011년까지 그동안 인증을 받아서 지원받았던 기업들 중에서 인건비 지원이

끝난 곳이 있습니다. 108개소가 되겠습니다. 108개소 중에서 폐업을 하게 된 경우는 현재 3개소가 있고, 그 외에는 모두 다 현재까지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전에 벤처기업 붐이 한참 일었을 때 아마 정부에서 벤처기업 육성단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지원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이 방식을 이제 사회적기업에 적용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단지를 전국 권역별이든 주요 도시에 계획하고 여기에 집중적으로 정부에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무상 생계비 지원이나 공공근로 같은 사업이 아니라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김재구**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한시적인 일자리나 이런 것의 한계가 크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적인 어떤 정책의 방향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된다고 하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아마 벤처기업의 예에서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것은 말씀 주신 대로 협업이라든가 네트워크 구축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집적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산하기관 전반에 해당되는 문제일 것 같은데요. 아까 홍영표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보은 인사, 낙하산 인사 문제, 아마 국토부 산하기관과 더불어서 노동부 산하기관도 정말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사장, 감사 정도의 임원에 국한되어 있던 부분들이 요즘에는 하여튼 실무 책임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아주 심각한 문제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물론 외부 인사를 모두 낙하산 인사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업무의 연관성이나 전문성, 최소한의 자질과 능력 등이 고려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과 전혀 무관하게, 전혀 상관없이 자질, 능력도 아니고 전문성도 전혀 연관이 없는 부서에 낙하산 인사들이 실제로 투여되면서 이게 기관 경영의 아주 문란, 그리고 대형사고를 일으키

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엇그저께 환경부 감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그리고 또 지금도 요즘에도 나오고 있는 얘기가 여기저기에 낙하산 인사 소식들이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정말로 낙하산 인사 부분을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이번에 국정감사 때 한번 지적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산하기관에서 가능하면 물론 내부 인사가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더라도 업무의 연관성, 전문성들이 충분히 고려된 외부의 전문 인력, 그 외에 전혀 이렇게 무관한 선거 차원의 보은, 아까 보니까 특전사 출신이라 정말 낙하산을 많이 타 봐서 그런지 실제로 낙하산 타고 오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세요.

실제로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 어찌됐든지 간에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산하기관 운영에 정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각별히 유의해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각각의 산하기관에서 좀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수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수미 위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 대책 아시지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 제가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다시 외국인근로자……

○**은수미 위원**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 대책, 아십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 아, 고용부가 발표한 대책 말씀이지요?

○**은수미 위원** 예.

이것 관련해서 고용부 담당자가 나와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관 이태희** 예, 나와 있습니다.

○**은수미 위원** 나중에 좀 이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관 이태희** 인력수급정

책관입니다.

○**은수미 위원** 지금은 이사장님께, 이 내용을 아시겠지만 전에는 이주 노동자들이 자기가 이직을 다른 사업장으로 하고 싶을 때는 사업장 리스트를 받아서 자기가 원해서 이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고용부가 발표한 것은 이주 노동자들한테는 사업장 리스트를 주지 않고 사업자들에게만 구직자의 리스트를 주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이주 노동자께서 “옛날에는 고용지원센터에 가면 회사 리스트 주고 알선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고 싶은 회사 사장님들 만나서 일이 어떤지, 월급은 어떤지 상담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 1일부가 되면 우리가 정말 어려워요. 우리는 그냥 사장님 전화 올 때만 기다려야 되고 한국 말 못 하거나 어쨌든 적응이 좀 안 되어 보인다 싶으면, 그리고 전화를 잘 받지 못하면 채용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모습을 우리는 대체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노예시장이라고 합니다. 즉, 팔려가는 거지요. 이런 정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부터 이사장님께 좀 여쭙 보겠습니다.

이사장님, 한국산업인력공단 업무를 보니까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 민간단체와 업무협력을 통한 따뜻한 채용환경 조성,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업주 요구에 부응한 효율적 도입 기간 단축 노력,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브로커 개입 자료 있습니까,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것은 이주 노동자들이나 사업주에게나 다 브로커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니까, 이 브로커 개입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은수미 위원** 그러면 고용부에서는 가지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관 이태희** 브로커 개입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

○**은수미 위원** 그런데 여기 제목이 ‘브로커 개입 방지 대책’인데 객관적 데이터 없이 대책을 내세우십니까?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관 이태희** 그렇지만 지난번에……

○**은수미 위원** 그러면 다시, 제가 긴 대답을 들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브로커 개입과 관련된 고용부에서 실태조사 한 자료를 내주십시오.

오.

두 번째로 브로커는 노동자들에게도 브로커일 수 있지만 사용자에게도 브로커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자가 이제부터는 자기가 간택을 받아야 되는데 간택을 받고자 기다리는 노동자한테 예를 들어서 누군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브로커가 아닌 사장이라는 증거를 노동부는 어떻게 찾으시겠습니까? 즉, 브로커 개입 때문이라면 그 증거는 어떻게 찾으시나요? 방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대책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관 이태희**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브로커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한 겁니다.

○**은수미 위원** 예, 발표 대책을 보니까 리스트를 사업주에게만 주고 노동자한테 안 준다는 게 대체적으로 핵심적인 대책이시던데, 제가 그래서 그게 대책이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관 이태희** 예, 그렇습니다.

○**은수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동자한테 어떤 사람이 전화를 했는데 그 사람이 브로커가 아닌 사장이라는 증거를 100% 확신하십니까?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관 이태희**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용센터에서 알선을 직접, 이전까지는 그 사업장 명단을 외국인근로자한테 사실상 무제한 제공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을 우리 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적극적인 알선을 통해 가지고 매칭을 시켜 주고자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은수미 위원** 예전에는 매칭을 안 시켜 줬습니까? 그냥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게 직접……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관 이태희** 예전에는 두 가지 다 썼었습니다.

○**은수미 위원**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면 고용지원센터가 사업주하고 연결해서, 직접적으로 100% 사업주하고 연결해서 사장임을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관 이태희** 그렇습니다, 당연히 지금 저희들이……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신청한 것을 DB로 관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업주하고, 적절한 사업장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은수미 위원** 적절한 사업주가 브로커가 아닌, 위장된 페이지 컴퓨터가 아니—여기 고용지원센터를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라는 것을 지금 고용지원

센터가 데이터로 관리하십니까?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관 이태희** 예,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은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외국인 고용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 기존에 법을 위반했다든지 또는 예컨대 지도감독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예 그런 사업장은 법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은수미 위원**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경우를 말씀하십니까?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관 이태희** 임금 체불이라든지 산업안전 사고라든지 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든지……

○**은수미 위원** 아니, 예전에도 그것은 마찬가지로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관 이태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새로이……

○**은수미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은 브로커 역할을 고용지원센터가 대신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관 이태희** 아닙니다, 저희들은 공직자이고 공무원들입니다.

○**은수미 위원** 아니, 브로커가 나쁜 의미가 아니라 매개 역할을……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관 이태희**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직업 알선을……

○**은수미 위원** 잠깐만요, 그 매개 역할을 노동자와 해 주지 못하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동자가 직접 전화를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관 이태희** 저희들이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단을 이때까지 외국인근로자들한테 제공했던 것을 중단한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째는 어쨌거나 외국인근로자들이 한국말이 서툰 상황에서 그 사업장 명단을……

○**은수미 위원** 잠깐만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압니다. 제가 수수료를 받거나 떼먹는 브로커들의 문제를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노동자들 쪽에게 연결을 시켜서 고용지원센터가 적극적으로 브로커, 매개 역할을 해 주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장 쪽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 노동자 쪽하고 연계하는 방식은 포기를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사장 쪽 하고만 하는 방식으로 지금 한 겁니다.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관 이태희**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아니요, 그렇게 한 것으로 일단은 이해를 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관 이태희** 그 부분은 자료로 올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은수미 위원** 예, 자료로 주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브로커에 대한 입증사례도 자료를 주십시오.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관 이태희** 브로커에 대한 입증사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자료가 없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수미 위원** 그런데 왜 대책을 만드신 겁니까?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관 이태희** 저희들이……

○**은수미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사업장 변경 건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장 변경 신청을 봤습니다. 대체적으로 40%가 약간 안 되는 39.6% 정도 2011년에, 2008년에 38.7%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증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자, 정리해 주십시오. 조금만 더, 정리해 주는 시간만 드립니다.

○**은수미 위원** 예, 1분만요.

이것을 증가라고 할 수 있는지와, 이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두 번째로 이와 유사한 임시 일용직 이직률이 있습니다. 그게 이것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 사실 겁니다. 제 기억으로 61% 정도, 저임금 근로나 임시 일용직의 이직률, 직장 이동하는율이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60%, 이런 것과 국내노동자들하고 비교할 때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사업자 변경 신청률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것이 높은 거였는지, 증가하는 거였는지에 대한 자료도 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국제노동기구협약 제111호 차별 협약, 이것 대한민국이 1998년 12월에 비준했습니

다. 거기에 따르면 외국인임을 이유로 하여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차별적 조치로 국회가 비준한 바입니다. 고용 또는 직업에 있어서 기회 또는 대우 균등을 무효로 만들거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손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한 번만 더 해 주십시오.

인종, 피부색……

한 번만 더 해 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김성태** 마무리해 주십시오, 진짜.

○**은수미 위원**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출신국 또는 사회적 출신에 기초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차별, 배제 또는 우대에 대해서—차별 대우를 포함하고—이것은 차별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우리가 비준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관 이태희** 예, 알고 있습니다.

○**은수미 위원** 이것에 대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차별협약을 위배한 대책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고용부가 이 차별협약을 위배한 게 아니다, 혹은 차별협약을 위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과거에 외국에 이렇게 간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 간호사로 일하는데 그 간호사가 내가 간택만 당하고 항상 이런 모양으로 자유로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것을 용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차 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성태** 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 정책관님, 자세한 내용은 은수미 위원실에 가서 보고해 주시고……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관 이태희** 예, 자료로

만들어서 보고를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본인이 꼭 하고 싶은 이야기 1분 이내로 간단하게 해 보십시오.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관 이태희**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에 대해서는 한 세 가지 국제적 평가가 있고 우리 국내 평가도 있습니다.

먼저 국제적 평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ILO 차원에서 아시아의 아주 우수한 이주 시스템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2010년도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유엔에서도 유엔 공공행정 대상을 저희 고용허가제가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실에서도 이야기하는 규제행정 대상 중에서 우수 대상으로 저희들 고용허가제가 2위로 선정되기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는 일부, 이게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적어도 국제적으로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자, 자리에 앉으십시오.

존경하는 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하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 이전에, 민주당 위원님 보충질의 전부 다 있으십니까? 질의 안 하실 위원님들?

○**한정애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다 있습니까?

○**한정애 위원** 예.

○**한명숙 위원** 보충질의까지 꺼서……

○**위원장대리 김성태** 장하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하나 위원** 장하나 위원입니다.

저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도 2009년 8월에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투쟁이 있었고 당시에 정리해고자가 무려 2646명에 달했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알려진 바만 스물두 분의 노동자와 그 가족 분들이 안타까운 삶을 마감하셨던 이런 사건은 알고 계시지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예, 알고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당시 파업은 어마어마한 정리해고와 또 불법적인 회계 조작의 의혹까지 이런 문

제도 있지만 그 사태의 일부분을 떼어서 보면 그때 회사가 파업 중인 노동자들에게 용역깡패를 고용해서 투입을 하고 그 진압 과정에서, 또 국가 폭력, 공권력이 투입돼서 노동자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또 정신적·물리적인 피해를 준 이런 내용들이 기사화돼서 사회적으로 그 문제점이 공감되어 형성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후에 그 노동자분들과 가족분들이 목숨을 잃는 데 큰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물리적인 충돌, 폭력사태로 인해서 부상을 입은 쌍용차 직원 12명—정리해고자는 아니십니다—하고 투입된 용역깡패 세 명이 산재보험금 지급을 받았습니다, 토털 3억 4000만원 이렇게 지급을 받았고.

당시에 다친 정리해고자분들, 정리해고는 8월 6일 일어났으니까 아마 근로자 신분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친 쌍용차 지부의 정리해고자분들에 대해서 지급한 건수나 산재보험금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지 여쭙 보고 싶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부상을 당했던 노동조합원은 산재 신청을 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3년이 지난 2012년 6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3억 4000 중에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권여덟 분에게 2억 6500만 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시민, 시민사회단체들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의 비난을 받은 후에 소를 취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청구를 취하했다는 걸로 저의 문제의식이 다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취하 이유도 소송상 실익이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이해하기를 노동자 권여덟 분이 2억 6500에 대한 지급력이 없더라든가 그런 뜻으로 좀 받아들여졌는데 제 이해가 맞습니까? 소송상의 실익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그러니까 이 소송을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 노동조합도 지금 실체가 없는 법외 노조이고 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도 다 재산이 없는 그런 상태고 또 아울러서 이미 선행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소송을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소송비용 등을 감안해 볼 때 경제적 실익

자체가 전혀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장하나 위원** 선행 소송은 어떤 소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그건 민간 보험회사에서 아마 노동조합과 간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 놓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저는 절차상도 문제가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구상권 청구 전에 소송 실익 같은 것, 아까 말씀하신 지급력이 없다거나 노조가 실체가 없다라든가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소송 실익의 부분을 고려를 안 하신 겁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당시에 구상권 행사 결정을 할 때는 2010년 12월 10일 날 구상권 행사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하게 고려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장하나 위원** 결정은 2010년 언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12월 10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2012년 6월 22일 날 한 겁니다.

○**장하나 위원** 6월 22일입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예.

○**장하나 위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그동안 이 업무를 관할하는 기관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업무가 이관이 됐고 또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대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기관이 바뀌었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당시에는 이 사건이 발생했던 평택지사에서 이 업무를 관장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경인지역본부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인지역본부 쪽으로 이 업무가 이관이 됐었습니다.

○**장하나 위원** 평택지사와 경인지역본부, 그러니까 다른 두 기관인 거지요? 아니면 같은 기관이, 뭐 평택지사가 경인지역본부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저희 근로복지공단 소속이기는 합니다마는 업무구역을 달리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경인지역본부로 옮긴 이유는 뭐지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전체적으로 지사에서 하던 송무 업무를 지역본부로 함께 묶어서

관장하는 걸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제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하나 위원** 직제 변경이 일어난 시점은 언제입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직제 변경이 일어난 사실이 지금…… 언뜻 봐도 한 1년 6개월 이상 구상권 청구를 결정을 했는데, 실제로 집행된 것이 1년 6개월이 됐는데요, 좀 긴 기간이 지났는데 직제 변경 부분은 납득할 만한 설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추후에 상세히 알려지기를 바라구요.

그런데 제가 사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은 소송상 실익이 없었다는 것을 처음에 2010년 12월 10일에는 알 수 없었다, 이런 답변이십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그런 게 아니고 당시에 소송상 실익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했는지 자체도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파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경위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아직 파악 중이십니까? 저는 일단은 상식적이지 않은 구상권 청구였다고 보아집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존경하는 장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또 이어가지지요.

○**장하나 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다음은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명숙 위원** 아까 질의를 하다가 말아서 좀더 보충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요.

인권위가 법 개정을 권하지 않았습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예, 고용노동부에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한명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입증책임을 국가와 기업이 부담하는 것으로 전환하도록 요청을 했는데 고용노동부는 반대 입장입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저는 그렇지는 않

은 걸로 확인했고요. 지금 검토 중에 있고, 8월까지 인권위에 검토의견을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근로복지공단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아직 고용노동부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한명숙 위원** 어느 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습니까?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반대입니까? 반대쪽이 좀 강한 것 같습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제가 지금 단계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한명숙 위원** 제가 알아본 것에 의하면 거의 반대 입장 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은데요, 그것을 산재 기금 훼손과 연관시켜서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만약에 전적으로 입증책임, 증명책임을 사업주가 지게 될 경우에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명숙 위원** 산재기금 훼손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좀더 선진화시키는 것을 반대한다고 그러면 노동자들의 권익이나 또 근로자들이 앞으로 일을 하는데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망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산재기금 훼손이라는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기금을 확대한다든지, 예산을 확대한다든지…… 그래서 노동자들이 받는 고통을 근로복지공단이 재해보상을 해 주고 복지의 권리를 향상시켜야지 이런 것으로 핑계를 대서 이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되고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이사장님도 좀 노력을 하시고 고용노동부도 그런 방향으로 결정이 됐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삼성이 보조참가인 좀 안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그랬는데 거절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근로복지공단 내부 문건입니다. 법무팀에게 지시하신 것인데요, ‘소송결과에 따라서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소송 수

행에 만전을 기하라, 삼성전자가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이렇게 법무팀에게 지시하셨어요. 이것 내부 문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그것은 저도 사후에 확인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명숙 위원**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시한 것이 나왔는데……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그것은 1심 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아니, 1심이건 2심이건 내용은 같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아까 죽 얘기를 드렸지만 실제로 지금 근로복지공단을 밖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기업복지공단’이라고 부릅니다. 근로자들의 재해보상이나 이런 복지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쪽에서, 이사장님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언론에는 대책회의라고 그랬는데 기업과 만나서 그다음에 항소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볼 때 상식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원래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이 알고 있고 노동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우리가 뭐가 잘못돼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요.

저는 근로복지공단 신영철 이사장님의 자세 그리고 의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이 ‘기업복지공단’이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그래서 근로자들이 믿고 찾아가서 자신들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어디에 계십니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김재구** 여기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지금 사회적기업에서 하고 있는 관장 업무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업무들하고 금융위원회 소속의 미소금융재단의 업무하고 너무나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사실상 미소금융재단과 사회적기업진흥원과의 소통이 좀 있습니까? 업무협의랄지 이런 것들이 지금 있습니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김재구** 저희가 사회

적기업의 경우에 자본, 용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미소금융뿐만 아니라 신용보증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금의 용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계성에서의 협의가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미소금융재단과 사회적기업진흥원과의 기능과 역할을 조정을 해 나가면서 협의를 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보다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회적기업 설립 인증 지원이라든지 양성아카데미 사업이라든지 인증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겹쳐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을 인증해 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그쪽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이렇게 업무 자체를 일원화한다면…… 미소금융재단에서 대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사회적기업, 언론에 나와 있기 때문에, 뉴라이트계의 사람이 75억이나 받아 가지고 이십 몇억이나 개인적으로 펄펄 쓰고, 이런 여러 가지 비리들이 나서 그 사람은 5년 여의 징역을 받았는데, 이런 상황들이 나는 것이 이것이 철저하게 사회적기업 쪽하고 저쪽에 대출을 받는 쪽하고 역할과 기능이 잘 조화가 돼서 이쪽에서 확실하게 인증을 해 준 사람을 하게 되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그냥 이것이 주먹구구식으로 되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걸 따지고 지적하는 것보다는 제가 하나의 대안을 제시한다면 사회적기업진흥원과 미소금융이 그 외에 또 대출사업을 하는 쪽과 기능을 좀 잘 조정하고 그리고 역할 분담을 잘 해서 어떤 것은 일원화하고 어떤 것은 통폐합을 해서 잘해 나간다면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역할도 훨씬 더 돋보일 거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김성태 간사, 홍영표 간사와 사회교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김재구** 감사합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미소금융은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기업 이외에도 소위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곤란한 계층에게 창업이나 운영자금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하는데 사실은 저희 사회적기업 쪽에서는 미소금융뿐만 아니라 사회연대는행이라든가 민간 부문의 사회 투자 부문과도 적극적으로 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미소금융에서 있었던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인 연계는 없지만 말씀 주신 대로 사회적기업의 원래의 마이크로 크레딧이라는 그 정신에 따라서 이런 투용자가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제도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가 협의를 해서 그런 좋은 대안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관 이태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끝나셨습니까?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민 위원** 새누리당 김상민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께 제가 이어서 질문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이사장님을 향한 질책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이사장님께서 하셔야 될 되게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제가 누차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이해하시고 질문에 잘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평균 36억의 성과금들을 계속 받았지 않습니까? 비리가 잠적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요? 그래서 터지고 나서부터 경영평가지수가 낮아졌다고 말씀하셨지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예, 그렇습니다. 종전에 비해서 낮아졌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런데 예전에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났는데 왜 그 이후의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하고 있는 경영실적평가는 발생한 시점에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성과금을 챙겼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그것은 뭐 그대로 그냥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김상민 위원** 받고 끝나는 것인가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러면 그때 죄 짓고 잘못된 사람들, 그때 평가지수를 잘…… 경영 잘못된 경영진이나 운영진들은 그냥 성과급 받고 아무런 반납이나 환납 이런 것은 없는 상태인가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러면 그냥 나 때만 사고 안 나

면 그만이겠네요? 덮어 놓는 게 더 좋은 거네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지금 현재의 구조로는……

○**김상민 위원** 문제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감사에서 문제가 발견됐더라도 그때 이것들을 밝혀내지 않는 게 훨씬 좋은 거네요? 그래서 감사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 사안이 구체적으로 자료가 제보가 돼서 감사원에서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밝혀지지 않았던 건입니다.

○**김상민 위원** 어디서 밝혔나요, 이것을?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밝혀낸 겁니다.

○**김상민 위원** 그렇지요? 검찰에서 밝혔어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그렇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감사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진 거예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조금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계속 덮어온 것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나중에 밝혀지더라도 만약에 드러난 연수가 있다면 그때 있었던 성과금이나 이런 기타 국민의 정말 아까운 세금들은 반납이나 환급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야지 책임성 있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저도 오히려 실제 그 사건이 발생했던 시점에 적용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민 위원** 그러면 좀 바꿀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지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그런데 이 부분은 전 산하 공기업·공공기관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경영실적평가기기 때문에……

(홍영표 간사, 신계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상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니, 나중에 가서 아무런 관련도 없는 운영진이나 경

영진이 왜 이것을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것 이상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전에 잘못해 가지고, 감사 잘못하고 시스템을 잘못 만든 사람들이 성과금은 챙겨 가고, 이것 이상한 일 아닙니까?

언제든지 밝혀지면, 자기 때 잘못된 게 밝혀지면 내가 나이가 들건 퇴직을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상응하는 모든 것들을 책임질 수 있는 어떠한 시스템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그해의 감사도 굉장히 강력하게 해 낼 수 있는 어떤 내부의 에너지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그런데 아마 이게,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기술적으로 과거로 소급해서 다시 경영평가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민 위원** 미리 만약에 그런 여지가 있다 싶으면 경영평가기준을 여러 가지로 조율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어찌 됐든 이사장님, 그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저희 의원실에 좀 방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예, 알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앞으로 근로복지공단이 감사 먹통, 비리 공단, 횡령 공단 되지 않을 수 있게끔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세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예, 금년에는 그런 부분이 말끔하게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김상민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사장님, 정말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 퇴신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런 일로 그렇게 불신을 받고 비리, 횡령할 수 있는 공단으로 취급받는…… 그런 애쓰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사장님, 이것은 반드시 뿌리를 뽑으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예, 저도 위원님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여쭙 보겠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성규** 예.

○**김상민 위원** 제가 오늘 질의 요약한 것을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

리면,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기관 명단 공표가 효과성이 참 의문스럽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이행치 않는데 민간기업이 참여할 리 없다는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의 민간기업 1만 1873개소 중 50.7%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미이행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성규 예.

○김상민 위원 이 중 3068개 기업은 의무고용률 1.3%조차 지키지 않았고, 장애인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곳이 1456곳입니다. 맞습니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성규 맞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런데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기상청 특허청은 장애인 근로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성규 예, 장애인 근로자 없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성규 공공 부분이고 정부 부분이기 때문에……

○김상민 위원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성규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상민 위원 이렇게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법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성규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러면 이게 위법 활동한 겁니까?

위법 활동한 겁니까, 아닙니까? ‘예스, 노’로 대답해 주십시오. ‘예, 아니요’로 대답……

위법입니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성규 예,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지요.

○김상민 위원 위법이지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성규 예.

○김상민 위원 어디가 위법을 했습니까?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기상청 특허청이 위법 활동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성규 지금 기록상으로는 장애인 고용 이행을 안 한 겁니다.

○김상민 위원 그렇지요.

아니, 그런데 정부에서도 위법하는 활동을 누가 지킵니까?

아니, 장애인들이 도대체 어디 가서 일할 수

있습니까?

이것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공표해서 돼요? 붙잡아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국이 공정사회가 되고 더 불어서 같이 잘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노력을 통해서 이것 입법 활동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리고 이 수치에 대해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연구해서 나온 결과 맞습니까, 아닙니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성규 그렇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런데 왜 위법 활동을 해요.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기상청 특허청, 장애인,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고 위법 활동하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성규 좀더 솔선 수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민 위원 이것은 장애인고용공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굉장히 수고하고 애쓰시는 것 아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장애인고용공단에서 더 명확한 이야기를 하시고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공공기관조차 참여하지 않는 장애인 고용의무제 민간이 참여할 리가 없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성규 저희들이 좀더 적합한 직종도 더 발굴해 내고 찾아서 공공기관들을 더 설득하고 앞서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상민 위원 예, 마무리……

제가 환노위 활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소외되고 어려운 층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버지도 장애인이세요.

그런데 이런 조치들이 그냥 단순히 장애인이라는 어떤 한 부분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에 힘이 없고 백이 없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삼성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정부가 하는 일이 뭐니까? 국가가 하는 일이 뭐니까? 그리고 입법 활동이 무엇을 하는 겁니까? 공정하지 못하게 힘으로써 억눌림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정당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힘써 주시고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예.

○**김상민 위원** 그런 것 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박탈감에 빠져서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좀 바꿔 주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다 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아주…… 감사합니다.

김성태 위원님 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입니다.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성규** 예.

○**김성태 위원** 조금 전의 김상민 위원님 발언에 이어서,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들의 고용률을 늘리는 노력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직 등록자 중에서 실제로 취업한 사람이 아직도 절반에 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성규** 예.

○**김성태 위원** 문제는 구직 등록을 한 이후에도 취업 알선조차 받지 못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취업 알선 건수는 평균 한 50%밖에 되지 않지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성규** 예, 조금씩 올라오고는 있는데 아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김성태 위원** 또한 구인 등록을 한 업체도 절반 정도 취업 알선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공단에서는 취업이 되든 안 되든 알선 비율은 100% 가까이 맞춰 주는 것이 공단의 역할이 아닙니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성규** 우선 등록을 해 놓고 저희들이 알선, 취업을 못 하는 분들

이 중증장애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들을 자꾸 개발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그 생각을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구직자와 구인업체 간에 조건이 맞지 않아 가지고 알선이 어렵다는 식의 이 방식은 고용공단에서는 늘 하던 답변 방식입니다. 이런 답변은 사실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이지요.

취업을 위해서 공단을 찾은 장애인 중에 절반 정도가 취업 알선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공단이 왜 존재하는지 이런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 것이지요.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공단이 시장조사나 또 필요한 수요처를 그냥 찾아서는 안 돼요. 처절하게 공단이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성규** 알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공단 임직원들하고 직원들은 ‘정부예산으로 급여, 복지 혜택 보고 있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다, 하는 데까지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장애인고용공단 같은 경우는 정말 전체 임직원들이 처절하게 노력을 해 줘야 됩니다. 그 래야만……

누가, 솔직히 장애인 일자리 선뜻 내어 주려고 하는 그런 기업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성규** 예.

○**김성태 위원**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처절하게 덤벼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그런 노력이 좀 미비하다, 또한 기업의 요구에 맞게 직업능력 개발이라든지 인력개발 운영 그런 기관들과 연계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장애인들이 우수한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성규** 지금 기업에서도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요구에 맞추어서 모집 대행도 해 주고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좀 풀어 보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예.

○**김성태 위원** 작년에 9·9, 흔히 말하는 비정규중합대책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작년 9월 9일 날……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예, 알고 있습니다.

다.

○**김성태 위원** 본 위원이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사회보험료 지원 대책을 DJ정권 그리고 노무현 정권 이전부터 참 염원하던 일이었는데, 요원한 일이었는데 이것을 작년에 합의를 정책적으로 봤어요. 그게 올해 시행되는데, 그 업무를 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인력이 근로복지공단에 충원이 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지금 전부 비정규 고용 형태로 유지하고 있지요, 이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고용노동부 정책관 누가 나와 계십니까?

지금 근로복지공단하고 고용노동부가 이 인력 충원 건을 가지고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정지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장관님도 판단이 좀 현장하고 많은 또 차이가 있다고 들려지던데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정지원** 전체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기존에 새롭게 시작한 사업과 현재 요구되고 있는 사업들의 다양한 여러 가지가 근로복지공단 직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런 인력…… 이런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이런 정책의 결과가 결론은 비정규직 양산의 결과로 이어지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리는 제대로 된 일자리로 이렇게 채워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만큼 각별하게 근로복지공단의 인력충원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정지원**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다 하셨습니까?

○**김성태 위원** 예.

○**위원장 신계륜** 다음은 한정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에 위원** 백헌기 이사장님께 여쭙 보겠습

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데 불법사찰에 관여했던 한국선진노사연구원 출신 분들이 공단에 잠시 몸을 담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혜선 비상임이사가 사퇴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며칠 자로 사퇴하셨습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 7월 13일부로 사퇴를 했습니다.

○**한정에 위원** 7월 13일부로 임기가 만료된 거지요, 2009년 5월 21일부터 시작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 예, 만료됐습니다.

○**한정에 위원** 그것은 사퇴가 아니지요. 결국은 문제가 되었던 4월 달에 그 시끄럽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 아까 제가 퇴직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정에 위원** 사퇴하셨다고 그러셨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 박영수 원장은 중간에 나갔고, 전혜선 이사는 임기 만료로 퇴직을 했습니다.

○**한정에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시끄러운 사람이 임기를 다 마치고 가도록…… 사퇴 종용이나 이런 것은 안 하셨나요? 공단이 그래도 청렴하다고 평가를 많이 받는데 이런 분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게 공단에 그렇게 도움이 됩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 그래서 아마 임기 되어서 그만…… 더 채용할 수 없이 그만됐습니다.

○**한정에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산하기관의 임원들 비상임이사들을 죽 봤는데요. 여기 노동부 해당 국에서 다 나와 계시니까 여기 지금 근로복지공단의 재정복지이사로 몸을 담고 계시는 배정근 이사님 계십니다. 배정근 이사님이 근로복지공단 재정복지이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산업인력공단의 비상임이사로 되어 있고, 노사발전재단에도 비상임이사로 되어 있고, 이런 것은 정리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아까 문제가 됐던 노민기 SDI 비상임이사로 가신 분은 승강기안전기술원의 비상임이사로 되어 있으시고, 이렇게 사람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로 그냥 이렇게 두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노동부는 이런 것을 신경을 안 쓰는 겁니까? 뭐 어떤 겁니까? 그리고 박준성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이분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비상

임이사로도 계시네요.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으로 이렇게 운영을 왜 하십니까? 이것은 여기다 물을 수는 없고 여기다 물어야 되나요? 관리를 좀 하시지요. 이렇게 관리가 안 됩니까? 다 노동부 관료들 아니면 그나마 쓰는 교수들도 다 거기서 거기이고, 박준성 씨…… 안두순 씨도 여기 몇 군데 자리를 하고 계시던데 이분은……

노사발전재단의 문형남 총장님!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문형남 예.

○한정애 위원 발전재단에서 하는 사업 중에……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문형남 발전재단의 심사위원으로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심사위원인데, 44억이나 하는 노사파트너십 그것을 달랑 세 분에서 심사를 다 하시더군요.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문형남 죄송합니다. 이게 10년, 11년, 12년 조금씩…… 안두순 씨는 10년에 했고요. 그다음은 안 했고 그다음에 김동배……

○한정애 위원 그다음은 안 했는데, 아무튼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두 분이 겹치시고 그리고 44억을 한 기업당 4000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을 정말 달랑 세 분에서 다 결정을 하십니까?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문형남 심사위원이……

○한정애 위원 이게 가능합니까?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문형남 5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한정애 위원 클린사업,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하는 클린사업 거기는 달랑 500만 원 아니면 1000만 원을 주는데 몇 명이 심사하는지 아십니까? 이것 이렇게 하셔도 됩니까?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문형남 죄송합니다. 우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솔직히 이 심사위원으로 올 수 있는 사람이 노사관계 이런 분야의 전문가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좀 중복된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노사관계 전문가가 부족해서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이렇게 엉망인 건가요?

그것은 빨리 시정해 주시고요.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문형남 알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리고 백헌기 이사장님께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해가 줄었다고 그러셨어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 예.

○한정애 위원 재해가 줄었습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작년 5월 말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한정애 위원 사망자는 확실히 줄었어요, 그렇지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 예.

○한정애 위원 사망자는 줄었기 때문에 줄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재해가 재해로 다 신고된다고 보십니까, 산재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한정애 위원 스위스는 인구가 780만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180만 명이 산재에 가입해 있고 연간 재해자가 45만 명 정도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산재로 잡히는 게 10만 건도 안 되지요. 그래서 그나마 지표로서 가능한 게 사망만인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근로자 10만 명당 사고사망자를 죽 보면 이게 외국 사례 이렇게 분석해 놓은 것이 일부러 안 하는 건지 별로 없습니다. 2007년 자료를 죽 보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10만 명당 사고사망자가 8.8명이고 EU 15개국으로 보면, EU 평균이 2.9명인데 그중에 포르투갈이 가장 높은데 6.3이고요. 문기섭 국장님, 제대로 들어주십시오. 이탈리아가 2.5, 스페인 2.3, 프랑스 2.2, 독일 1.8, 영국 1.3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2.9이고 일본은 1.9입니다.

그런데 사고손상률을 보면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고를 보면 EU 국가의 평균이 우리나라의 6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산재 은폐가 이렇게 많고 여전히 산재사고가 제대로 다 기록도 안 되고 밝혀지지도 않고 물론 보험 가입률도 낮고 하기 때문에 거기다 특수고용직에 대한 보험 확대가 있으면 결국은 그분들이 다 산재보험 대상으로 들어오는데 산재 어떻게 줄이실 수 있으세요?

왜 목표를 산재사고자로 잡습니까? 왜 관리대상 목표를 산재사고자로 잡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이것? 앞으로 특수고용직 다 들어오고 하면 이것 가능합니까? 잡으실 수 있으세요? 지금부터 계속 줄어나갈 수 있으세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관 문기섭** 산재 예방보상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해자 수는, 물론 지적하신 대로 안전보건공단의 기관평가 지표가 재해자 수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는 전반적으로는 재해율 중에 사고……

○**한정애 위원** 그러니까 트렌드를 보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가지고 기관을 죽어라 살아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제대로 다 재해율이 잡히지도 않는 상태에서? 사망만인율만 가지고 관리를 하시든지, 그나마 산재로 사고를 당해서 죽거나 하는 경우에는 속이는 경우는 없으니까……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관 문기섭** 재해율 지표로는 참고로……

○**한정애 위원** 그리고 내년부터는 위험성 평가 작업 하시잖아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관 문기섭** 예.

○**한정애 위원** 공단이나 산재 예방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위험 수준을 낮추는 거지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고를 줄이는데, 옆에서 지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서 그 사업장의 위험성을 줄이는 데 주력을 해야 되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보건사업은 전체적으로 작업환경의 위험물질의 폭로 수준을 낮추는데 있는 것이고, 전국에서 측정된 작업환경 측정의 결과로 유해물질 수준이 얼마나 낮아지는지를 관리를 하세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관 문기섭**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한정애 위원** 잘 모릅니다, 저.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관 문기섭** 지금 안전보건공단하고 저희랑 하는 활동이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관평가상의 대표 지표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한정애 위원** 지표를 변경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산재사고율만 가지고 계속 지표를 삼아 가지고는 절대로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어저께 K2 코리아 노동자들의 테이프가 틀어졌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것 들으셔야 돼요.

작업환경 측정하러 오는데 기관에서 와서 측정

기기를 몸에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잠깐 밖에 나가고 나면 사업주가 와 가지고 그것 다 떼라고 합니다. 그리고 창문가에 둡니다. 그리고 시간 되어서 해당자들이 그 기계를 떼러 오면 다시 차고 있습니다. 측정이 제대로 됩니까? 측정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시고 그 측정수치를 가지고 작업환경을 관리하세요.

그리고 산재사고율이 아니라 만인율 가지고, 사망률 가지고 관리를 하세요, 애먼 직원들 너무 죽이라, 살리라 하지 마시고.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관 문기섭** 저희 행정력은 지금 중상해 이상의 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념해서 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산재, 어쨌든 이것 관련해서…… 유념을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안 되는 것 아시잖아요. 지표를 변경하십시오.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관 문기섭**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질문이 많은데, 좀더 추가로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질의 끝났으면, 홍영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영표 위원** 노사발전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별 시정을 권고하거나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그런 법적 권한을 노사발전재단은 가지고 있지 않지요?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문형남** 법적 권한은 없고 저희가 지도하고 그렇습니다.

○**홍영표 위원** 지도합니까?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문형남** 예.

○**홍영표 위원** 하여튼 그것을 위해서 법적 권한도 없는데 아무튼 일터지원단 사업을 하고 있지요?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문형남** 예,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차별에 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적 구제절차가 근로자로 봐서는 자기가 사업장에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구제신청하는 게 상당히 불리하다 이렇다 보니까……

○**홍영표 위원** 제가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문형남** 그래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홍영표 위원**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차별 시정에 대해서?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문형남** 예, 그렇습니다. 상담, 교육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홍영표 위원** 그런데 이게 법적인 근거도 없으니까 기업 쪽에서 안 들으면 끝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그다음에?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문형남** 그래서 금년 8월 2일부터는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감독관이 직접 이것을 지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해 가지고 앞으로는 좀더 효용성 있는 예방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홍영표 위원** 그 법이 언제 개정이 됐습니까?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문형남** 8월 2일부터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영표 위원** 노동부에서 나오신 분 누가 답변…… 그것 맞습니까? 8월 2일부터 이게 법이 바뀌어서…… 언제 법 개정이 됐지요?

제가 알기로 그런 법이 개정……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문형남** 작년 12월 달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감독관이 이것을 지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영표 위원** 그러니까 근로감독관이 지도하도록 되어 있지요?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문형남** 예.

○**홍영표 위원** 근로감독관이 지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근로감독관의 일이고, 지금 함께 한다 이러는데 보조적 업무를 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무튼 지금 2년간 상담건수가 289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상담건수가 2894건, 차별 시정에 대해서 상담한 것이 2894건입니다. 그런데 상담 이후에 차별이 시정되거나 어떤 조치가 이루어진 건수나 사업장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문형남**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세히 잘 모릅니다.

○**홍영표 위원** 아니, 누가 담당자가 나오셨나요? 말씀하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차별 시정조치 사례가 없어요. 20억이나 들여 가지고 차별 시정조치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없습니다.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문형남** 사실 저도 여기 총장으로 와서 보니까 실질적인 어떤 차원에서는 이게 사전적 예방이 어떤 권한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홍영표 위원** 법적 권한도 없고 실제로 어떤 실효성이 없는 일에 정부 예산 20억 쓴 겁니다,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20억을 썼는데 어떠한 성과도 없었고, 그게 사실이고요.

이것을 보면 두 가지 방식으로 했거든요. 하나는 직접 재단에서 사업장을 방문하여서 하는 컨설팅이 있고, 하나는 외부 전문가나 노무사들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간접 컨설팅이 있는데, 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문형남** 그것은 차별 개선하고는 상관없이……

○**홍영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십시오. 직접 하시는 것하고 위탁해서 하는 것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5대 5입니까, 아니면 7대 3입니까?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문형남** 작년도에는 직접이 많았는데 금년도에는 그게 늘어나면서 간접 컨설팅이 많습니다.

○**홍영표 위원** 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정부 예산을 가지고 컨설팅 전문가, 노무법인, 노무사들 사업영역 확장해 주는 거예요, 아무 성과가 없으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올해 이런 예산 올리지 마세요. 절대로 이것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와 계십니까?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전운기** 예.

○**홍영표 위원**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의해서 구 한국노동교육원이 없어지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로 이관됐지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전운기** 예, 2009년 3월 1일 자로 이관됐습니다.

○**홍영표 위원** 그런데 원래 이 한국기술교육대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기술교육을 통해 산업현장에 필요한 일자리 창출이나 산업현장 기술전문인력 양성이 목표였습니다. 그렇지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전운기** 맞습니다.

○**홍영표 위원** 그래서 원래는 고용노동부 공무원 대상의 직무교육을 수행하는 고용노동연수원, 그러니까 한국노동교육원 사업하고 한국기술교육대가 수행하는 사업 자체는 아주 이질적인 것입니다. 맞지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전운기** 예, 미션이 다릅니다.

○**홍영표 위원** 완전히 다른데 이때 무리하게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합해 놓았어요. 합해 놓고, 또 하나는 이 당시 기관을 폐지할 때 ‘노사 당사자에 대한 교육은 민간으로 이전하겠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때 그랬습니다. 맞지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전운기** 그렇습니다.

○**홍영표 위원** 그런데 왜 지금도 공공부문이나 노사 당사자 그리고 일반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왜 여기서 합니까, 이런 것은 민간한테 위탁을 안 하시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전운기** 개인은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공공부문은 하고 있습니다.

○**홍영표 위원** 아무튼요, 공공부문이라도.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전운기** 그러니까 적어도 저희 대학이 고용노동연수원이 정부 예산을 가지고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직원 또 교사 등 교육공무원 등 그리고 공공부문에 대한 노사교육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위탁을 받았습니다.

○**홍영표 위원** 지금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정말 아주 이질적인 기관에다가 이런 사업을 이관시켜 놓고 제대로 안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이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고용노동교육원에서 수행을 하시겠네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전운기** 현재로서는 정부 방침이 바뀌지 않는 한 저희는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영표 위원** 그것은 정부 방침이니까 모르시겠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들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모두 끝났지만 혹시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 있으면……

○**심상정 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위원장 신계륜**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명하는 순서대로 그냥, 먼저 심상정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아까 고용노동부의 문기섭 정책관님 잠깐 좀 나오세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관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입니다.

○**심상정 위원** 간단한 것만 물어볼게요.

아까 제가 그 질의를 드렸는데, 그 경위를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관 문기섭** 그 관련 직업성 암에 관한 연구는 산재보상 측면에서 인정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발주를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4월부터 11월까지 됐고요. 저희가……

○**심상정 위원** 그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잘 모르세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관 문기섭** 그 자료를 제가 드려 가지고……

○**심상정 위원** 그러면 나중에 하시고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관 문기섭** 3000만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모집공고를 했는데, 입찰에 한 분만 당시에 김수근 박사가 해서 정부계약원리상 유찰이 되어 가지고 결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월 8일자로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그 김수근 박사께서 삼성전자로 자리를 옮긴 것은 4월 15일자로 되어 있는데, 계약을 할 당시에는 성균관대학교에 재직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 이후에 언제 그 사실을 인지했는지……

○**심상정 위원** 4월 8일 날 계약을 하셨는데, 삼성으로 간 것은 15일이었나?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관 문기섭**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사실을 인지하고 계약을 왜 해제를 안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계약상 위약금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오해는 아니지요. 오해가 아니고 진실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 이 연구용역에 대한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서에는 어떤 경우에 계약을 취소한다든지 이런 게 있겠지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관 문기섭** 취소요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상정 위원** 아니, 일단 입찰하고 계약 체결에 관한 서류 있을 거예요. 계약서까지 일체를 저한테 보내 주세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관 문기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그다음에 김상민 위원님 하겠습니까?

○**김상민 위원** 예.

○**위원장 신계륜** 김상민 위원님 하십시오.

그다음에 장하나 위원님도 하시나요?

○**장하나 위원** 저는 마지막에 좀 하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린 게 있는데 아직 못 받았습  
니다.

○**위원장 신계륜** 아, 그래요? 그러면 은수미 위  
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한 위원님 하시고, 장하나  
위원님 하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감사합니다, 발언기회 먼저 주셔  
서요.

새누리당 김상민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여쭙 보겠는데요.

지금 0.001% 시정률이 어디입니까? 아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 예, 직업방송  
입니다.

○**김상민 위원** 그렇지요? 시정률이 0.001%인데,  
이게 사업상으로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이것을  
시정률로만 평가할 수 없는 것은 아는데요. 그래  
도 굉장히 많은 액수들이 매년 들어가지 않습니  
까, 그렇지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 예.

○**김상민 위원** 어떻게 보세요, 이 사업에 대해  
서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 예산이 한 50  
억 들어가는데요. 작년에도 홍영표 위원님이 지  
적을 해 주셔서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  
인가의 여부에 대한 용역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7월 말 정도에 결과가 나올 텐데요.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김상민 위원** 짧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 앞으로 인력  
공단이 평생직업훈련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방  
송과, 오늘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인터넷이  
나 아니면 다른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쉽게 교육  
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됩  
니다. 그래서 문제는 좀 있지만 이것을 계속 살  
려서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  
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요. 그 내용도

저희 의원실에—곧 나온다고 말씀하셨지요—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 그렇게 하겠  
습니다.

○**김상민 위원** 사회적기업진흥원이 활발하게 활  
동을 하고 계시고 굉장히 중요한 기능들을 하고  
있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지금 해 오신 것처럼 열심히 활동을 해 주셨  
으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 사회서비스 제공도 있지만 단순 근  
로적 성격의 사회적기업들이 증가하는 추세가 더  
많이 보이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근로적 성격의 사회적기업도 중요한데, 사회서비  
스를 제공하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  
까? 어떠나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김재구** 위원님이 말  
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고 보고요. 또 말씀대로 한시적인 일자리를 벗어  
나서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민 위원** 2010년도 인건비 지원이 중단된  
18개 사회적기업의 경우에 47.4%의 인력을 감축  
했어요. 그렇지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김재구** 예.

○**김상민 위원** 이게 소위 말해서 비정규직처럼  
비정규직 기업을 양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될  
수 있는 우려도 좀 있거든요. 몇 년 후에는 지원  
이 중단되어지면 계속해서 경쟁력 있는 기업을  
해 갈 수 없는,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연구를 더  
많이 하셔서 우리나라에 좋은 사회적기업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김재구** 말씀 주신 대  
로 계속 수익모델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  
니다. 다만 근로자의 한 60% 이상이 기왕에 취  
약계층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계  
속해서 고용을 유지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직해서  
도 경제활동을 하는 퍼센티지가 60%가 넘기 때  
문에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지원이라는 측면은 감  
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아무튼 계속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릴 겁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김재구** 감사합니다.

○**김상민 위원** 근로복지공단에게 마지막으로 짧

게 드리겠는데요.

예술인복지법 아시지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 굉장히 많은 예술인들이 어렵게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예.

○**김상민 위원**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은 특별히 이런 사람들을 향한 노력을 더 많이 해 줘야 될 이유도 아까 계속 질의를 통해서 충분히 더 깊이 인식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곧 이게 시행됩니다. 그렇지요? 2012년 11월 18일부터 시행 예정인 것 알고 계세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용환경 실태에 대한 파악이라든지 기존 산재보험제도에 적용하기 어려운 예술인들도 있어요. 그렇지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예, 일부 적용되고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산재보험으로 설계될 수 있게끔 정부에서 유연한 보험적용 설계를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예, 지금 고용노동부하고 문화관광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 아주 실제적인 형식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그냥 건성건성 되고 또 아까 제가 장애인공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법으로 그렇게 해 놔는데 실제로 지원이 안 되는 일들이 없을 수 있게끔,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수미 위원** 제가 질의가 많아서 길어지면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우선 한국고용정보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홍영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여쭙 보겠습니다.

노동패널과 고령자패널 문제인데요. 혹시 노동패널이, 그 당시에는 한국노동연구원이 그 사업

을 직접 수행하고 있었습니까만 2006년 노동패널이 국가통계품질진단 결과 최우수 통계로 인정받으신 사실 아십니까?

○**한국고용정보원장 정철균** 그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수미 위원** 그렇게 노동연구원에서 하던 노동패널을 몇 년도에 받으셨지요? 2009년……

○**한국고용정보원장 정철균** 2010년도에 받았습시다.

○**은수미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9년에 받으셨습니다. 다시 확인하십시오.

당시가 12차였습니다. 그런데 12차는 조사는 노동연구원이 했습니다만 분석 및 발표를 고용정보원이 하셨지요? 그러면 이렇게 2006년 국가통계품질진단 결과 가장 좋은 데이터로 분류가 됐던 것이 한국고용정보원으로 갑자기 넘어갔을 때 혹시 그전에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생산하던 노동패널의 질이나 전문성이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한국고용정보원장 정철균** 물론 패널 자체가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12차 통계가 넘어올 때 저희 원에서 이것을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협조를 해 줘야……

○**은수미 위원** 그 얘기를 지금 여쭙 보는 게 아니라 그 당시 한국노동연구원에서 11차까지 잘 관리하고 12차 조사까지를 시행했던 노동패널이 갑자기 한국고용정보원으로 갔을 때, 혹시 2006년 국가통계품질진단 결과 최우수 데이터였던 노동패널의 질이나 품질에 있어서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냐고요.

○**한국고용정보원장 정철균** 12차는 여러 가지로 어려웠습니다.

○**은수미 위원** 아니, 이전을 여쭙 보는 것입니다. 이전을 받으셨을 때 혹시 왜 이전했는지, 그것이 주로 국가통계이기 때문에 품질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거나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전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고용정보원장 정철균** 예.

○**은수미 위원** 그래서 품질에 있어서……

○**한국고용정보원장 정철균** 일단 상식적으로 봐도 문제는 있다고 보여지고 좀 힘들다고 보여질 때 이게……

○**은수미 위원** 품질에 있어서…… 제가 무슨……

저의 질문을 잘 들어 주십시오.

노동패널이 이전이 됐습니다. 그것도 조사는

끝났는데, 분석 및 결과 발표를 고용정보원이 그것도 3년 후에 하시지 않았습니까? 2009년에 조사했던 것을 제가 알기로는 2012년에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노동패널은 당해연도에 패널 조사를 하면 그다음 해에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3년이나 늦게 하셨는데, 그것은 당연히 이전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이전이 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주요한 이유 중에 품질이 떨어졌다, 그런 이유가 있었느냐고요.

○**한국고용정보원장 정철균** 그것은……

○**은수미 위원** 그러니까 11차 통계까지 노동연구원 관리하던 통계에 있어서 품질이나 전문성에 있어서 이상이 있었습니까, 혹은 그런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한국고용정보원장 정철균** 질문의 포인트가 노동연구원에서 할 때……

○**은수미 위원** 아니요. 이전을 받으셨을 때, 그러니까 이전을 받으시기 직전에, 한국고용정보원으로 이전이 되기 직전에 노동연구원이 관리하던 혹은 사업을 하고 있던 노동패널이 잘못됐다 혹은 품질에 있어서 이상이 있었다라는 얘기, 평가, 소문, 전문가의 의견, 이런 것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장 정철균** 저희는 일단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업무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의 품질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일단 정부에 소유권이 있는데……

○**은수미 위원** 모르신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주십시오.

그러면 조사는 2009년에 끝이 났는데, 노동연구원에서 끝을 냈습니다. 그 이후에 분석을 하고 나서 2012년에 발표를 하셨지요?

○**한국고용정보원장 정철균** 11년에……

○**은수미 위원** 11년에 베타버전으로 발표한 것은 발표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장 정철균** 저희가 일부 워크숍……

○**은수미 위원** 그것은 학술대회용으로 베타버전 발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발표가 아닙니다. 여기서 공개라 함은, 공개적인 발표라 함은 누구나 쓸 수 있도록 발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매년 노동연구원에서는 당해연도에 발표하

면 그다음 해인 1년 후에 공개하는 방식을 채택을 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주십시오.

○**이완영 위원** 시간을 좀 지킵시다, 다음 해야 되니까.

○**은수미 위원** 그러면 추가질문을 좀더 하겠습니까.

2010년에 13차, 2011년 14차, 2012년 15차, 계속 조사를 하셨지요?

○**한국고용정보원장 정철균** 지금 2013년 조사를……

○**은수미 위원** 15차까지 조사를 하신 것으로 11쪽 발표에 있습니다. 그러면 12차는 발표를 하시고 13차는 발표하셨습니까?

○**한국고용정보원장 정철균** 13차는 이번 10월 달에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수미 위원** 그러면 워크숍 개최는 제가……

공개할 언제 하실 겁니까, 발표가 아니라?

○**한국고용정보원장 정철균** 일단 워크숍을 거쳐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오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수미 위원** 어쨌든 그러면 10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2012년까지 현재 공개를 할지 안 할지 모르시는 거네요?

○**한국고용정보원장 정철균** ……

○**은수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신계륜** 은수미 위원님, 제가 생각할 때는 질의할 내용들을 주어서 자료로 받아보시고 여기서 확인할 것만 확인해 주세요.

○**은수미 위원** 예.

그러면 고령자패널은 몇 년도에 받으셨습니까?

○**한국고용정보원장 정철균** 그것도 2010년 8월 달에 받았습니다.

○**은수미 위원** 그러면 3차를 조사하셨지요?

○**한국고용정보원장 정철균** 지금 조사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8월 달부터 조사에 들어갈 것입니다.

○**은수미 위원** 2010년에 받으셨는데, 2012년인 현재 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한국고용정보원장 정철균** 그것은 본조사를 2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수미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노동패널과 고령자패널?

○한국고용정보원장 정철균 노동패널은 약 10억원이 좀 넘고요, 고령자패널은 8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수미 위원 약 20억 정도의 예산이 어쨌든 한국노동연구원에서 한국고용정보원으로 2009년과 2010년 사이에 그 정확한 이유는 모르시고 정부가 변경을 시켜서 위탁을 받으신 거고, 혹시 노동패널이 당시에 노동연구원과 고용부 사이의 공동소유였다는 것을 아십니까?

○한국고용정보원장 정철균 저는 일단 정부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은수미 위원 그것도 모르시는 거지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더 필요한 일이 있으면요, 자료 요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더 성실하게 아마 자료를……

○한국고용정보원장 정철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이완영 위원님!

○이완영 위원 1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길게 하셔도 됩니다.

○이완영 위원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적기업 이사장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김재구 예.

○이완영 위원 보고에 의하면 1사 1사회적기업 캠페인 사업이 있거든요. 제가 제목으로 봐서는 대기업 위주로 해서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좀 더 다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고용 창출을 하도록 하는 그런 의미로 봤거든요.

그런데 실상 내용을 보니까, 실적을 보니까 지금 많이 추진도 안 됐는데 대부분 대기업들이 돈을 부담하는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취지대로 맞는 겁니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김재구 현재 기업들의 사회적기업 참여 유형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 자신들이 영리형 기업을 설립하거나 재단을 설립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비영리 기관과 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한편으로는 구매 지원, 이렇게 좀 다수 다양한 유형이 있는 형식입니다.

○이완영 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몇 개

기업이 안 됩니다, 이사장님. 몇 개 기업이 안 되는데, 저는 이 사업을 좀더 실질적으로 대기업에 홍보를 해서 사회적기업을 직접 투자할 수 있게끔, 사회적 취약계층을 고용하기도 하고, 서비스가 취약계층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업무영역을 좀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김재구 예,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사회적기업계에서는 대기업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완영 위원 아니, 아까 말한 대로 별도의 재단을 만든다면서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김재구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이완영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직접 재단을 만들어서 하면 되니까 간접적으로 현재 있는 사회적기업에다가 어떤 식으로 돈을 지원하는 것보다, 이것은 물론 키울 수도 있겠지만 좀더 새로운 사회적기업을 창출함으로써 해서 고용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저는 요즘 청년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해 매우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문화 체육 이런 쪽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 사회적기업들이 생겼는데, 이런 쪽으로 많이 대기업이 청년들과 함께 일을 해 주신다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거지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김재구 알겠습니다. 다양한 참여가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 보면 ‘장애인 공단의 표준사업장’ 하고 딱 머리에 떠올려지거든요. 그러면 장애인공단에서도 표준사업장을 늘리기 위해서 대기업과 MOU를 체결하고 많이 늘렸는데, 장애인 이사장님, 지금 얼마나 성과가 있습니까, 장애인 표준사업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성규 지금 자회사형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님?

○이완영 위원 예, 자회사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성규 28개가 설립이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완영 위원 대부분 대기업이지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성규 그렇습니

다. 그렇고 거기에 한 85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이완영 위원 그렇지요. 지금 진도로 봐서는 괜찮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성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대기업이 의외로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앞으로 좀더 계속 확대되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성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렇게 할 가능성도 보이는 거지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성규 예.

○이완영 위원 애써 주신 장애인공단 직원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성규 감사합니다.

○이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위원 부도난 국정과제 사업 하나 얘기 좀 하겠습니다.

글로벌 해외취업 사업 관련해서, 인력공단 송 이사장님!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 예.

○한정애 위원 이게 국정과제였습니다, 그렇지요? 노동부 등 9개 부처가 합동으로 추진을 했는데 부도가 났어요, 지금 현재 어쨌든. 전체 167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당장 나가야 되는 돈이 있는데, 그래서 급하게 돌려막기를 하셨어요. 어저께 이사회를 개최해서서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45억 5500만 원을 전용하는 것을 노동부가 노동부 예산으로 어쨌든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렇지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 예.

○한정애 위원 그래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 4/4분기 분인 데요. 저희가 자구노력을 더 해 보고요……

○한정애 위원 자구노력을 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 ……

○한정애 위원 자구노력 관련해서 하나 여쭙어 보겠습니다.

퇴직급여 총당적립금 26억 7400만 원을 전용했는데…… 여기 입법조사처의 우리 전문위원 계시지요? 입법조사관 계시니까? 입법조사관 계시나요?

○이완영 위원 다 입법조사관이죠.

○한정애 위원 대표적으로, 이게 직원들의 퇴직급여 총당적립금을 사업비로 전용해서 쓰는 게 가능합니까?

○입법조사관 김진선 국가사업비는 기본적으로 국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퇴직급여 총당적립금은 국비가 아니기 때문에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 저희가 그 일을 할 때에 법률가의 자문을 다 구했습니다.

○한정애 위원 글썄, 모르겠습니다. 무슨 자문을 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퇴직급여 총당금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들이 퇴직을 할 때 써야 되는 돈이지 사업비로 갖다 쓰라고 하는 돈이 아닙니다. 법률 자문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국가재정법상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4/4분기 이걸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노동부가 이것 또 방안을 마련해 내겠지요, 노동부 국정과제 사업이었으니까. 노동부에서 이것은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 예,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향후 노동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질의 때 할 텐데 퇴직급여 총당금이라든지 무슨 이상한 성과급 반납, 내부 구조조정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해결할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국정과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예산추계를 제대로 못한 해당 부처에 잘못이 있는 거지 해당 공단에 일하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김재구 예.

○한정애 위원 돌려막기 한 45억이 사회적기업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전용이 됐습니다. 이것 알고 계셨나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김재구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정애 위원 모르고 계셨습니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김재구 예.

○한정애 위원 이게 일반회계 출연금인 사회적

기업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이 총 235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중에 45억 5500만 원이 전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회적기업진흥원은 모르고 계시는 건가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김재구** 저희는 아닌 것 같은데……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관 이태희** 인력수급정책관입니다.

○**한정애 위원** 이게 어떤 사업에서 전용된 겁니까?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관 이태희** 사회적기업 예산 중에서 일자리 창출 예산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남는 것으로 예상되는 그 예산을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서 전용을 한 겁니다.

○**한정애 위원** 나머지 백십 몇억 정도 되는 것은 어디서 전용을 하실 겁니까?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관 이태희**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좀더 추가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예산은 저희들이 전용을 한 상태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정애 위원** 아무튼 지금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예산에는 손을 안 대시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관 이태희** 그렇습니다.

○**한정애 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아무튼 노동부에서 알아서 하시되 인력공단의 자구책이라고 해서 내부 사람들의 급여를 깎거나 하는 이상한 일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미리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재구 원장님께 하나 더, 이것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와락'이라고 하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김재구** 예, 들어본 적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쌍용차 정리해고자 식구분들이 모여서 심리 치료를 하고, 가족들이 만든 심리치유센터인데요. 여기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이 사회적기업을 지금 꿈을 꾸고 계십니다. 정리해고된 상태지만 가족들은 어떻게든 또 일자리를 만들어서 살아보시겠다고 하는 그 노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목적과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구상 단계이기는 하지만 구상 단계서부터, 왜냐면 워낙 실패를 하는 사회적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하는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특별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나머지는 또 있으니까요, 자료 요청을 해서 또 하십시오.

○**한정애 위원** 자료 요청은 안 되고 한 2분 정도만 주십시오. 저는 추가로 별로 쓴 적이 없습니다. 시간을 거의 지켰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그러면 1분만 드릴 테니 집약적으로 하십시오.

○**한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퇴임을 얼마 안 남겨두신 전운기 총장님!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전운기** 예.

○**한정애 위원** 아까 저한테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이것, 총장으로 부임하시고 48일 만에 일본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해 가지고 올해까지 총 열다섯 번을 해외출장을 가셨는데, 경비 지출이 총 3억 2000여만 원을 쓰셨습니다.

8월 19일 날 임기가 만료되는 데도 8월 2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미국 출장을 예정하셨다가 문제가 되니까 취소를 하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예정되어 계시나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전운기** 예정되고 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릴까요?

○**한정애 위원** 아니요. 설명을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내부에서 일부 들어오는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도 너무 자주 가지지만 가족 중에 누군가가 미국 LA에 유학 중인 관계로 4년 임기 중에 미국 출장을 매해 가고 갈 때마다 꼭 LA를 경유한다'라고 들어옵니다.

내부에서 이러한 얘기가 나오게끔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관리를 잘못하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관리감독 부서가 해외출장을 지적하니까 당시 문제를 삼았던 서기관까지 같이 또 대동하고 다니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전운기** 그 제보가 어떻게 됐는지 이해를 합니다마는……

○**한정애 위원** 기술교육대에 누가 오실지 모르지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 끝났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총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짧게, 길게 하지 말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전운기** 지금 대학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학 평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이 국제

화 지수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도 저희 대학은 실무교육을 아주 잘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을, 우리나라가 지금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환되고 있는데 특히 개도국의 많은 나라에서 기술교육을 전수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수님들이 약 10년 전부터 개도국에 각종 직업훈련시설을 개소를 해 주고 교사들을 교육시키고 있는데 이 차원을 우리 학생들이 그 역할을 좀 감당해야 된다.

결국 저희 대학의 학생들이 직업훈련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나가는데 여기의 이 학생들한테 외국어를 무장시키면 해외에 나가서 국위선양도 하고 장기적인 그런 측면에서 국제화를 여러 가지로 추진해 왔는데, 최근에 노동조합에서 어저께 성명서라고 해서 모 일간지에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상당 부분이 잘못돼 있는 거고요.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특별휴가 3일을 요구했습니다. 기존의 휴가가 개인별로 20~30일 썩 있는데 그것 안 쓰고 유급 3일을 특별히 총장이 인정해 달라 그랬는데 그것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그것은 다른 얘기니까 중단하십시오요.

다른 기회에 다 함께 서로 이야기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단하십시오.

그다음에 장하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하나 위원** 장하나 위원입니다.

아까 하던 질문을 이어서 해야 해서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아까 근로복지공단 실무자한테도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아쉽게도 '2년간의 논의 과정은 사실이지만 문서는 하나도 없다'고 하셔서 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정보들을 이사장님이 주셔서 가지고, 2010년 12월에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결정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실제 일을 청구하신 것은 많이 알려진 대로 올해 6월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이 폭력 사태가 벌어진 것은 09년 8월인데요. 이때부터 결정하는 데까지도 짧지 않은 시일이 걸렸습니다. 1년 이상, 결정에도 1년 이상의 시일이 걸렸고, 그다음 집행에는 1년 반이 걸렸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직제 변경도 있었다는 얘기를 하

셨지만 저는 결정적인 이유로 아직 납득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기간 과정상에 해당 부서의 논의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업무가 너무 많아서 논의할 시간이 없어서 질질 끈 것이라기 보다는 제가 보아도, 누가 보아도 상식적으로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이런 결정이었기에 결정 과정, 실행 과정에도 지난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평택지사, 나중에는 경인지역본부에서 이 건을 맡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정말 아무런 문서가 남지 않고 구두로만 회의를 하고, 수차례 논의를 하고 결정되고 집행된 것인지 다시 한번 여기 이사장님께 묻습니다.

제가 실무자한테는 문서는 없다고 얘기를 방금 확인을 했지만 다시 한번 이사장님이 관련된 어떤 기록들을 저한테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하고 일단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일단 확인을 해 보고 관련되는 자료가 있으면……

**○장하나 위원** 처음에 이 건이 논의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그런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논의가 돼서 결정은 언제 됐으며 해서 언제 청구됐다, 이 내용을 꼭 조속히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청구권을 취하겠다고 하지만…… 아니, 죄송합니다, 구상권을. 계속 틀리네요. 쌍차하고 노동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것이 이사장님은 정당한 판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이것은 법률적인 요건하고 또 경제적인 실익 두 가지 차원에서 나눠 가지고 볼 수 있는데, 법률적인 요건으로 볼 때 일단 3자 문제가 논란의 소지는 조금 있습니다, 같은 소속 근로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도 지금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률 요건상으로도 다소간의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송 경제적 실익 자체가 전혀 없는……

**○장하나 위원** 그 부분은 앞에서 말씀해 주셔서, 시간이 적어서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7조1항에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 공단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여기서 제3자 부분이 전문가 의견이 갈린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고요.

하지만 그럼 나머지 ‘쌍용 해고자들이 불법행위로 인해서 가해자다’ 이 부분에 이견이 없으신 거고, 그 판단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지금 이사장님은 보시는 겁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그 부분은 수사기관의 수사기록과 또 법원의 재판기록을 통해 가지고 확인한 겁니다.

○**장하나 위원** 09년 8월의 폭력사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이렇습니다. 그날의 가해자는, 폭력사태 가해자 말씀입니다. 폭력사태 가해자는 거기에 투입되었던 대테러 진압 경찰특공대, 그리고 용역깡패, 그리고 일명 구사대라고 하는 일부의 쌍용자동차 노동자, 그리고 그날의 사태에 대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당시 파업에 참여하셨던 쌍차 해고 노동자분들……

그런데 지금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게, 1건도 산재 신청을 안 해서 당시 해고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급여 지급을 안 하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건강보험 적용도 안 해줬는데 산재 처리는 해 주겠다’ 이런 조합원들의 우려와 사실상 절망감이 있어서 전혀 급여 신청은 안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3억 4000이나 받아 간 그 15명, 심지어 용역깡패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두 번의 절망감과 정말 피해의식, 그 가슴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근로복지공단이 이름에 걸맞게 근로자의 복지에 대해 생각해야 할 때, 저는 사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올해 6월에 이러한 구상권을 청구했던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어서라고 개인적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이런 결정을 내리고 시행을 내리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게 사실이기를 바라구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어떤 문서도 남지 않았다는 이런 모욕적인 대답을 들었는데,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예, 확인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위원님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마지막 질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김상민 위원님, 그다음에 이완영 위원님,

그다음에 민주당의 네 분 위원님과 심상정 위원님 감사드리고, 10개 공단의 임직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몇 가지만 부탁을 할까 합니다.

하나는, 아까 장하나 위원이 요청한 건데, 만도기계를 포함해서 몇 군데 사업장이 파업과 사업체 직장폐쇄가 되는 과정에서 용역경비들이 들어와서 충돌이 일어나고 부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노동부에서는 좀더 자세한 자료를 파악해서 각 의원실에 오늘 중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권혁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지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 기초단체를 포함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을 상당히 성공적으로 진행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도움도 받고 연계해서 하면 진흥원 일도 뭔가 구체적인 실마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니까 그 자료를, 제가 아직 못 받았는데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전체한테 자료 만든 것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파악하세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김재구** 예.

○**위원장 신계륜** 참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김재구** 예, 우선 통계자료 중심으로 준비했는데 의원실로 보내 드리고, 더 보강해서 다시 또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예, 그게 아마 귀 업무 중 하나일 수도 있겠고, 또 진흥원이 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찾을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을 겁니다. 잘 배우면 또 가르칠 수도 있겠지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김재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그다음에 세 번째, 심상정 위원께서 질의 도중 하신 말씀, 삼성반도체 백혈병 관련한 역학조사 결과 보고서 저도 봤는데 그렇게 봐서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그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잘 살펴보셔서 위법적인 부분이

있는 것은 제외하시고, 가리거나 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상정 위원실 찾아가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충분히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결의로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 예.

○위원장 신계륜 그렇게 하시고,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근로복지공단 등 총 10개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위원장님, 서면 요구 자료는 멘트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계륜 오늘 회의 중에 이완영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장께서는 이완영 위원님의 질의 취지에 맞도록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답변 내용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지난 24일부터 나흘간 소관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너무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위원회 활동이 앞으로 예정된 2011회계연도 결산심사, 2012년도 국정감사, 그리고 2013년 예산안과 법률안 등의 의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와 답변을 해 주신 기관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수고가 너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시간이 넘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30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최하며, 고용노동부·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이상 4개 기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7분 산회)

○출석 위원(13인)

김경협	김상민	김성태	신계륜
심상정	은수미	이완영	이종훈
장하나	최봉홍	한명숙	한정애
홍영표			

○청가 위원(1인)

주영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천병호
전문위원	이동근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관	이태희		
직업능력정책관	박성희		
고용평등정책관	신기창		
고용서비스정책관	정지원		
산재예방보상정책관	문기섭		
노사협력정책관	권혁태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신영철		
감사	강운학		
기획이사	최준섭		
재복지이사	배정근		
산재보험급여이사	허원용		
재활의료이사	황원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송영중		
감사	이석원		
기획운영이사	정일성		
능력개발이사	이성기		
능력평가이사	김연욱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백헌기		
기획이사	백낙문		
교육홍보이사	임승업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박정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이성규		
기획관리이사	김종진		
고용촉진이사	조종란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정철균		
연구개발본부장	이대창		
정보화사업본부장	조인호		
기획조정실장	신종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	김재구		
기획홍보본부장	이대영		
사업운영본부장	김종각		
기반조성본부장	최혁진		
학교법인한국폴리텍			

이 사 장	박 종 구
기 획 운 영 이 사	권 오 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전 운 기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문 형 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이 사 장	김 윤 배
기 술 안 전 이 사	김 기 식